



4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4호

(루계 474)



◆◆◆◆◆◆◆◆◆◆ 차 례 ◆◆◆◆◆◆◆◆◆◆

만수무강하시옵소서!.....	4
승리의 한길.....	5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께 드리는 만수축원의 노래.....	6
평화와 통일의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 드림.....	6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을.....	7
출 강.....	7
언제나 우리르는 영상.....	8
그리는 우리 운명의 향도성.....	8
내 고향은... ..	9
영원.....	10
사랑에 대한 이야기.....	18
콜초브의 봄.....	23
봄빛 넘치는 백송땅.....	34
구룡연 (외 1 편).....	37
진주담.....	37
위대한 태양은 빛나... ..	38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형상과 우리 문학.....	41

고귀한 영상	47
명월구의 밤길	49
영원히 빛을 뿌릴 백두산전설	52
김일성 경기장을 찾아서.....	55
조국을 떠나 먼곳에서	58
긴급수송이 끝나뒤.....	62
동갑의 모습	71
그 모습들을 다시 본다(외 1 편).....	72
시인은 자기의 얼굴이 있어야 한다	73
꿈이 아닌 봄.....	79
그가 걸은 길.....	79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신진순

장군님 -

장군님께서

탄생일을 맞으시는 이 아침

축원드리는 마음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장군님!

저에게는 언제나 우리 장군님

꿈만같이 처음으로 뵈옵던

그날의 장군님 젊으신 영상

만대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어서...

지난 세월

철쇄로도 묶을수 없었던 신념의 등대로

그이 따라 헤쳐온 력사의 먼길이

더욱더 가슴깊이 새겨주는 영상

위대한 장군님이시여

식민지 폭압속에서

하늘도 땅도 몸부림칠 때

새까만 절망만으로는 살수 없어

심장속깊이, 깊이 모시고

따르며 안기며 우러른 희망의 태양이여

해방된 광장 연단우에

꿈처럼 모시고

가슴속 환희를 터치기엔

가없이 푸른 하늘도 모자랐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장군님!

우리 수령님

그 무슨 세월이 그처럼 흘렀습니까

그날의 영광

심장에 안고

해와 달을 달렸습니다

투쟁과 생활의 갈피갈피

그 모든 사색속에 장군님은 계셨습니다

장군님 모시여

인민도 조국도

위대해진 나라

주체조국의 번영하는 영광속엔

장군님 영상이 찬란히 빛납니다

수령님의 생각으로 사색하고

수령님의 감정으로 느끼며

어긋나지 않고저 살아온 전사의 소원

그 소원은

생지옥 남녘땅에 새아침 밝는 날

수령님 모시고 고향땅 밟고싶어

남녘땅 내 육친 내 혈육 끌어안고

수령님 앞에 큰절을 올리고싶어

세월과 함께 깊어진 념원이 아닙니까

그날을 위하여

수령님 가리키시는 길우에

생사를 가리오리까

장군님

아, 우리 수령님!

오늘도

밤하늘의 별처럼
가슴속 불타는 그리움으로
수령님 영상 안고
그들도 싸우고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사슬에 얽매인 인민들
오늘도 러명의 태양처럼
우리 수령님을 우러르며
가슴속 불타는 주체의 신념 안고
인류는 싸우고있지 않습니까
아, 장군님

가 사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
지구를 제국주의 사슬에서 완전 해방하는 날
《인류만세! 주체인간 만세!》
우주를 진감할 그날을 위하여
수령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장군님 -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승리의 한길

심봉원

직동령 굽이굽이 흰구름너머
지혜산기슭 력사의 집 트락에
못잇을 그날처럼 단풍이 타네
수령님 모셨던 뜨거운 마음어려

세월이 흐를수록 붉게 타는가
우러러 새길수록 거룩한 자욱이어

트락에 설레는 단풍나무아래서
마디 굵은 농민의 손 잡아주셨네
불구름속에서도 군량미를 무르익힌
그 신념 당할자 세상에 없다시며

군민이 어깨걸고 원쑤 미제 때려엎을
승리의 한길을 열어주셨네

그 길로 판가리싸움터도 오르고
전승의 광장에도 그 길로 왔네
누리에 빛나는 영광을 펼친
불멸의 그 업적 길이 전하며
언제나 한모습 붉게만 타는
지혜산 단풍처럼 내 심장 불타네

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높이모실
통일의 광장도 그 길로 가리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만수축원의 노래

유세프 엘 씨씨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언제나 못잊어 가슴속깊이
정답게 불러보는 조선의 노래
내 무대에 설 때마다 그대를 노래하노라
그대의 황홀한 극장과
4 월의 축전을 생각하며

잊을수 없노라
세해전 화창한 봄날
김일성 주석을 모시고
축전의 노래 춤 보여드릴제
미숙한 저의 지휘도 치하해주시며
못내 기뻐하시던 자애로운 그 모습

내 아직 세네갈의 까마라처럼
당신을 칭송하는 송가 드리지 못했어도
내 아직 그대 조선의 작곡가들처럼
당신을 흠모하는 노래 담지 못했어도

그날의 영광 안고 무대에 섰노라

그 영광 생각하면
사막의 오아시스 나일강의 흐름처럼
메말랐던 나의 가슴에 생명수 흘러들고
주체예술의 화원 꽃피나네
그 영광 영원한 고무의 원천되여
나의 지휘봉에 힘과 지혜 안겨주네

...
우리 부르는 노래 많고많아도
당신의 만수무강 바라는 마음
가슴속에 간직된 념원은 하나라네
새해가 밝아오는 이 아침
인류의 자애로운 태양이신 당신께
영광의 노래 만수축원의 노래 드리노라

(필자는 애급 문화성 음악 및
가극담당부상임)

평화와 통일의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드림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조선의 모든 심장들은 꽃향기속에 맥박치고
주석각하께서는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려는
인민들을 믿고계시네
평화는 문명한 모든 인민들의 목표이거니
그들이 지구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길 찾는것은
과거의 재난속에서 찾은 오늘의 희망이거늘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을 따르고있네

그이께서는 아름다운 문명의 상징인
무지개를 한손에 억세게 잡으셨다네
위대한 주석께서 지니신 지력과 심장은

력사의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조선인민에게 평온, 영광을 안겨주리라

김일성, 그이께서는 멀고도 간고한 길
헤쳐오셨네
전세계인민들은 평화와 친선의 길 밝혀주는
영용용하신 그이 의 활동을 우러러보네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께 모두가 환호를 보내네

장구한 길우에 아름다운 장미꽃 피어나네
위대하고 전능한 밝은 태양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 충실한
인민들은 그이를 따르네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을

바리송 라마나까바나

내 심장 고동치는 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리
내 이 땅에 살고있는 한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리
압박받는 인민들의 위대한 아버지 **김일성**동지를

그이께선
지구우에 억압받는 인민들이 있는 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색하시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고 심려하시네

그이께서 오직 바라시는것은 인민 위해 복무
하는것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가시는것

오 경애하는 수령님
그이의 위훈과 업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 언제나 그이를 따름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희망이여라

(필자는 마다가스까르사람임)

가사

출 강

김경기

붉은쇠물 잘 익었다 펄펄 끓는 전기로에
기쁨 절로 솟구친다 강철남비 불리오세
출장! 충성의 열화를 터치자
주체의 내 조국 강철로 받드는 이 영광 떨치자

준엄한 날 수령님을 강철로 받든 우리
오늘에도 당중앙을 강철로 지켜간다

출강! 충성의 열화를 터치자
주체의 내 조국 강철로 받드는 이 영광 떨치자

자랑높은 공업강국 이 땅우에 꽃피우며
붉은 쇠물 너와 함께 우리 한생 불타리라
출장! 충성의 열화를 터치자
주체의 내 조국 강철로 받드는 이 영광 떨치자

언제나 우리르는 영상

송명근

새벽의 교요가 깃든 정원길
앉지도 앉으신채
문건을 드시고
그 언제면 끝내시려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서로 나누시는 사업토의

나는 모르네
오늘도 쉬임없이
그 무슨 일 의논하시는지...
더 좋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
일떠서는 비날론기지
막아야 할 새 간석지의 구획을 그리시는가

희망으로 맞는 아침에도
웃음속에 저무는 저녁에도
그 언제나 우리러
가슴 후터워지는 영상

산책의 순간마저 바치시는 그 영상
따스한 아래목에 앉아
때없이 우리르며 젖는 마음이어

그 무슨 기적이면
만들어내지 못하시라
문건을 더듬으시는 예지의 눈길
글줄을 짚으시는 창조의 손길에서
오늘의 변혁이 솟아나고
찬란한 래일이 마주오는것을,

오, 나는 아노라
위대한 두분의 사업토의는
래일도 모래도
언제나 끝나지 않으리
우리의 행복을 꽃피워가심은
두분의 필생의 사업이시기에
바라시는 인민의 행복에는
그 끝이 없으시기에...

그리는 우리 운명의 향도성

백하

정가로운 꽃송이를 품에 안아도
피어나는 아침노을을 바라보아도
기쁨에 넘쳐 속삭이여라
오로지 그이를 그려
한껏 빛을 뽐고
한껏 향기를 풍기노라고

목마르게도 목마르게도
역사가 그려
세기에 높이 받들어올린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노래를 주신분

우리들을 따듯이 품에 안아
바람불면 바람을 가리워주시고
찬서리도 맞을세라 막아주시며
천만송이 골고루 향기높이 가꿔주신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낱아 키워준 부모도
자식들이 다 자라 결을 떠나면
한시름 놓건만
정녕 그 사랑의 끝은 어디던가
우리 귀밑머리 희도록
실도랑이 놓여도 손목잡아 건네주시여라
저녁길을 걸어도 불빛을 밝혀주시여라

우리 그 품속에서 더 깊이 알았노라
하늘의 태양이 저리도 빛남을
불언덕의 풀밭이 이리도 부드러움을
삶이 이리도 즐겁고
투쟁이 이리도 보람차고 영광넘침을

진정 그 품은 우리 삶의 푸른 하늘
그 품은 우리 행복의 끝없는 대지
우리 온나절 마음속으로
다정히 그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창가에 고요히 밤이 깃들면
다시금 꿈속에 그 품으로 달려가노라

그이는 우리 삶의 전부
우리 운명의 향도성
그이 손길 드시면 철의 숲 일어서고
그이 걸음 옮기시면 만풍년이 설레여라
그이의 예지 비끼면 주체예술 만발하고
그이의 사랑 깃들면 리상거리 일떠서노라

그이의 불멸의 로작이 태어날 때
시대는 비약하고
그이 외국방문의 걸음 내짚으실 때
만민의 환호 누리에 넘쳐라

가장 친근하고 가장 위대한
그이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영원토록 받들어모신
인민의 지도자

민족의 숙원도 한몸에 받아안으시고
인류의 념원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천만리를 진두에서 헤쳐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오, 그이의 이름은 백전백승
그이의 이름은 영원한 미래
온 누리에 아름답게 피여날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꽃바다우에
높이높이 그이를 모시고
우리 끝없는 영광의 노래를 부르리
다함없는 만수축원의
영원한 노래를

내 고향은...

정들어살더라
앞에는 넓은 벌
뒤산엔 아름다운 파원
집앞으론 어린시절 미역감던
맑은 시내가 흐르는곳

추억도 많더라
동구길 지나 학교로 가며
철이 들었고
살구꽃 하얗게 피는 봄날
뜨락또르 앞세우고 별로 가며
씨뿌리는 너의 봄을 알았더라

노을이 붉게 타는 저녁녘
하루일의 보람으로
맑은 물에 발 잠그고
이삭패는 넓은 들 바라볼 때면
내 가슴에 푸른 꿈이 함께 자랐고

하늘땅을 누렇게 물들이며
난알이 영글어 설레이는 가을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신 별에서
내 가꾼 금빛이삭들을
가슴이 별게 그리안으며 알았더라

나서자라 고향이라
양떼무리 풀뜯는 저 언덕너머
설레이는 백양나무 푸른 숲에

우리의 꿈과 함께
심고 가꾼 정이 깃들어
이리도 아름다운것 아니나

아, 물 한방울 풀 한포기에도
나의 소중한 땀이 스며있어
고향이란
내 바치는 사랑이며 량심

다심한 고향집어머니
친근한 송아지적동무 여기 있어
내 여기 사는것 아니여라

태어나 고향이라
사랑하는 내 고향!
정든 향토여!

너의 만풍년의 설레임소리로
내 조국의 행복한 노래를 듣고
너의 산과 마을에 자라는 숲과 꽃으로
내 조국의 번영하는 모습을 안아보며
천년을 정들어 너를 가꾸려니

고향이여
너를 꽃피우고 가꾸지 않고
내 어이 조국을 받든다고 하랴
누구나 성실한 사랑을 기울일 때만
누구나 자기 고향이라 말할수 있으리

한호

영원

안동춘

말은 벌써 거품을 물었다. 숲의 장벽은 여전히 앞을 막고있었다.

최현은 뜨끈한 말의 목덜미를 어루쓸며 뒤를 돌아보았다.

짧은 부관은 말잔등에 비끄러매인듯 붙어앉아 간신히 뒤쫓아오고있었다.

《빨리!》

최현은 다급스레 웨치고 다시 말고삐를 채었다. 분비의 따끔거리는 침엽들이, 붓나무의 휘천거리는 아지가 얼굴을, 불을 쳤으나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비로운 정적속에 조울던 수림은 수선스럽게 설레며 이 뜻밖의 래방자들의 출현을 놀라움속에 맞고있다. 갑자기 무성한 숲 한복판이 몽청 갈라지면서 가리마같은 길이 나타났다. 갓 닦은 길이라 다짐이 잘 안된 가운데로 자동차바퀴자리가 두줄기 발고랑처럼 지나갔다.

그 길에 들어선 최현은 길녘 표식비에 《백두산 정 14Km》라고 새긴 빨간 글씨를 보자 《길이 다!》하고 환성을 올리듯 웨치었다. 그러나 최현은 얼마 더 못달려 말을 멈춰세웠다.

숲과 길이 하나로 어우러진 둔덕에 파란 승용차가 나타났던것이다.

이마에 한손을 얹고 차를 확인한 최현은 굴러내리듯 말에서 뛰어내려 급히 길녘으로 물러섰다. 길도랑에 문어발처럼 건너질린 나무뿌리에 걸쳐어 넘어질번했다가 짧은이처럼 날래게 몸을 일으켜세운 그는 차에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가느스름한 눈시울밑에서 두눈은 애타는 기대에 차 번쩍였다.

그러나 단 한대뿐인 차가 지척에 이르렀을 때 최현의 얼굴은 락심천만하여 흐려지고 입술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늦었구나.》

탄력있게 곧추 세웠던 몸매가 흐트러지며 늙은이의 상심이 된 모습을 서글피 드러냈다. 달려오던 차는 뒤짐을 진채 거의 무표정한 상태로 굳어져있는 그의 앞에 이르러 갑자기 급제동을 쓰며 멈춰섰다. 차에서는 40 대의 장령이 텅진듯 뛰어내려 놀란 소리를 쳤다.

《최현동지 아님 니까?》

경례를 하는등마는등 달려온 장령은 묵묵히 서있는 최현을 보다가 모든것을 알아차린듯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래 떠나셨나 ?》

최현은 조용히 물었다. 장령은 최현의 땀에 젖은 얼굴을, 수북한 흰 장미에 붙어있는 파아란 나무잎사귀를, 장화에 붙어있는 풀줄기들을 보다가 역시 나직한 소리로 대답했다.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못만나셨군요.》

《응, 숲속으로 질러오느라고.》

최현은 손바닥으로 땀에 쓰린 눈을, 얼굴을 오래도록 문질렀다.

장령은 송구스러운 눈길로 보다가 불만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소리를 안타까이 터뜨렸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전달을 못받았습니까?》

최현은 침묵하고있었다.

세월의 모진 비바람과 다난한 싸움의 불길이 한번 빠짐없이 그 자취를 남겨놓아 열기설기 주름이가득하고 거뭇게 탄 그의 얼굴은 침통하게 굳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량강도에 현지도로 내려오시자 자기 역시 이곳 사업을 돌아보려 뒤따라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수령님의 건강과 사업일정을 수행일군들에게 알아보던 최현은 오늘아침도 굳어진 관습처럼 사격훈련장을 돌아보고 들어와 늘하던 식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의외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군들을 데리시고 백두산으로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백두산엘 ?》

그때 최현은 전기에 맞은 사람처럼 한참이나 굳어져있었다. 부관에게서 자기를 찾은 일이 없었다는것을 안 그는 밖에 나가 담배 두대를 연거퍼 태웠다.

그러나 세대째 꼬나물었다가 핵 집이던지며 일어섰을 때 그의 입에서는 옛날 부대를 돌격으로 부를때의 호령과 같은 웨침이 터져나왔다.

《차를 대라!》

시속 90 킬로메터의 속도를 나무람하며 달리던 차의 앞길에 《도로수리중 x x 로 돌아갈것》이라는 표말이 산더미같은 흙을 밀어제끼는 불도젤과 함께 막아서자 최현은 주변구분대의 말을 끌어냈다. 구분대 지휘관의 라침판으로 《직선행로 40 리》를 계산한 그는 덤불이건 골짜기건 관계없이 백두산으로, 수령님께서 오르시는 산정으로 말을 짓쳐물었다. 그러나... 늦었다. 수령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가 돌아가신것이다. 말을 타고 달려가 《아, 최현동무가 왔구만. 보오. 동무네가 로인치부하는 최

현동무가 동무네로선 엄두도 못낼 기마행군을 했소.》라고 기뻐하며 호탕히 웃으시는 얼굴을 보일 행복스런 기회는 사라졌다. 백두산정에 함께 서서 유격대시절을 추억하며 옛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잃었다.

혁명의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수십만리 길을 걸어온 이 로병의 심장은 지금 이룰할수 없는 비애와 고통에 눌리워 아팠다. ,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억세인 손이 자기의 생명이자 기쁨이고 희망이자 행복의 전체인 위대한 수령님과 남다른 친분관계에 장벽을 치는듯한, 그로 하여 자기의 삶은 가차없이 몽근히 타다 사라지는 재불처럼 스러지게 된다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바쳐 피와 땀을 뿌린 백두산, 추억도 많고 굵이굵이 눈물과 환희의 자취가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성함과 더불어 전설로 빛나는 그 성산에 장군님따라 싸운 자기가 수령님께서 오늘 이 산에 오를 때 떨어졌다는것이야말로 이즈음 젊은 사람들의 태도에서 간혹 느끼곤하는 《이젠 늙었으니 쉬십시오.》라는 사형선고 다름없는 암시에 대한 확증같이도 생각되었다.

늙어지면 노염이 많아진다고 내가 좁은 선입견으로 옥생각을 하는것이 아닌가. 최현은 이렇게도 생각을 뒤쳐봤으나 가슴에는 싸늘한 재가 들어찬듯하고 온몸의 피가 서서히 식어들며 외로움이 울고싶게 만들었다...

《그래 수령님께서 기분은 좋으셨겠지.》

짧은 순간이지만 최현의 가슴속에서 고래치는 복잡한 감정의 회류를 엿보며 송구히 서있던 장령은 그 물음에 더욱 활기를 띠었다.

《최현동지때문에 약간 언짢아 하셨습니다.》

《뭐라구?!》

최현의 눈썹이 꿈틀하며 찌를듯 일어서고 당황해진 두눈이 초점을 잃고 장령의 얼굴에서 헤엄쳤다.

장령은 이제 절망과 환희의 어느 한 극단으로 떨어질 최현의 심중을 엿보며 흥분을 애써 누잠히며 침착히 말했다.

《장군봉에 이르시었을 때였습니다. 안전최사슬을 늘이려고 박아놓은 말뚝앞에까지 이르신 수령님께서 내도산을 가리키시며 지난 기간 싸운이야기를 하시다가 문득 <왜 최현동무가 보이지 않소?> 하시는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현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숨까지 멈췄다. 얼굴은 희여지기도 붉어지기도 하였다.

《결에서들 말씀올리더군요. 편락이 미처 못된것 같다고.》

《편락조직을 안했지, 못한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라구.》

최현은 거칠게 말을 반고는 황황히 타는 눈길로 장령의 입을 지켰다.

장령은 미소를 머금고 또박또박 침착히 말했다.

《수령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없이 천지를 내려다보시다가 <최현동무가 없이야 백두산 불맛이 없지>라고 하시고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계셨습니다.》

《음!》

최현은 웅글은 신음소리를 터치였다.

목을 꺾은채 한동안 급한 호흡을 목새기던 그는 말을 매어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가 장령을 향해 고개를 돌린 그의 입에서는 거의 통명스럽다고 할 말소리가 튀어나왔다. 《왜 그러고있소? 빨리 가서 동무의 임무를 수행해야지.》

최현은 장령이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했으나 손을 흔들뿐이었다. 말갈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장령이 차에 오르는것을 보던 최현은 문득 장령의 이름을 부르며 호기어린 소리로 웨쳤다.

《내길 할가. 차가 빠른가 말이 빠른가.》

장령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최현은 히죽이 웃으며 《따라보라구.》하고 말잔등에 올라서는 말의 궁둥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갈기였다. 말은 네굽을 치며 내달았다. 발동을 건 차가 뒤따르자 최현은 절절 웃으며 더욱 기승스레 말을 쳐물았으나 얼마못가 차에 선고를 주고말았다.

차가 먼 등판의 숲속에 잠겨버렸을 때 최현은 말을 멈춰 세우고 헐썩거리며 숨을 토했다. 옆에 온 부관에게 머리를 저어보이고 《좀 쉬자구.》 하면서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린 그는 길녘의 숲으로 피곤한 다리를 무겁게 끌며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들쭉이 있겠는데-》 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걸던 최현은 커다란 봇나무앞에 이르자 아아하게 높이 치솟은 꼭대기를 한참이나 올려다보았다. 곁에 와선 부관이 의아스럽게 보자 최현은 웃음어린 눈길을 주었다.

《목이 마르지?... 칼을 좀 내라구.》

부관은 만약을 생각하여 가지고 왔던 손칼을 내밀었다.

최현은 그 칼로 봇나무의 밑둥에 T자를 새겼다.

그리고는 천진스런 어린애의 장난기어린 미소를 담고 나무를 보다가 하면 부관을 보기도 했다. 좁아터진 칼로 벤 자리가 축축히 젖어들더니 한방울 송진같은 물방울이 맺혔다. 최현은 랑패한 기색으로 머리를 저었다.

《지금 8 월이랄것 잊었군. 이른봄이라면 한모금 잘 추길 수액이 나오는데-》

하면서도 최현은 그 커져가는 물방울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드디어 물방울이 흔들흔들하다가 주르륵 흘러내리자 최현은 벌어진 꺾네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눌렀다.

그리고는 자기의 행동을 이상스럽게 지켜보는 부관에게 싱그레 웃어보이며 말을 이었다. ,

《옛날에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고 했는데 이 나무는 말이야, 칼을 대니 죽는줄 알고 맑은 눈물을 흘리거든.》

부관은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그 말뜻을 가늠하느라고 최현의 낯빛을 유심히 살폈다. 최현은 나무밑 등에 기대앉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뭘 별소리 아니야, 늙으면 이런저런 얼튼 생각이 많은 법이지.》

그리고는 사뭇 감개무량한 얼굴을 쳐들고 다리를 쭉 편채 숲에 가려 거울조각처럼 내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머리마저 나무에 기대채 눈을 감았다. 개미들이 손잔등에 기여오르자 싱그레 웃었다.?

《저... 제가 먼저 가서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왜?》

최현은 한쪽 눈만을 찌불써 뜨고 부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리해서요, 앓지 않겠습니까?》

《동무가 나보다 세다고 생각하나?》

《저야 젊지 않습니까?》

《허허-》

최현은 속궁근 웃음을 웃었다.

《동무까지 날 늙게기로 치부하는가... 안될 소리!》

최현은 느닷없이 말끝에 어성을 높이고는 입을 짹 악문채 숲의 한곳을 뚫어저러 쏘아보았다.

사실 최현은 며칠전 간부사업을 하는 한 일군과 불쾌한 담화를 하였다. 그 일군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일정한 주견을 세운 태도로 현재 나이에 맡겨진 사업이 힘부치지 않는가고 물었다. 년로한 간부들속에 도태가 이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최현은 그 일군에게 하등 화를 낼 근거가 없었던만 매우 무점없는 태도로 짹 잘라 말했다.

《나는 사복을 입고있지만 나서 죽을 때까지 군인이요. 이제라도 군복을 입고 다시 군단을 지휘할수도 있소.》

생각해보면 얼마나 피벽스러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였는가. 그러나 더 다른 말도 없지 않았는가.

늙으면 자리를 물려주는것이 법칙이란것을 안다.

모든 꽃은 과일이 될것을, 모든 밤은 아침이 될것을, 열매는 떨어져 땅에 묻힐것을 바라듯 시작이 있고 종점이 있는것이요, 영원이란 없는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야말로 훌륭한 출발과 행복한 결말로 한생을 달려온것으로 여한이 없다. 그의 혁명 1년은 보통사람들이 10년, 20년으로도 얻을수 없는 영광과 위훈으로 새겨졌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전호에서 일찍 떠나란 법은 없지 않은가. 팔다리에 아

직 힘이 있고 머리는 옛날처럼 예민하고 눈도 밝은데 어찌하여 수령님의 친위전사로서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한단말인가. 수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각도 자신을 잊지 않고계시는데-

최현은 가슴 답답하여 우쭐 일어났다.

《가기요.》

원시간은 15 분도 되나마나하였다.

이날 최현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 종일 근처의 적위대사격훈련장에 나가 있었다.

실탄사격을 보다 말고 직접 자동보총을 가지고

200 메터 거리의 구보형목표를 런발로 사격하기도하였다. 30 발에서 두방만이 빗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귀신같은 사격술에 혀를 두를 때 최현은 진정으로 수치를 느끼며 피롭게 되었다.

《이젠 늙긴 늙었군.》

옆에 서있던 열두발에서 네발밖에 맞히지 못한 젊은 적위대원은 이 로투사의 평범하게 울리는 말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담겨있는가를 물었다.

이날밤 최현은 일찍 누웠으나 잠들지 못했다. 홍범도의 청산리전투에 소년전령으로 뛰어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복잡다단한 한생이 화면처럼 눈앞에 흘러갔다.

맥박이 높아지면서 심장이 흉벽을 쿵쿵 울리고 눈곱으로는 뜨거운것이 자꾸 땀 허올랐다.

이런 기본상태는 좀해 없었다. 《민생단》에 몰린지 얼마뒤 열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피창밖에서 울려오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러움과 반가움에 목메여 마초로 몽그린 베개에 머리를 묻고 눈물을 쏟던 때의 심정이였다.

자기는 한생을 장군님을 위하여 바쳐 싸우노라고 했지만 받아안은 사랑에는 다 보답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세상은 자기같은 늙은이는 수령님 곁에 없어도 된다고 믿는것 같다. 다만 수령님께서만이 이 최현이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중히 품어주신다. 높이신 의리, 고귀한 덕으로 하여 따뜻한 추억속에 품어 관심하고 사랑하시는것이다.

그렇다. 이젠 내가 뒤자리에 물러설 때다. 하나그 최종시간이 오기전까지 나는 더 일을 해야겠다. 번거롭고 흥분된 생각에 잠못이루게 된 최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크지 않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다. 군복을 벗은 이후부터 틈마다 기억을 더듬어 적군 하던 전투경험 비망록이였다. 폐지마다글자란 별로 없고 산과 강따위의 그림과 부호표식들로 가득찬 수첩이였다. 마디 굵은 손에 연필을 쥔 그는 등고선이 복잡한 산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적의 참호를 한창 표식할 때 무슨 소리인가 들렸다. 처음에 그는 바람소리를 착각하였다가 고개를 들고 그 소리의 출처를 알려고 방안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전화기

에 시선이 몇자 혹시나 하여 송수화기를 들어보았다.

《정-》 하는 전류 흐르는 소리가 났다.
(헛들었군.)

딱 송수화기를 놓으려는데 애된 처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진동판을 울렸다.

《최현동지이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뭐라구? 정신있어?! 무슨 호출을 그렇게 해.》

《최현동지, 수령님께서는 딱 한번만 신호를 짧게 울리라고 해서-》

《으음.》

최현은 대뜸 목이 껍 막히며 마치 상대가 애된 교환수가 아니라 그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존재라도 되는듯 거의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대주오. 처녀동무, 응.》

그가 급한 호흡을 채 진정시키기도전에 우렁우렁한 음성이 고막을 짹 채웠다.

《최현동무요?》

《최현이 전화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화기에서는 잠시 정-하는 전류 흐르는 소리만 들리다가 폭 같았던 근심어린 음성이 무겁게 들려왔다.

《난 그래도 동무가 잠들어서 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했는데-왜 아직 자지 않고있습니까.》

벽시계를 보았다. 1 시 30 분이다.

《앉습니다. 아니 저... 자다가 방금전에 깨었습니다.》

최현의 얼굴에는 서툰 거짓말을 할 때의 어린애 같은 미소가 흘렀다.

《자단말이지요?》

이 순간 최현은 빙그레 웃으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뵈옵는것만 같아 자기 역시 싱그레 웃었다. 그런데 음성이 커지고 엄해지셨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잠 깨었을 때의 동무 목소리를 내가 모를줄 압니까.》

《수령님, 두루 잠이 오지 않아서-》

《무슨 생각때문에 못잡니까?》

최현은 등줄기에 땀발이 서는것을 의식했다. 말을 할수가 없었다. 입만 벌리면 울음이 터져나올것 같은 심정이였다.

문득 수령님의 음성이 낮아지며 탁하게 울리였다.
《최현동무답지 않습니다. 동무가 자지 못하면...》

말씀이 끊어지셨다.

최현은 무엇인가 탁 밀치운 사람처럼 몸을 흠뻑했다. 목이 짹 잠겨들고 숨이 가빠올랐다. 벽시계가 흐릿하게 멀어진다. 밤 1 시 30 분이라는 수자가 떨어지고있다.

《자시오. 그리고 래일아침 특별한 사업조직이 없다면 나에게 오시오. 올 때 군복을 입고 오시오. 군복은 가지고 다니겠지요?》

《네 ...》

《그럼 래일 만납시다. 그런데 자지 않고서는 생각을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최현은 두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동안 굳어져있었다. 《수령님!》 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새어나오고 붉어진 눈시울미에서 고드름처럼 맺혔던 눈물방울이 지도우에 툭 떨어지였다.

×

백두고원의 일기는 변덕스럽다..

새벽부터 비꼬치가 떨어지며 광풍이 일더니 아침은 마치 일식때처럼 어두워지고 해는 짙은 구름장 속에서 솟을념을 못했다. 비가 좀줄해 이제 개이는 가부다 하면 다시금 우-하는 소리와 함께 수림을 뒤집을듯하며 질풍이 들이닥쳐 한바탕 역수를 퍼붓고는 그 광란이 멎적은듯 잠시 조용해진다.

최현이 탄 차가 삼지연못가를 에돌 때 비발은 더욱 사나와졌다.

운전수는 최현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차를 수령님 계신 객실에서 30 여미터 떨어진곳에 세우고 최현이 뛰다싶이 달려가 현관정문에 이르렀을 때 벌써 얼굴엔 비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최현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마중나온 전날 만났던 장령에게 은근히 물었다.

《무슨 일로 찾으셨는지 모르겠나?》

《이제 들어가시면 압니다.》

장령은 어딘가 심상치 않은 근심에 사로잡힌 얼굴이였다.

최현은 어느때없이 딱딱하고 불친절하기까지 한 그의 태도에 야릇한 불안과 초조를 느끼며 뒤따라 들어갔다.

그가 이끄는대로 원손권의 응접실에 들어선 최현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치의사가 있는것을 보고 속이 섬찝했다. 간부사업담당 일군과의 담화가 있는후부터 잔뜩 신경이 날카로와진 최현은 분명 누군가가 자기의 로쇠를 과장하여 보고드림으로써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것이라고 넘겨짚었다.

아닐세라 의사는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식대로 식사는 제대로 했는가, 잠은 잘 드는가 하고 묻다가 《혈압을 재야겠습니다.》 하며 원탁우에 놓인 혈압계 뚜껑을 열어젖혔었다.

최현은 터져오르는 불만을 꼭 누르고 장령을 쳐다보았다.

《수령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서 재야겠습니까.》

《재야지. 한데 어느놈이 나를 약골로 보고했나?》

그 찌렁한 음성에 청진기를 목에 걸던 의사는 흠칫하며 굳어졌고 유격대시설의 옛상관의 성미를 잘 아는 장령도 어리벉벉해 어색한 웃음을 지을뿐이었다.

《약골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소.》

우렁우렁한 명쾌한 음성이 긴장된 방안의 공기를 탁 날려버렸다.

그 누구보다 놀라며 고개를 돌린 최현은 문가에 나타나신 승마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보자 흐렸던 얼굴이 활짝 밝아지며 힘있게 거수 경례를 하였다.

《수령님, 최현 명령대로 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아무 동작 없이 서계셨다. 애뜻한 정이 담긴 부드러운 눈길은 최현의 전체를 품고 애무하려는 듯 따뜻이 빛났다.

《좋습니다. 군복을 입으니 더욱 젊어보이고-》

수령님께서는 재빠르신 동작으로 다가가 최현의 손을 잡아내리우며 어깨를 쓸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최현의 붉게 핀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시다가 물으시었다.

《잠을 잘 잤습니까?》

《잘 잤습니다.》

《잘 잤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몹시 기분이 상했는지요?》

《원, 아니 무슨 말씀을... 조금은... 그러나 이젠 일없습니다.》

최현은 허둥허둥 말을 얼버무렸으나 두눈은 비썬 뒤의 하늘처럼 맑고 황홀할 정도의 행복감에 취해 번쩍었다.

수령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었다.

《그럼 혈압을 재어봅시다.》

최현은 당황해서 수령님을 쳐다보았다. 구원을 청하는 눈길로 의사를 보기도 하였다.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러다가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소매를 접지 않고 당기는바람에 팔굽까지도 못올라갔다.

《덤비는군. 그러면 혈압이 더 오릅니다.》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최현의 얼굴이 빨갛게 질려 소매를 취올리는것을 보다 말고 손수 그 팔을 잡으시여 팔소매를 다시 접어 끌어올리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의사가 최현의 팔에 혈압계를 감고 바람주머니를 누르는 매개 동작을 유심히 살피시다가 혈압계의 수은주가 오르자 긴장된 시선으로 지켜보시었다.

최현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을 때처럼 그쪽은 보지 않고 이마살을 찌프린채 입을 악물고있었다.

《일없구만, 그렇지?》

수령님께서 기쁘신 음성으로 의사를 향해 물으시는것을 듣고서야 최현은 밝은 얼굴로 혈압계와 의사를 동시에 쳐다보았다.

그런데 알뜰게도 의사는 《수령님, 한번 더 재봐야겠습니까.》 하며 또다시 바람주머니를 풀썩거리였고 마치 최현의 병을 알아내어 보고드리는것이 제일 큰 소망이런듯 혈압계의 수은주를 열심히 쳐다보는것이였다.

최현은 속이 불끈거렸으나 이런 때 신경을 쓰면 혈압이 오른다는것을 상기하며 눈을 내리칸채 꼭 참았다.

팔을 죄이던것이 스르르 풀렸다.

그때까지 허리를 약간 구부리시고 혈압계의 수은주를 눈여겨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초조하신 안색으로 의사의 입을 지켜보시었다.

의사는 정중한 자세로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처럼 보고드렸다.

《일없습니다. 수령님 90-140 은 최현동지에게 정상입니다.》

《좋구만. 난 선생이 다시 보는바람에 가슴이 다 섬찝했소.》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얼굴이 불그레해진 최현에게 기쁜 미소가 담긴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렇습니다. 전 건강체인걸요.》

최현이 막혔던 숨은 뿜으며 온 얼굴이 웃음꽃으로 환히 피자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하신 빛으로 장령을 찾으시었다.

《떠날 준비를 하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올리는 장령의 얼굴에는 역시 좀전과 같은 시름어린 빛이 감돌았다.

수령님께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는 최현이를 이끄시고 바깥현관으로 나서시었다.

누기찬 바람이 확 안겨들었다.

검은 구름장들이 엉켜선 수림우 뽕안 비안개에 휩싸인 백두산의 거뭇한 웅자가 한눈에 보이는 현관계단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발치아래 쏟아지는 락수물을 보시다가 최현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어떻습니까? 멋진 날씨지요.》

좌-수림우로 비발을 휘뿌리며 산바람이 거세게 지나갔다.

최현은 의문시린 눈길로 수령님을 쳐다보았다. 수령님께서는 매우 유쾌한 미소를 머금으며 계속하시었다.

《난 오늘 오전은 최현동무와 함께 휴식하려고 합니다.》

《... ?!》

《우리 둘이서 백두산에 오르자는것입니다. 옛날의 유격대 사령관과 사단장으로... 가서 옛싸움터들을 보며 옛말도하고 피곤도 풀시다. 어저께 동무가 없어 싱거웠습니다. 동무의 혈압을 쟈것은 이때문입니다. 재지 않고 올라가면 의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최현의 눈엔 몽롱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는 일체 감각도 사고도 잃어버린 사람같았다. 입술이 그리고 눈시울만이 푸들푸들 떨었다.

수령님께서는 감격에 휩싸여 굳어진 최현이를 넘치는 정과 사랑에 가득찬 눈길로 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날씨는 사실 썩 신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릴수 없습니다. 난 어저께 최현동무가 없는것으로 하여 속이 좋지 않았습다. 최현동무 역시 그랬을것입니다. 나는 오늘 날씨는 신통치 않지만 이 길이 우리의 아픈 마음은 가서주리라 생각합니다.》

순간 최현은 몸을 떨었다.

바람소리, 비소리... 지금쯤 백두산에서는 광풍이 일어 눈과 돌이 날리고 천지가 뒤번져질것이다.

최현의 일곱색은 점차 비참하게 흐려지고 눈길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장령의 얼굴에 비긴 수심과 걱정정 의 원인도 이제야 알았다.

최현은 두손을 맞잡고 비틀었다.

《수령님, 제가 로망했었습니다. 제가, 아...저야 항상 수령님과 함께 산 사람인데...》

최현의 음성은 갈리고 미구에 격렬한 부르짖음으로, 열띤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이 험한 날씨에 저때문에, 이 날씨에 저때문에 백두산에 오르신다면, 수령님 앞에 인민앞에 이 최현이가 무슨 낫을 들 면목이 있습니까.》

최현은 그대로 쓰러질것만 같았다. 후들후들 떠는 그의 손을 수령님께서 꼭 잡아주시였다.

《최현동무, 내가 동무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고싶어 그러오. 동무와 함께 다시 젊은 시절로 유격대시절로 가보자는것이요.》

《수령님.》

세상은 이 최현을 무서운 싸움군, 격전의 용장으로만 알고있지 얼마나 사랑에 주리고 정을 갈망하는지 다는 모른다.

일찍 부모를 잃고 소년의 몸에 룡혈포를 차고 피투성이 싸움판에 뛰여든 그는 그 용맹과 슬기로 일찍부터 지휘관이 되였다.

하여 그는 젊어서부터 옷사람으로 받들리였지 내리사랑이라는것을 받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그를 존경하였으나 한편 어려워했다.

대원들의 동지적사랑은 있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다.

사람에겐 한생에 줘야 될 사랑과 받아야 될 사랑의 한도량이 있다. 최현은 항상 육친의,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다.

사랑에 주려 황량한 마음의 광야에 첫 해별이 쏠아진것은 1933 년 소왕청 마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만나뵈은 때부터였다. 첫 상봉에서부터 최현은 이상스러운 인력에 끌려 수령님께 매혹되었고 수령님의 미소, 음성, 그 말끝속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랑의 샘을 찾았다. 하여 그때로부터 이제 반백이 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까지 수령님을 못내 그리였고 수령님 앞에 서면 먼 옛날의 어렵פות한 기억속의 소년으로 돌아가 어린애로, 건주정하는 로인으로 되여 그 무궁한 사랑의 별에 취해 행복의 국경에서보기도 하는것이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수령님께서는 거칠고 파격한것의 외피속에 숨겨진 최현의 성실과 정직, 참되고 깨끗한 마음을 아끼시였으며 그에 그늘이 질세라 돌보고 아껴주시였다.

그이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한 열과 밝은 빛을 가지고 이 충직한 로투사의 주위에서 땀돌았고 투사의 정신과 마음이 영원한 청춘과 활력속에 기쁨만이 충만하기를 바랐다.

차는 백두산 종말기 조금 더 올라가 멈춰섰다. 그 이상은 아직 길이 채 안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코트를 걸치신채 바람이 지동치는 밖으로 나오시였다. 코트자락이 기폭처럼 날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모자를 깊숙이 내리쓰시고 쥐면 잡힐듯이 진한 검회색 비구름이 모였다가는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모이는 컴컴한 산정을 한동안 깊은 명상속에 바라보시다가 옆에 와 송구히 선 최현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최현동무,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우리의 반생은 이런 비바람속을 헤쳐온 길이 아닙니까. 남들은 이런 날의 등산에 진미를 모를수도 있으나 동무와 나에게는 이런 날이 좋습니다.》

수령님의 거연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최현의 얼굴에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것이 가득 덮였다.

《그런데 수령님, 풍세가 너무 사납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수령님, 옛날과는 다릅니다. 이젠 년세도.》

《히, 최현동무가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동문 늙었다고 하면 젊다고 하면서 나보고 년세타령을 하면 어쩍니까. 나도 젊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면 오히려 동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는 호탕히 웃으시고 면구해하는 최현의 어깨를 가볍게 다치시였다.

《최현동무가 겁을 먹은건 아닙니까?》

《원 별말씀을, 수령님, 제사 겁내는것이 있습니까.》

《암, 그래야지요. 그렇다면 갑시다.》

수령님께서 최현과 무산지구전투며 보천보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며 장군봉에 이르시였을때 갑자기 까맣게 흐렸던 하늘이 씻은듯 개이였다. 바람은 분화구의 안개를 어디론가 날라갔다. 노란 만병초며 분홍바늘꽃따위의 백두산식물들이 또렷 또렷 모습을 드러냈다.

최현은 너무나 놀랍고도 반가운 이 자연의 조화에 얼떨떨해졌다.

수령님께서 젊은 호위병들이 앞질러 달려올라가 만세를 부르는것을 유심히 보시다가 최현에게 웃음어린 눈길을 돌리시였다.

《어떻습니까. 난 오늘 날씨가 이럴줄로 믿었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여기가 활짝 개여있는줄은 모를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진 날씨에 최현동무가 백두산에 올랐다는것을 알면 깜짝 놀랄것입니다. 정말 날씨로 봐도 최현동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현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의 눈에는 검붉은 백두산 부석흙이 그리고 깃을 모를 파란 천지의 호심이 안겨들었다.

문득 이 백두산을 우러러보며 싸우던 날들이,

김일성 동지를 받들어 싸우는 혁명의 한길에서 일편단심 변함없자 맹세다졌던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히 눈앞에 실려왔다.

천지의 교묘한 수면우에 그들의 모습이 비껴올랐다.

최현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 제가 너무 혼자 복을 받습니다. 오중흙이, 최춘국이, 김책, 강건 다 중도에 갔는데 나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그 동무들이 받아야 할 장군님 사랑까지 다 독차지하고있습니다.》

최현의 목소리는 떨리였고 불의 근육이 움찔거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아픈 구석을 다치우신듯 안색을 흐리셨다. 그이께서는 검은 구름장을 뚫고 쏟아지는 해발에 우중충히 드러난 먼 북쪽의 산발들을 침중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이름없는 골짜기와 산중에 묻힌 옛전우들의 모습을 그 산발에서 찾아보시려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길게 숨을 들이그으시고 침중한 빛이 채 가지지 않은 눈길로 최현을 보시였다.

《그렇소. 거의 다 가버렸소.》

최현은 그 비통하신 어조에 흠칫했다. 그이의 가슴속에 항시 고여있는 전우들의 희생에 대한 아픈 비애를 덧뜨려드렸다는 죄스런 감정이 채찍처럼 후려쳤다. 최현은 수령님의 흐리신 안색을 더보기 어려워 눈을 내리깔았다. 파아란 천지의 호심에 시선

이 가닿자 몽글하고 가슴뜨거운 걱정이 이상스런 흥분으로 그를 충동했다.

《수령님!》

어찌보면 어리광 섞인듯한 음성으로 찾았다. 수령님께서 축축히 젖으신 눈길로 돌아보실 때 최현은 뜨거워오르는 눈을 섬벅거리면서 어린애처럼 천진스런 미소를 담고 말씀올렸다.

《전 지금 천지에 뛰어들고싶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안색에 어린 비감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직이 물으시였다. 최현은 싱긋 웃었다.

《옛말에 무슨 혼백이라던가 신령에 대한 얘기가 있잖습니까. 전 정말 그런것이 있어서 여기에 신령으로 남아있으면 합니다. 저야 이제 무얼 더하겠습니까. 이 산의 신령이 되어 늘 수령님을 뵈옵고 위한다면 더 바랄게 뭐있겠습니까.》

최현으로서는 좀해 하지 않는 룡담이었다.

《신령이라?!...》

수령님께서서는 나직이 한마디 뇌이시며 눈물이 맺힌 최현의 불그레한 눈시울을 보시다가 급급히 외면하시고 먼 남쪽에 시선을 주시였다. 안개의 바다 위에 도드라진 섬같은 산봉우리들이 련이어 남으로 남으로 흘렀다. 남으로 뻗은 조선의 지맥은 이 백두산에서 뿌리뻗은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딘가 비분에 찬 표정으로 그 망망한 안개의 바다를, 그밑에 깔려흐르는 산줄기를 보시다가 최현에게 고개를 돌리시였다. 련련한 정이 굽이치는 안광에는 심각하면서도 절절한 호소와 꾸중의 빛이 평갯거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약간 갈린 음성으로 말씀을 터치시였다.

《최현동무! 어저께 나는 바로 여기서 동무를 찾았습니다. 그때 동무가 늙었다고, 늙었기때문에 백두산에 오르지 못할것이라고 여겨 알리지조차 않았다는것을 들었을 때 나는 몹시 섭섭했습니다. 아니 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찌 그럴수 있는가고, 사람을 볼줄 모른다고... 그래서 난 동무가 늙지 않았다는것을 보이자고 그리고 최현동무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험한 길이건 좋은 길이건 함께 걷는다는것을 세상에 알리자고 오늘 또 백두산에 오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보니 늙었습니다. 마음이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동무가 벌써 림종직전에 이른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보시오. 우리는 아직 통일도 못하고있는데... 오중흙이, 최춘국이... 그 먼저 간 동무들의 부락을 절반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있는데 동문 늙은이의 세계에도 도피해가려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행동하는 최현이 아니라 마음만 고이는 최현이가 되겠다는것이지요. 동무의 정신에도 늙음이 찾아올수 있습니다.》

《수령님!》

최현은 울먹거리며 웨쳤다. 그의 눈은 마치 20 대의 젊음이 되돌아온듯 생기롭게 비상히 반짝였다. 행복과 환희가 피로움과 뒤섞여 최현의 온 가슴에 폭풍을 일으켰다. 최현은 흥분으로 팔다리가 떨리는것을 간신히 억제하며 눈물에 목매어 뿔어내듯 말씀올렸다.

《수령님, 최현이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아니, 몸도 늙지 않습니다. 전 수령님께서 요구만 하시면 지금 소대를 데리고 돌격전에 나설수도 있습니다. 금사냥도 할수 있습니다. 기마경기도 나갈수 있고...》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가슴을 마구 쥐여 뜯을듯 안타까움에 차 모지름쓰는 최현을 아프신 눈길로 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최현의 손을 꼭 잡아 약간 끄당겨올리시였다. 그리고 그 손을 따뜻이 쓰다듬어보시며 물으시였다.

《어저께 젊은 동무들앞에서 시범사격을 하였습니다지요?》

《네, 시원친 않았습시다.》

《여전한 솜씨였다군. 나는 최현동무가 어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범으로써 우리 혁명의 2 세 3 세들을 억척같은 혁명가로 키우는 혁명의 로선배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전부터 생각한것이지만 나는 동무가 인민무력사업전반을 책임졌으면 합니다.》

《네?》

최현은 놀란 나머지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제가 어떻게... 전...현대군사 과학과 이론에 밝지 못합니다. 그거야 수령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사 과학과 이론으로는 우리의 모든 군사간부들이 잘 준비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군사학은 책상에서 배우지만 동무의 정신과 담력, 전쟁경험은 수십년의 혈전속에서 얻어진것입니다. 그 정신은 쉽게 배우고 또 배우주고 넘길수 있는 물건같은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쓰러지지 않는것, 변심을 모르는것 이것은 동무의 가장 큰 재산이자 우리가 넘겨줘야 할 귀중한 정신적재부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심각한 기색으로 말씀하시고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시는듯 눈귀를 쪼프리고 계시다가 조용히 계속하셨다.

《동무는 소왕정 마촌에서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일본놈들을 없애기전에는 죽지 않아야겠다고 하면서 그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그 유언을 생각하면 총권 손에 더 힘이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옳은말, 옳은 정신은 그렇게 이어지는것이지요...그후 미혼진밀영에서 <민생단>협약에 걸렸다가 나를 만났을 때 동무는 나에게 뭐라고 하였겠습니까.》

수령님의 말씀은 약간 떨리시였다. 빛나는 안광에는 질은 감회와 흥분이 파동치고있었다. 최현은 눈물이 펴고인 눈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돌개물속에 자신을 잊고 그때로 돌아간듯 띠엎띠엎 그 불같은 맹세의 말을뇌였다.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따라...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지요, 수령님! 제가 그걸 왜 잊겠습니까!》

최현은 대범히, 밝게 웃어보인다는것이 비참할 정도로 얼굴을 찡그리였을뿐이다. 그 주름가득한 얼굴, 주름마다에 고여 떠는 물방울, 관자노리에 허영게 불린 머리칼... 세월의 팽담한 흐름이 인찍은 자취에 수령님의 시선이 멎었다. 눈시울이 알릴듯 말듯 떨었으나 인츰 수령님께서서는 굳세인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리고 입가에 더없이 밝고 따사로운 미소를 그리시며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최현동무는 그 맹세와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혁명을 위한 이 길에서 나와 동무는 영원히 뗄수 없는 의리와 우정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함께 이리로 오른것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서는 감회어린 눈길로 어깨를 떠는 최현을, 하늘과 맞붙은 산발을 바라보시였다.

백두산은 높다, 하여 조선의 메부리라고 한다. 최현의 한생은 혁명의 아스라한 산봉, 이 절정을 향한 강행군이였다. 수령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다. 맨 앞장에서 빛을 뿌리시며 전사들의 걸음이 한발자국도 뒤질세라 비뚤어질세라 이끄시고 부축하시고 떠미시며 승리의 절정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손을 최현의 어깨에 얹으시고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최현동무, 정말 늙지 말아야겠소. 동무가 보다 혁명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한다면 늙음을 잊어야 되오.》

더 높이, 더 앞으로, 오늘날 아니라 먼 래일까지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는 찬연한 후광이 최현의 온몸을 감쌌다.

최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길게 뻗친 눈섭오리들이 떨었다.

《수령님! 제... 더는 늙지 않겠습니다.》

이때로부터 18 년후. 인민무력발전예 커다란 공현을 한 최현대장은 국방전초선의 거대한 성벽이 되어 생을 마쳤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 기억이 사람들 머리에서 점차 사라지던 어느날 고인의 집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 사진앞에 근 30 분동안 말없이 앉아계셨다.

백두산에 오르셨을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최현의 어깨를 안으시고, 최현은 수령님의 허리를 누가 뻘세라 꼭 부여안고 환히 웃는 사진이였다.

마치 생의 영원성의 의미를 말하는듯한 영원한 웃음, 영원한 포옹의 예술사진같았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훈

1

춤추듯 너울대는 쇠물빛 화광이
넌지시 창가를 들여다보고
속깊은 전기로의 동음에
칼도마의 장단소리 어울려 좋은
여기는 현장 영양제식당-

한가마 익은 쇠물 후련히 쏟고나면
용해공들 유쾌히 떠들며 들어서는곳
익살긋은 웃음이 배이고배여
등그런 상이며 식초병들이
웃는듯 알른알른 윤이 나는
여기는 현장 영양제식당-

쇠물이 마구 사품쳐끓는
전기로를 말아선 용해공의 기쁨과
커다란 냄밥가마 손쉽게 다루는
료리사의 기쁨은 다들바없다

용해공들 모여서 시료를 뜸 때면
여기서도 그때쯤은 국맛을 보고
출강종 땡땡 시간을 앞질러
무쇠지붕너머로 울려올 때면
여기라고 뒤지랴 분주한 칼도마소리...

이런 때면 의례 나이 많은축들이
로를 말아 이 시간을 양보하는 법
유쾌히 떠들며 먼저 식당문 여는건
언제나 젊은패들-

수고 많은 이곳 녀인들을 찾아
누구나 인사하고 물어보라
여기서도 용해장 쇠물형편 속속들이 안다
이 시각 떠들썩 웃음판 터지면
그때면 배식원들의 손도 커야 하거니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바깥에는
정말이지 이곳 녀인들 수고도 많다
식성좋은 젊은패들이건만
좋아하는 음식은 서로 다르기에...
허나 오늘은 기다려온 4월 15일

충성의 쇠물을 쏟아부은 점심참
가슴마다 명절의 기쁨은 커도
어이하랴 환절기면 밥맛을 잃는
용해공의 식성-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는
젊은 락천가들
작업복 앞자락을 웃음으로 날리며
분주히 식당문을 연다

순간...
휘둥그레 눈들이 커진다
누군가는 벌써 환성을 올린다
반죽좋은 한 친구 꿀꺽 침을 삼키며
《아니 우리가 옥류관에 온게 아닌가?!》

빨간 생화가 꽃힌
등그런 식탁우엔
갖가지 기름튀기며 나물들
보기만 해도 시원한 국수그릇들

그리고 저것 보라
금방 꼬리칠듯싶은 큼직한 송어가
하얀 접시우에
파란 쪽갓잎을 물고 누워있으니

가슴에 흥분의 물결이 일면
터놓지 않고는 안달이 나는
용해공들의 성미-
떠들썩 칭찬하며 어서 나오란다
오늘 어느 아주머니의 솜씨인가고
한턱 냈으니 큰절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자 문열고 들어오는 이는
하얀 요리복을 입은 처음 보는 아바이
혈색좋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앞치마에 두손 마주 쥐고 인사를 한다
평양에서 온 요리사라고

평양에서 내려온 요리사라고

온 나라에 첫째가는 요리사라고
누군가 의아한 친구들을 향해
장하게 손저어 선포를 한다

그러자 터져오르는 박수
식당을 들었다놓는 기쁨의 합성
저마다 앞다투어 앞다투어
풍채 좋은 요리사에게 다가간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참 솜씨가 대단하군요.
-여기서 함께 삽시다.

박수, 웃음, 익살...
끝없이 터져오르는 환호에
요리사의 마음도
그들과 함께 뭉뚱-

이때!
높아가는 목소리들을 누르며
절절히 울리는 말소리
이미 요리사와 안면이 있는
로장아바이의 가슴치는 소리

《요리사동무!
무슨 실수를 이렇게 했나.
오늘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이 아닌가.
오늘은 나라의 1 등가는 요리사가
수령님의 진지상을 차려올려야지.
그게 자네와 우리 인민의 도리가 아닌가!》

기쁨과 간절한 눈길이
동지의 아픈 질책의 눈길이
서로 엇갈리며 맞부딪치는
가슴 열열한
이 침묵의 시각-

그만 로장의 손을 잡고
요리사 박아바이
목메여 터놓는다
《이야기하자구.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그 사연을...》

2

휘우듬히 뻗은 모란봉 언덕길을

저물녘 해빛 안고 승용차는 달려라
차창에 스치는 가로수 꽃향기
시원한 바람결에 흘러들어라

이렇게 좋은 저녁
차창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아
기쁨에 실눈지은 요리사 박아바이
어버이수령님 댁으로 간다

그래, 그래 래일은
4 월이라 열닷새
기다리고 기다려온 수령님 탄생일
아무렴 생신상을 차려야 하구말구

언제나 품어오던 간절한 생각
오늘은 평생소원 풀게 됐으니.
이봐라, 모란봉아 키를 낮춰라
박아바이 가슴속엔 벌써 기쁨의 칼도마소리...

그의 결엔
깨끗하니 다듬어 싸놓은 통 하나
그속에 출렁출렁 소리도 좋다
대동강의 이름난 승어가
보기 좋게 드러누워 꼬리를 친다

출렁출렁 정말이지 소리도 좋다
상자속엔 듣기 좋은 승어 뽕소리
가슴에도 기쁨의 승어 뽕소리
아바이의 생각은 그날에도 간다

례사로운 나날에 문득 기쁨이 문두드리는
그렇게 좋은 시월인줄을
우리모두 다 알고 살아간다만
요리사는 정말 이 소식엔 놀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였다고
소문도 없이
손님들의 음식상을 돌아보시며
요리사를 부르신다고...

하얀 위생복에 손만 비비며...
당황해 쏘는 그의 손 잡아주시며
자애롭게 웃으시며 하시던 말씀
《요리사동무, 솜씨가 대단하오.
승어요리가 보기만 해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밀림에서도

대동강승어이야기를 자주 했소.》

얼마나 친근하게 말씀하시는지
조여들던 마음도 어느새 풀려
허물없이 간절한 청을 올리는데
가슴뜨거이 올리시던 그이의 말씀

《고맙소. 고맙소.
허나 오늘은 바빠 그러니
후에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한해가 지나도 오시지 않아
해를 두고 안고살던 그날의 약속

옥류교너머 두둥실 아침해 솟으면
마음속에 해빛 안고 오시는 영상
대동강 물결위에 저녁노을 비끼면
마음속에 노을밟고 오시는 영상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간절해
창을 열고 기다리는 마음이온데
언제나 그 언제나
가시는 길 찾으신곳은
먼 북방지구 공강구내길
새움트는 산간마을 비내리는 두령길 ...

향긋한 꽃향기 차창에 날아든다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오른다
정녕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오늘 이렇게 왔단말인가

이런 때면 정깊은 로친의 손을 잡고
이 사연 전하고싶고
저 멀리 북방의 철의 도시 만이에게도
이 영광 전하고도 싶고

아, 기쁨은 이슬되어 두볼을 적시나니
꿈이면 깨어나지 말아다오
생시이면 어서빨리 가닿아다오
간다, 료리사 박아바이
어버이수령님 댁으로 간다

3

누구나 말해보라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정히 안고 사는 마음속에

그 어떤 소원이 차있는가를

나는 안다 가장 행복한 시각이라면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심장으로 빚어낸 창조물을
수령님 기쁘게 보아주시는 그때임을!

나처럼 글쓰는 사람이면
수령님께서 내 쓴 글 읽어주시는 때이고
농장벌의 꿈많은 처녀에겐
제 가꾼 황금벼이삭을
수령님께서 손수 만져보시는 때이리

그처럼 우리의 료리사예겐
자신의 정성을 고이고고인
큰상을 수령님께 드리는
그 하나의 소원이 있었으니

물론 그것은
더 말할것 없는 기쁨이며 행복!
그러나 조심히
마음의 문들을 열어보면
거기엔 또하나의 기쁨이 있다

그것은
아버이수령님 만나뵈옵는것
아, 좋은 날 아침
아버이수령님 자애의 품속에
가까이 가까이 안기는것

우리의 료리사는 바로 이 시각
그 기쁨을 다 안았다
오는 길에서도 이것만은 바라지 못했던 일
아버이수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었다

만면에 웃음담아
자리를 권하시는
아버이수령님 서계신 탁자앞엔
빨강게 달아오른 곤로 하나 -
그우엔 김 오르는 우유차관...

따뜻이 무릎 마주해주시며
조용히 하시는 말씀
《료리사동무,
그날의 약속을 못지켜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오.
 내가 강선동무들에게 젖소를 보내주었는데
 용해공동무들이 찬것을 좋아한다고
 얼음과자를 만들어 공급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엔 단 몸에 찬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따끈한 우유가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가루며 소금 얼마를 두고
 손수 이렇게 끓여보셨다고
 마셔보니 팬찮은것 같긴 하지만
 내가 어디 아는가고
 시험치는셈치고 한번 마셔보라고...

손수 따라주시는
 김 오르는 우유고뿌 -
 짹 두손에 받쳐들고
 울컥 목이 메는 료리사

두볼을 적시며
 뜨거운 이슬이 흘러내려라
 몇번이고 권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가슴에 뜨겁게 흘러드는
 우유 한모금...
 눈물 한모금...

《수령님, 맛이 좋습니다.》
 용해공동무들이 좋아할것 같다면
 마음이 좀 놓인다 하시며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천천히 정원으로 나오시던 수령님
 어딘가 멀리-
 질어오는 노을빛을 바라보셔야

《료리사동무!
 그 동무들이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면
 입맛을 잃군합니다.
 동무가 강선에 내려가서
 용해공동무들의 입맛을 돋궂주고 오시오.》

한생을 두고 고스란히
 자식의 입맛을 맞춰사는 어머니도
 이것만은 다 모르리

아, 온 나라를 돌보시는 수령님께서
 용해공들의 입맛 잃는 계절까지
 이렇게 헤아려주시다니...

넘치는 정 어쩔수 없어
 그만 가슴터놓는 료리사의 마음

《수령님!
 한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래일아침 단 한번만이라도
 료리사의 적은 성의나마 바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평생소원입니다.
 그날의 그 말씀 잊지 못해
 이렇게 대동강승어를 가져왔습니다.》

한동안 말 없으시며
 천천히 정원길을 거니시던 수령님
 뜨겁게 올리시는 말씀
 《고맙소. 고맙소.
 하지만 우리 로동계급들이 밥을 달게 먹어야
 나도 입맛이 좋습니다.
 이 승어도 가지고 가시오.
 어서 강선으로 떠나시오.》

눈물에 젖어
 눈물에 젖어
 수령님께 큰절을 올리고
 료리사는 차에 올라
 강선으로 떠났어라

노을이 불타는 정원길
 설레는 백양나무아래
 우리 수령님 서계시였네
 오래도록 손들어 바래워주시였네

4

료리사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났는가
 눈물에 목이 메어
 더 잊지 못하는것인가

은은히 울려오는 전기로의 동음은
 가만히 마음속 뿌리를 흔들다가도
 못참겠다는듯
 끝내 흐느껴울듯
 목메인 천둥소리 되어 울리고

그담엔 또다시
 침묵... 침묵...

용해공들의 적동색 얼굴마다엔
소리없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료리사는 말한다

《그날

아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정원길을 걸으시며

이렇게 물으시었습니다.

<동무는 강선에 가본적이 있소?>

<수령님,

한달전에 저의 친구를 찾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갓 피어나 백양나무 잎새를 어루만지시며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었습니다.

《그렇소?

그래 강선에서 무얼 보았습니까?》

<수령님, 공장구내 어디 가나

강피며 강편이 그득그득 쌓여있었습니다.>

뒤짐을 지시고

생각에 잠기시여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도 얼마전

남포에 내려가는길에

강선에 잠시 들렀댔소.

시간이 없어 로동자들이 출퇴근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강선동무들의 얼굴을 보고 떠났습니다.

차장으로 내다보니

그 동무들의 얼굴이 좀 나아진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엔 어려있었습니다,

술한 자식 거느린 아버이의 심려가.

나는 그때에야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들이 밥을 달게 먹어야

자신께서도 입맛이 돈다고 하시던

그 말씀의 참뜻을.》

억제 못할 감격에

어깨를 들먹이며

한걸음 다가서

료리사의 손을 꼭 그러잡는 로장

《료리사동무는 어제 그이를 뵈웠으니

아실테지요

그래 우리 수령님께서서 건강하십니까?》

뜨겁게 울리는 그 물음에

번쩍이며 모여드는 그 눈길들에

마음 데우며

기쁘게 후덥게 울리는 목소리

《...수령님께서서는 건강하십니다!》

후더운 이슬을 흠치며

로장아바이가 머리를 든다

빨간 머리수건을 눈가에 가져다대며

배전공처녀가 일어선다

용해공들의 눈물젖은 손길들이

료리사의 손길을 틀어잡는다

그렇다면야

우리 수령님께서서 건강하시다면야

그이상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께서서 건강하시교

우리 수령님께서서

우리 로동계급을 믿고 사랑하시는데야

우리 못할 일이 그 어디 있으랴

수령님께선 오로지

우리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우리 로동계급은 오로지

수령님을 받들어

수령님만을 따르니

아,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힘

조선의 의지여라!

이것이 바로

로동계급의 세상

우리 조선의 행복여라!

골초브의 봄

김명익

뽀족지붕의 아담한 2층살림집은 푸른 숲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넓은 정원에는 꽃밭과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있는데 양지쪽 온실유리지붕이 해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정원과 잇닿은 오솔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강이 나지고 거기에는 물고기 사냥을 위하여 준비된 뽀트가 언제나 기슭에 떠있었다.

볼테르만이 처음으로 안해와 함께 이 집으로 이사오던 날 그의 후임으로 온 조합의 새 관리위원장 요한은 매우 정중한 어조로 말했던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골초브의 초대관리위원장으로서는 한생을 자기 직무에 충실하여온것만큼 이 <푸른별장> (그는 자칭 이 집을 그렇게 불렀다)에서 여생을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밝은 후광이 비낀 《푸른 별장》에서의 볼테르만의 년로보장생활은 아무런 동티도 없이 어느덧 두번째 봄을 맞이 하고있었다.

유난히도 따사로운 봄날이 있다.

이른아침부터 엘레나가 정원의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들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어린 빅토리가 그의 일손을 돕고있었다.

빅토리는 올해 여섯살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베를린채종연구소에서 근무하고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고향을 다니러 왔다가 적적하게 지내는 늙은 부모를 생각하여 빅토리를 남겨놓고 떠났었다 그러니 어린 손자녀석이 할머니의 일손을 돕기는 커녕 방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행일것은 뻔한 노릇이 었다.

그렇다는걸 볼테르만 자신이 모를리 없으련만 그는 자기의 2층서재에서 좀처럼 얼굴을 내밀려 하지않았다. 그는 얼마전에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었다,

아들 파울리스는 자기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오래동안 고심하여 오던 새로운 밀종자에 대한 연구를 마침내 끝내였습니다. 새 종자는 나라의 알곡생산에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뒤에는 엠마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바이지만 그는 연구조수로서, 안해로서 자기의 임무를 유감없이 다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또다시 새 작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맡고 곧 엘베강류역으로 현지조사를 떠나게 될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성공이 저희들을 기쁘게 하였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자신의 성공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드릴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향에서 외롭게 지내지 말고 여기 베를린으로, 저희들이 살고있는 수도로 오십시오...》

그때 볼테르만은 골초브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리도 몰라주는 아들에 대한 꼬까운 마음으로 하여 다른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골초브를 떠나다니?! ...)

볼테르만은 자기가 더는 어쩔수 없이 고향땅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말 못할 서러움으로 하여 가슴이 아팠다.

물론 그는 고향을 위하여 골초브를 위하여 한생을 부끄럼없이 바쳐왔었다. 반과썬항쟁시기 이 땅에서 과썬을 반대하여 피를 흘리였으며 새생활 창조를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탐과 지혜 송두리채 바쳐왔다. 조합이 무어져 이날까지 관리위원장이라는 수월치 않은 직책을 지니고 밤이고 낮이고 쉬임없이 드바쁜 나날을 보내여왔다. 허나 그것은 먼 과거의 일로 되어버렸다. 젊은 후임에게 사업을 인계한 그에게 있어서 오늘은 아무런 바쁜 일도 없는 한가로운 년로보장자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에게는 다만 젊었을 때 못다한 휴식과 안정, 안온한 생활만이 남아있었으며 그것은 흥분의 권리이기도 하였다.

하여 그는 《푸른별장》에서 정원을 가꾸고 온실에 갖가지 남새를 자래우며 이따금씩 낚시질로 심심치 않은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볼테르만은 자기가 골초브를 아주 버리고 어디로 떠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언제나 조합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것만 같았고 하루도 포전과 집짐승우리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망심에 부끄러울것만 같았다. 어떤 날에는 새 관리위원장이 그를 초빙하는 때도 있곤하였다. 한해의

생산물이 종합되고 수확물이 처리되며 분배가 실시 되는 가을대목에 오랜 경험자의 조언은 지극히 필요한 방조로 되었던것이다.

그에게는 조합을 다녀오는 그런 때가 좋았다. 무연한 쌓임벌의 어느 포전, 어느 집짐승우리에도 그의 땀과 정력과 추억이 깃들지 않은곳이 있으랴.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정든 땅이었다. 그런데 어찌 아들을 따라 훌쩍 이 땅을 떠날수 있더란말인가.

그랬으나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의 애틋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그로서는 좀처럼 마음을 다잡을수 없었던것이다. 어쩌면 종단말인가? ... 볼테르만은 어느 하루도 마음속으로 짐을 꾸렸다 풀었다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런 때에 뜻밖에도 아주 뜻밖에도 가슴 울렁이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것이다.

그것은 쏘련을 공식친신방문하고 계시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곧 방문하시게 된다는것이였다.

아, 이런 경사가 있을줄 알았더라면 벌써 아들의 청을 들었을걸, 그랬더라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두번다시 이루어질수 있었으련만... 아니, 이제라도 떠나야지, 어서 떠나야지, 아들이 있는곳으로, 베를린으로!

볼테르만은 이렇듯 진정할수 없는 마음으로 떠날 차비를 서두르고있었다.

《할머니, 이 많은 딸기를 누가 즈을 내요?》

빅토리의 쉼쟁한 목소리가 열려진 2층창문너머로 들려왔다.

《딸기즙말이나. 내가 내지 누가 내겠니. 이제 설탕에 재워 팥장고에 넣어두면 멋진 시럽이 될게다.》

엘레나가 딸기광주리를 옮겨놓으며 대꾸를 한다.

《할아버진 이런걸 할줄 몰라요?》

《왜 모르겠니.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없단다. 이제 베를린으로 떠나야 하거든.》

《모두 떠나요?! 그렇다면 여기 일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야 폴초브의 관리위원장이 아닌가요.》

엘레나가 잠시 대답이 없었다.

《...떠나야 할 일이 있으면 떠나는데지. ...그런건 네가 참견 안해도 돼. 애 빅토리, 사설질은 그만하고 여기 일사귀밀에랑 잘 살펴라. 그러다간 죄다 들취밥이 되고말게다.》

빅토리는 들취밥이라는 말이 우스웠던지 깔깔거렸다.

볼테르만은 빅토리의 입에서 관리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오자 엘레나가 이내 판전을 피운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몸이 좋고 어리무던한 이 녀인은 남편의 옛 직무에 대한 회상이 서글픈 인생말년을 상기시켜주는것만 같아 늘 원심을 써오는것이였다.

볼테르만은 허거른 미소를 머금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벽장에서 종이두루말이를 꺼내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선지도가 걸려있는 맞은편 벽말코지에 걸었다. 책상크기만한 쌓임벌전경도였다.

진곤색으로 표시된 《사슴진펄》(옛날 사냥군들에게 쫓기던 사슴무리들이 빠져죽었다는 진펄)을 중심으로 개간된 부침땅면적들이 년대별로 적혀있었다.

색이 얼마간 바래기까지 한 이 도면은 볼테르만이 사업을 인계하던 마지막날까지 그의 사무실벽면에 걸려있었다. 그는 자기의 오랜 사업일지까지도 후임에게 넘겨주면서도 이 도면만은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었다. 그는 이 도면을 펼쳐볼때마다 젊음이 되살아나고 자기의 희망과 념원이 의연히 폴초브의 전야와 이어져있다는 생각을 의심할바없이 느끼곤하였다.

(오늘의 이 쌓임벌을 **김일성**주석동지께 다시 보여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볼테르만은 머지않아 자기가 폴초브를 떠나게 되며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보게 될는지 모를 기약할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한없이 마음이 유정해지는것이였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지도인가요?》

딸기밭에서 언제 새여들어왔는지 빅토리가 노르끼레한 눈섭을 삼박거리며 참견을 한다.

《이것말이나, 조선이라는 나라다. 밝은 아침의 나라, 해쫓는 나라지.》

《여기서 해가 솟아요?》

《아무렴, 해가 솟구말구.》

《그럼 별도 여기서 솟겠군요:》

《별말이나. 그야 이틀데있을라구. 해쫓는곳에서 별도 솟게마련이지!》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리도 조선을 잘 알아요?》

빅토리가 또 물었다.

《아, 그걸 어떻게 너에게 말을 해야 종단말이나...》

볼테르만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빅토리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에그, 우리 사설쟁이가 예서 뭘 또 재잘대고있누.》

커피잔을 들고 들어서던 엘레나가 빅토리를 보고 혀를 찼다.

《할머니, 난 재잘대고있는게 아니예요. 해도 솟고 별도 솟는 조선에 대하여 묻고있는데요.》

《그래그래, 아무렴, 우리 귀엽둥이가 용하구말구.》

엘레나는 커피잔을 볼테르만에게 주고나서 얼른, 빅토리를 그러안으며 입을 맞추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커피잔을 매만지며 볼테르만은 창밖으로 눈길을 들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게 열려져있었다. 해빛을 받아 번쩍이며 유유히 흐르는 오데르강도 한눈에 보인다. 저 강을 건너 이웃 나라 뿔스까가 있고 쏘련이 있다.

이 시각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어디에 계실가. 그이께서 이제 우리 나라에 오신다면 나를 알아보실가. 10 년도 아니고 20 년도 아니고 스물여덟해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볼테르만은 가슴에 젖어드는 정회로 하여 온몸이 화끈거렸다.

그는 천천히 책상앞으로 다가가 까만 윤기가 흐르고 자개가 박힌 자그마한 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 정히 보관되어있는 사진첩을 꺼내었다.

1956 년 봄,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신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외진 농촌마을인 골초브를 몸소 찾으시어 찍으신 기념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사진첩이었다.

볼테르만은 그날이 되새겨질 때면 가족들과 함께 이 사진첩을 펼쳐보군하는것이였다.

《엘레나, 세월이 흘렀는데두 그이를 만나뵈옵던 그날이 꼭 어제일만 같구려.》

사진첩을 번지는 볼테르만의 음성은 젖어있었다.

《정말 그래요. 잊을수 없어요. 그이께서는 우리 가정에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였지요.》

엘레나는 빅토리를 꼭 그러안으며 눈빛을 빛내었다.

《그렇소. 정말 잊을수 없는분이요.》

그리고 그들은 추억에 잠겨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정녕 잊을수 없는 골초브의 봄이였다.

조선의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듯 오래 헤여졌던 옛 친지를 만나주시는듯 아무 허물도 없이 따

뜻이 맞아주신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그이!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합에 모시게 된 젊은 관리위원장 볼테르만과 골초브사람들의 환희와 기쁨은 비길데 없었다. 이제까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수반들은 적지 않았지만 이처럼 외진 조합을 몸소 찾아주신 레는 적었다.

더우기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온 세계가 존경하여 마지않는분이 아니신가!

볼테르만은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아들 파울리스와 안해 등 온 가족이 정성껏 마련한 꽃다발을 들고 마중나와섰지만 그이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실가 하는 송구함으로 하여 온몸이 쏠아드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차에서 내리신 그이를 만나뵈옵는 그 순간 굳어졌던 그의 마음은 봄날의 눈처럼 녹아버리고말았다.

《관리위원장동무,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이께서는 저리도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실가.

그것은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해빛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답례를 보내시는 림름하신 모습, 활달하고 열정적인 몸가지심과 가볍게 몸을 저으시는 특유한 걸음씨는 나라도 민족도 다르고 그이를 처음으로 만나뵈옵는 골초브사람들의 넋을 대번에 매혹시켰다. 그이께서는 아무 허물도 없이 견습공들의 합숙도 들리시고 농기계창고며 집집승우리들을 돌아보시며 친히 기념사진도 남기시였다.

마을로 돌아오시는 길에는 골초브의 자랑인 쌓임벌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망하시였다.

쌓임벌은 오랜세월에 형성된것으로 《사슴진펄》을 중심으로 크고작은 습지들과 자갈과 모래땅으로 되어있어 봄이라 하지만 아직도 해묵은 풀들이 무성하였다.

이 벌을 찾아 옛날 농민들이 모여와 땅을 뿌지고 집자리를 잡은것이 오늘의 골초브였고 처절한 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이 벌에서 파쑈와 치렬한 지하투쟁을 벌리였다. 이번에는 볼테르만의 더운피가 뿌려져있으니 비록 난알이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벌이었으나 그에게는 자기의 한몸처럼 귀중한 땅이였다.

《참으로 광활한 대지입니다. 더우기 반파쑈투사들의 더운피가 스며있는 땅이기에 골초브사람들에게 귀중한 벌입니다.》

볼테르만의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자신의 고향땅처럼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농민들도 이렇게 자기의 땅을 피땀 흘려 한치한치 걸구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우리 나라의 인민들이 생각납니다.

나는 떠나오기전에 어느 한 농촌에 들린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인민들은 해방직후부터 조국을 지켜싸웠고 3년간전쟁까지 겪느라고 피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아직은 기계수단도 없고 농경기도 변변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칼씨레로 나무뿌리들 잘라내고 팽이로 땅을 일꾸었으며 물길을 짜고 양수기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땅에 그들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피로 지킨 땅이기에 그들에게는 그 땅이 그렇게 소중하였으며 그 땅의 주인이기에 곤난을 무릅쓰고 개간하였던것입니다.

나는 관리위원장동무가 저 쌓임벌을 잊지 못해하며 긍지를 가지고 사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무연한 벌을 가지고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나는 관리위원장동무가 부럽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오데르강류를 따라 끝간데 없이 펼쳐진 쌓임벌을 바라보시며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볼테르만은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뛴었다. 그것은 단지 고향에 대한 사랑과 긍지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크고 숭엄한 감정이 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이였다. 아, 우리도 저 쌓임벌을 모조리 개간하여 전야로 만들수만 있다면… 조선의 농민들은 칼씨레로 뿌리를 들춰내고 물을 끌어올렸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도 저 벌만 개간한다면 골초브는 알곡더미, 고기더미에 올라앉게 될것이다.

볼테르만은 줄곧 자기 생각에 잠기여 환상을 펼쳐나갔다.

《여기 쌓임벌을 개간하자면 우선 저 진펄의 물부터 빼야 할것 같습니다.》

볼테르만은 어떻게 되어 자기가 불쑥 쌓임벌개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이께 말씀드리게 되였는지알수 없었다. 다만 자기가 꼭 그렇게 할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자각이 그의 온몸의 피를 끓이고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시며 진펄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그렇것입니다. 여기서는 배수로를 짜서 진펄들의 물을 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할것입니다. 그다음 토지를 정리하고 절구기만 잘한다면 골초브는 잘살게 될것입니다. 정말 이런 벌을 가지고있는 관리위원장동무가 부럽습니다.》

그이께서 아무런 가식도 없이 진심의 말씀을 하여주시며 그의 어깨우에 조용히 손을 올려놓으실때 볼테르만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어쩐지 자기가 이제까지 피흘린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귀중함을 너무나도 모르고 산것만 같았고 저버렸던 그 땅을 오늘 비로소 되찾은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무쇠같은 추억에 정기를 들고 조합원들을 이끌어 땀흘려 개간한 땅.

그렇다! 바로 그 벌이였다.

개간된 첫해가을 쌓임벌에 땅이 꺼지게 풍년이 들었을 때 젊은 볼테르만은 누런 밀이삭을 한아름 그러안고 볼에 마구 비비였다. 아, 쌓임벌이여, 나의 골초브여, 이제야 정녕 봄은 맞았구나! 그러면 밀이삭들은 감사의 정에 무겁게 고개를 숙여 좌-좌 설레이고 들크무레한 낱알향기가 그윽히 풍겨오는것이였다.

풍요한 이 전야를, 오늘의 쌓임벌은 **김일성**주석께 다시금 보여드릴수 있다면…

아되고싶은 심정은 그뿐이 아니였다.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과 은정은 볼테르만의 가정에도 행복의 봄을 피워주었다. 빅토리, 그 애도 그 봄벌아래 피어난 한송이의 꽃인것이다.

…잊지 못할 그날 **김일성**주석동지를 모시고 쌓임벌을 돌아본 일행이 관리위원회 앞마당을 향하여 들어서던 때였다. 마을길 한가운데서 웬 난데없는 소녀애가 울고섰다가 일행을 보고 주춤거리는것이였다. 너덧살 되어보였다. 머리수건은 어깨우로 흘러내리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가냘픈 몸매… 무슨 일로 저리도 울가?

볼테르만은 조합원들에게 애들을 잘 통제할데 대한 자기의 지시가 헛되이 되였다는 상실감으로하여 당황하였다. 일행이 무난히 소녀애를 지나쳐주지만을 바랄뿐이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는것이 아닌가.

《저런, 고운 처녀애가 우는구만.》

그이께서는 애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으시여 머리수건도 고쳐매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였다.

《그래 네 이름이 뭐지?》

처녀에는 통역원의 얼굴을 말뚝말뚝 쳐다보다가
인자하게 웃으시는 그이께 대답하였다.

《엠마예요, 엠마!》

《엠마?! 참 똑똑하구나.》

그이께서 웃으시며 불을 다독여주시자 엠마는 굵
시 해죽 웃는것이였다.

《엠마가 웃는구나. 정말 착한 애다. 그래 엠마네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이요?! 이 집이에요. 새로 지었지요. 엠
마는 마을에 귀한분이 오셨다고 집에서 놀라했지요.
그런데 언니랑 오빠랑 날 버리고 파울리스한테로
뺄소닐렀지요...》

《아, 그랬구나.》

그이께서는 다시 울것처럼 입을 비죽거리는 엠마
를 얼리시며 길옆의 새집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볼테르만은 엠마가 다름아닌 프리다아주머니의
막내딸이라는것을 알았다.

그 집 큰아들은 이 지방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파쑈교형리들에 의해 살해되였고 남편은 수용소에
감혀있던 어혈로 몇해전에 세상을 떠났다. 프리다
아주머니는 몸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어린 자식들이
오롱조롱하였으나 조합일에 열성이 높았다.

프리다아주머니에 대한 말을 들으시며 줄곧 엠마
의 손을 매만지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이윽고 애를
안고 일어서시였다.

이때 반나마 닫겨있던 길옆집문이 활짝 열리면서
흰 앞치마를 두른 중년부인이 달려나왔다.

그가 바로 프리다아주머니였다. 《아니, 이걸 어
찌나. 엠마, 빨리 오너라. 어서...》 프리다아주머니
는 철없는 딸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에 안긴것을
보고 필적 놀라 기쁨과 당황함에 뒤섞이며 황황히
웃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얼굴을 활짝 붉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프리다아주머니와 아무런
격식없이 인사를 나누시였다.

프리다아주머니는 귀하신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
고싶은 간절한 소원에 눈빛을 반짝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에 들어가실것을 간청하였
다.

《그럼. 우리 엠마네 집엘 들려보고 갈까요?》

프리다아주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미소를 지으시며 볼테르
만을 돌아보았다. 볼테르만은 눈굽이 뜨거워났다.
전쟁이 갓 끝난 조국에서 보고오신 가슴아픈 사연
인들 얼마일것이며 외국여행의 짧은 시간이나마 천

만시름을 잠시 잊으신들 어떠하시랴만 이국의 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처토록 마음쓰시니

김일성 동지시야말로 진정한 벗이고 형제이시며
아버이수령이시라는 생각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어린 마음에도 친어버이사랑을 느끼었던지 엠마
는 그이의 목을 꼭 그러안고 놓을줄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으로 들어가시였다. 황급
히 엠마를 받아 안아내리운 프리다아주머니는 그이
의 말씀이 너무도 고마와 눈시울이 뜨거웠다.

그이께서 자기의 어린 딸을 애무해주시고 방이며
부엌, 목욕탕과 창고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아주
신것만도 영광스러운데 앞으로 일도 잘하고 자녀들
도 잘 키워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분에 넘친 말씀까
지 해주시니 프리다아주머니의 걱정은 이룰데 없었
다.

그런데 그이께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엠마며 그의
자매들이 쪼르르 모여와 옷지락에 마구 매달리는것
이 아닌가.

《오, 엠마로구나. 그러구 이 애들은 오빠구, 언니
들이냐? ... 이애는 누구냐.》

《그 앤 저, 저의... 파울리스라고 부릅니다.》

볼테르만은 장난질에 얼굴이 빨강게 익은 아들을
보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아니 관리위원장동무에게 이런 땅크병같은 아
들이 있구만, 참 장하군, 장해...》

그이께서는 자애에 넘친 미소를 지으시며 엠마네
형제들과 파울리스를 한품에 안으시고 사진까지 찍
으시였다.

프리다아주머니는 더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흑하
고 울음을 삼키였다.

그때로부터 그 두 집 애들은 친형제처럼 똥굴며
함께 자랐다.

《여보, 엘레나, 우리 엠마를 머느리로 삼는것이
어떻겠소.》

여러해가 지나 파울리스와 엠마가 성장하여 대학
을 마치였을 때 볼테르만은 안해에게 말했었다.

《어쩌면! 나도 그런 생각이였다우. 그런데 그애
들의 마음이 어떠할는지...》

그것은 참으로 모를 일이였으며 권고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김일성** 동지의 자애로운 품에 안기었던것
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린시절의 추억이였다.
더우기 엠마네 집은 애들이 철이 들가 할 때 멀리
도시로 이사갔고 애들이 공부하는 대학도 같지 않
았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어찌 알랴...

그런데 어느날 뜻밖에도 파울리스가 엠마를 데리고 집에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은 부모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영원한 생을 함께 하기로 언약하였답니다.》

《애들아!》

볼테르만과 안해는 그들을 그러안고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했다.

(장하다 애들아, 어찌 너희들이 달리될수 있단말이나. 응당 그래야 하구말구!)

그렇다.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하듯 그들도 같은 날 한고장에서 영광스럽게도 **김일성** 동지의 품에 안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우정이 싹트고 자라 청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으며 결혼식날에도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앞에 정중히 인사를 드렸었다...

깊은 명상에서 깨어나 눈길을 드니 쌓임벌이 한눈에 안겨왔다. 봄빛이 질어가는 무연한 들판, 푸른 주단마냥 펼쳐진 사탕무밭, 설레이는 밀...

28년전 그이께서 내다보신 골초브의 미래였다. 쌓임벌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며 풍년을 가꾸어온 그 나날들은 볼테르만의 생애에 있어서 꽃피는 봄, 인생의 봄시절이었다.

그러자 그는 문득 젊었을 때 외웠던 하이네의 시 한구절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마음아 나의 마음아 막막해 말라
너의 운명을 참고 견디라
겨울이 너에게서 빼앗아간것을
새로운 봄이 너에게 되돌려주리

《엘레나, 나는 어쩐지 이 봄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줄것만 같소...》

그는 꿈을 꾸듯 뇌이였다.

《그런데 여보 령감...》

엘레나가 무엇인가 주저한다.

《당신은 베를린이 얼마나 큰 도시라는걸 모르지 않겠지요?》

《...?!》

볼테르만은 엘레나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다. 그러니 베를린으로 떠나간대도 뜻을 이루기 어렵단말인가. 그렇다면 자기는 영영 그이를 두번다시 몸가까이 모실수 없게 되거나 앓을가. 볼테르만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

이 미어질수록 흘러간 청춘시절이 그리워졌다. 이제는 모든것이 지나가버려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렸으니 성 쌓고 남은 돌처럼 외로리로 남았지...

봄빛은 유난히도 따사로웠다. 따사로운 봄별이 참문으로 함뿍이 쏟아져내렸다.

정원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목메인 부름소리.

《아버지!》

《빅토리!》

그것은 파울리스와 엠마의 목소리였다.

《여보, 애들이 아니요. 베를린에서 그 애들이 왔구려!》

엘레나가 눈이 휘둥그레 섰다가 빅토리를 덥석안고 뚱기적대며 충계를 달려내려갔다.

(그 애들이 오다니...)

때아닌 때에 나타난 그들로 하여 볼테르만은 어안이 벙벙해지고말았다.

정원에서는 상봉의 기쁨을 나누느라고 한동안 떠들썩하였다. 이어 계단을 다급히 밟으며 올라오는 소리...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베를린으로 모셔가려고 떠나왔습니다.》

서재로 파울리스와 함께 엠마가 들어왔다.

《대체 어찌된 일이나?》

《아버지,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인솔하시는 조선의 당 및 정부대표단이 쓰련방문을 마치고 뿔스까를 거쳐 곧 베를린에 도착하신다기에...》

《그래서 우리도 수도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볼테르만은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두팔을 벌리었다.

《그랬군요. 그런데 베를린으로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볼테르만은 모르겠다는듯 고개를 기우뚱거렸다.

《글쎄 오는길에 주에 들렀더니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우리 나라 방문기간 이곳 프랑크푸르트-오데르주의 도시와 농촌, 공장을 참관하시게 된답니다.》

《그럼 그이께서 우리 골초브를 다시 찾아주시게 된다더냐?》

《아마 그런가봅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경사가 어데 있단말이나, 파울리스!》

볼테르만은 환성을 지르며 와락 아들을 부여안았다.

호젓하던 《푸른별장》은 명절을 앞둔 때처럼 흥성거렸다.

그들은 그날을 손꼽아기다렸다.

하루를 앞두고 《푸른별장》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볼테르만은 가족과 함께 그에게 드릴 사진첩을 보자기에 정히 싸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28년전 골초브를 방문하시었을 때 찍으신 그 기념사진을 보신다면 그이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말 이 사진첩을 그이께 드리게 되거나 할가?

볼테르만은 느닷없이 갈마드는 이런 생각에 좀처럼 자리에 누웠어도 잠을 이룰수 없었다.

《여보, 어디가 편치 않아요?》

엘레나가 근심에 싸여 나직이 물었다.

《...》

볼테르만은 아무 대꾸도 못했다. 자기의 불안을 알게 된다면 엘레나의 마음인들 어떠하겠는가. 아들과 며느리는 또 어떠하랴. 말하지 말아야지. 공연히 그들까지 근심시킬거야 없지 않은가.

《...헌데 래일 날씨가 일없을가?》

슬쩍 판전을 피운다는것이 그만 실수를 하고말았다. 왜냐 하면 방금전에 그들은 다같이 텔레비존을 통하여 쾌청한 래일의 일기예보를 들었던것이다.

《당신이... 무슨 일이에요요?》

한생을 함께 살면서 그의 숨소리를 가려듣고도 마음을 알아내는 안해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아무래도 터놓고 말할수 없었다.

《일은 무슨 일, 어서 잠이나 잡시다.》

《어서 그러자요.》

볼테르만도 엘레나도 더는 말이 없었으나 두사람은 이밤 똑같이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날이 밝았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쌍임벌우에는 고무풍선마냥 흰구름이 높이 떠있고 저 멀리 베를린으로부터 제엘로브, 거기서 다시 골초브를 지나 아이젠 휴텐 슈타르시에 이르는 수십마일연도에는 환영군중이 늘어섰다. 손에 손마다 두 나라 국기와 고무풍선, 꽃부채들이 들려있었다.

볼테르만의 가족일행은 아침일찍부터 서둘렀다. 엘레나와 엠마의 손에는 장미꽃다발이 들려져있었다. 탐스러운 장미꽃송이들은 그리움에 불타는 그들의 마음처럼 붉었고 그들의 기쁨처럼 그렇게 활짝 피었다.

마을어구로부터 구락부까지의 길랑옆에는 사람들이 진을 치듯 늘어서있었다. 누구네를 막론하고 저마끔 자리를 잡느라고 서둘렀다.

엘레나와 엠마는 꽃다발이 상할세라 한쪽옆에 비켜서서 볼테르만이 앞에 자리를 잡고 찾아오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다.

그랬으나 볼테르만은 종시 그냥 돌아왔다.

《이러다가 우리는 참말 그이를 만나뵈지 못하는게 아닐까요?》

엘레나가 조용히 다가와 근심에 싸여 물었다.그렇다. 이 녀인은 벌써 어제밤 볼테르만의 마음속 불안을 어느새 눈치채고있었던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먼곳에서나마 그이를 만나뵈옵는대도 행복하지요, 안그래요. 볼테르만.》

《엘레나! ...》

볼테르만은 안해의 사려깊은 마음이 고마왔다. 그러하지만 골초브의 관리위원장이라는 당당한 신분으로 영접성원들의 제일 앞장에 섰던 잊을수 없는 그날이 되새겨지며 흘러간 인생에 대한 야릇한 아쉬움만은 종시 금할수 없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대렬짚을 비집고 앞으로 들어가려고 서성거리는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지 한 일군이 다가와 그들을 안내하였다. 조합의 일군들과 로인들을 위하여 따로 정해놓은 자리였다. 했으나 그곳 역시 비좁기는 매한가지였다.

가족과 함께 밀거니잡거니 하는 대렬속을 헤치고 걸음은 옮기던 볼테르만은 그만 주춤하고 서버렸다. 앞에서 한 녀인이 다급한 소리를 내며 넘어질듯이 비칠거리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녀인은 랑컨 거드랑에 지팡이를 짚는 한다리를 키브스한 환자였다. 낫이 익었다. 오랜 사양공이였다. 얼마전에 건초를 운반하다가 다리가 상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는 녀인을 부축하여주었다.

《고마와요. 아저씨, 저도 김일성주석동지를 잘 알고있답니다. 그이께서 우리 건승공들의 합숙에 들리시었을 때 저희들더러 훌륭한 사양공이 되라고 친절히 말씀하여주셨거던요. 그러니 어찌 제가 그이를 환영하러 나오지 않을수 있겠어요. 병원의사들도 저의 이러한 심정을 막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녀인은 길을 비켜주려고 지팡이를 옮겨 짚는것이였다.

《잘했소. 그래야 하구말구. 어서 자리를 편하게 잡소.》

미구하여 제엘로브연도쪽에서 환호소리가 메아리쳐오더니 샅시에 이쪽으로 번져왔다.

《만세, 만세, **김일성** 동지!》

《환영, 환영, **김일성** 동지!》

꽃다발과 기발, 고무풍선과 꽃부채들이 해일을 만난 파도처럼 끓어번졌다.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승용차가 마을어구에 떴어섰다.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녀성조합원들이 드리른 꽃다발을 받으시고 마중나온 일꾼들과 악수를 나누시었다. 그러시고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하시며 구락부로 잇닿은 환영연도를 지나시었다.

아침처럼 맑고 봄날처럼 따스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몸을 가볍게 저으시며 걸어오시는 인자하신 그이의 모습은 28년전 그 모습 그대로이시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서리 내리시였어도 그이께서는 변함없이 원기왕성하시고 활달하시었다. 존경하는 그이를 두번째로 모시게 된 골초브사람들은 달려가 품에 안기고싶은 흥모와 신뢰감에 휩싸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불렀다.

하지만 볼테르만에게는 환호성도 환호성의 물결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오로지 눈앞은 그이의 환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가득차고 그이의 미소로 하여 빛났다. 그는 오매에도 그립고 뵈고싶던 그이께 삼가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며 한걸음 내짚었다. 그런데 누구인가 그의 팔소매를 잡고 따라나서는것이였다. 키브스를 한 옛 견습공이였다. 그러나 볼테르만은 순간을 놓쳐버린다면 일생을 후회하게 되리라는 절박감에 휩싸여 몇걸음을 더 내짚으려는데 이번에는 그를 따라 환영대렬이 건잡을수 없이 활동처럼 연도쪽으로 휘어들었다. 볼테르만은 자기가 더는 걸음을 내짚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달았다. 만일 그러다가 경건한 환영질서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준다면, 나 하나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내가 뭐이기에... 리성을 가다듬는 볼테르만은 하마트면 자기의 불찰로 **김일성** 주석동지의 걸음을 잠시나마 지체시킬변하였다는 자책감으로 하여 몸이 그대로 굳어져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관리위원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구락부로 향하시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밀물처럼 밀려가며 환영의 절정을 장식하였다. 그러나 볼테르만은 제자리에 굳어진듯 움직일수 없었다. 끝없는 아쉬움이 온몸을 휩쌌던것이다.

파울리스는 아버지가 놓쳐버린 기회를 원망하며 그자리에 선채 구락부쪽에서 시선을 못떼는데 엘레나와 엠마는 아직도 생생한 장미꽃다발을 안고 볼테르만을 지켜본다.

구락부의 창문은 높고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거기서는 조선노래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의 선율이 은은히 울리고있었다.

금시라도 그곳으로 달려가고픈 충동이 볼테르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두번다시 돌아올수 없는 환상이 아닌가.

볼테르만의 눈앞에는 새관리위원장 요한의 얼굴이 자꾸만 어론거린다. 그이를 모시고 걸어가는 요한의 얼굴은 세상의 행복을 혼자서 받아안은 표정이였다. 그가 부러웠다. 볼테르만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봄시절이 있었건만... 세월은 참으로 야속한것이였다.

누구인가 그에게로 급히 다가왔다. 그는 볼테르만의 손을 잡으며 조용하나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볼테르만동무지요?》

그리고는 무작정 구락부쪽으로 팔을 이끄는것이였다.

《어서 가십시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계십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꿈속에서처럼 들렸다. 꿈인가, 기적인가? 허나 그것은 꿈도 기적도 아니였다. 볼테르만은 심장이 쿵쿵 뛸기 시작하였다.

《자, 어서 서둘러야 하겠습니까.》

흥분된 어조가 그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볼테르만은 별안간 꿈에서 깨어난듯 가족들을 앞세우며 구락부로 황황히 걸음을 옮기였다.

구락부의 넓은 무대는 장미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지도자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자주 출입문쪽를 살피시었다. 이곳으로 오시면서 28년전에 만났던 골초브의 옛 관리위원장을 그려오신 그이시였다. 세월이 흘렀으니 변한것도 달라진것도 많으련만 그의 몸은 어떠한지, 사업을 놓고 어떻게 지내는가... 생각할수록 한정이 없으시였는데 정작 만나시게 되니 마음이 더욱 가독해 지시는것이였다.

볼테르만이 출입문으로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그를 알아보시고 마주 걸어가시었다.

《아, 관리위원장동무! 잘 있었소.》

그이께서는 손을 굳게 잡으시고 포옹하시었다.

《나는 폴초브의 옛 관리위원장동무가 보고싶어 찾아왔습니다!》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수행원들을 돌아 보시었다.

《...끝 끝난 청년이었는데 이젠 머리가 희었구만. 하긴 세월이야 어떻게 속이겠소.》

《주석동지,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행복한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엘레나와 엠마가 그이께 꽃다발을 드리었다.

《감사합니다. ... 난 부인이 그새 몸이 좋아지나 않았을가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것 같습니다.》

그이께서 엘레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소리내어 웃으시자 빙안에 가벼운 웃음이 지나갔다.

《자, 그럼 이젠 여기에 앉아 지나간 회포나 나눌시다.》

수령님께서는 쏘파로 가시여 그들에게도 자리를 권하시었다.

이때 볼테르만이 수령님께 사진첩을 정중히 드리었다.

그이께서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고 가까이 앉아 함께 사진을 보자고 하시었다.

《아, 여기가 그때 조합사무실이였지요. 나는 지금도 관리위원장동무가 가족들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달려나오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이께서는 사진첩을 번지시며 감회깊게 말씀하시는데였다.

《볼테르만동무는 쾌기있고 정열적인 일군이었습니다.》

나는 조금전에 새 관리위원장동무로부터 조합이 이룩한 성과와 발전전망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폴초브의 조합원들과 일군들이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집집승들이 풀을 뜯던 초원을 이제는 알곡과 먹이작물이 가득찬 곡창으로 만들었으니 놀라운 발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광활한 쌍임벌을 타고앉아 진짜 잘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노라니 볼테르만동무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참으로 볼테르만동무는 피흘려 싸운 고향땅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보람있는 일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석동지, 것처럼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으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볼테르만은 뿔어오르는 감격으로 하여 자기의 심정을 달리는 표현할수 없는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이께서는 너무나도 범상한 볼테르만의 한생에 대하여 이처럼 분에 넘치는 높은 평가를 하여주시지 않는가!

볼테르만은 그 어느 순간이라도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처럼 자부심을 가져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볼테르만은 감사에 넘친 눈길로 자애로운 그이를 우려했다.

순간 시련과 곤난을 이겨내며 쌍임벌의 개간을 줄기차게 벌리어 황무지땅에 봄을 피우던 그 나날 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그이께서 친히 들려주신 조선의 협동농장 농민들의 이야기가 다시 귀전에 울려왔다. 진정 감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김일성** 주석동지 그분이시였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이제는 그 누구의 기억속에서도 사라진 옛관리위원장의 수고를 이렇듯 의의깊은 자리에서 값높이 사주시니 이런 영광이 또 어데 있을것인가.

그이께서는 사진첩을 번지시며 가족들과 일군들에게 재미있고 솔직하게 말씀도 나누시고 유쾌하게 웃기도 하시었다.

그러시더니 문득 한장의 사진앞에 눈길을 머무시었다. 그것은 프리다아주머니와 담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였다. 볼테르만은 로환으로 세상을 떠난 프리다아주머니에 대해 말씀드리자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때 그 아주머니를 만나보고 파쑈와 전쟁이 얼마나 많은 녀성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의 근원을 청산해야 한다는것을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지금도 현판에서 그 집 자녀들이 옷자락에 매달리던 일이 선합니다.》

엠마가 물기가득찬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는 날까지 내내 주석동지를 못잊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석동지의 말씀대로 형제들이 군대와 국가기관들에서 복무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렇다니 내 마음도 기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손수 사진첩을 번지시었다...

구락부마당에는 다음 참관로정으로 떠나기 위하여 차들이 대기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떠나실 시간이 되시었다.

그러나 볼테르만과 선뜻 헤어지게 되지 않으시다. 종종 만나시게 되는 작별도 아니고 또 볼테르만을 놓고보면 그전처럼 앞길이 구만리같은 청춘시절도 아니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되실지도 모른다...

그이께서는 볼테르만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여 석별의 정을 더 나누시려는듯 그와 함께 공원길을 조용히 거니시었다.

공원은 구락부마당과 잇닿아있었다. 소나무와 전나무들이 숲을 이룬 공원 한가운데 나진 공지에는 늙은 보리수가 한그루 서있었다. 연록색의 잎사귀들이 번쩍거리며 소리없이 설레이었다.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령님의 어조에는 따뜻하고 다함없는 인정이 넘쳐었다.

《예... 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서인지 설움같은 걱정이 가슴을 짝 메워 다음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사반세기기도 더 넘는 먼 과거에 잠시 만나뵈온 하찮은 외국인인을 그토록 잊지 않으시고 회포를 나누어주신것만도 그 고마움을 비길바 없건만 떠나시는 마지막시각마저 마음을 나누어주시니...

그런 나머지 볼테르만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자기의 《푸른별장》 생활에 대하여 여생의 안위에 대하여 지어는 하지 않아도 좋을 아들의 편지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하게 되었다.

《...자식들이 모여살자고 베를린으로 오라고 한 단말이지요...》

수령님께서서는 범상히 스칠수 있는 그의 말속에서 심중의 사연을 헤아리신듯 조용히 뇌이시었다.

《예....하는 일 없이 골초브에 남아있을바에는 함께 모여살자는겁니다.》

정작 말을 꺼내고보니 이룰할수 없는 서글픔이 가슴한가운데를 허비며 지나갔다. 흘러가버린 세월, 돌아올수 없는 인생의 봄시절... 이제 미구하여 그이의 결을 떠나게 되면 자기에게는 오로지 가느다란 인생의 황혼길만이 남아있을것만 같은 가슴미여지는 생각에 눈앞이 흐려졌다.

갑작스레 늙은 보리수가지우에서 피플새가 우짚었다. 청고운 노래였으나 왜서인지 매번 불완전하게 끝을 맺곤하였다.

피플, 피플, 이루...

그이께서는 마치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피플새의 노래를 듣기가 갑갑하신듯 문득 걸음을 멈추시

였다. 그러자 피플새도 그만 음조를 낮추며 슬며시 노래를 그치고 마는것이였다. 《그럼 볼테르만동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골초브를 떠나렵니까?》

그이께서는 의미 심장하게 물으시었다.

볼테르만은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머뭇거렸다.

《...아무래도 전 여기를 떠나서는 맘 편히 살것 같지를 못합니다. 그 무슨 일인가 아직 나의 발길을 잡고 놓지 않는것 같아서말입니다.》

대답을 드리고보니 자신도 애매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활기편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볼테르만동무는 여기를 떠날수 없다는게 아닙니까. 관리위원장동무가 아무렴 조합사업을 놓았다고 마음이야 어데로 가겠습니까. 더우기 골초브는 볼테르만동무가 청춘을 바치고 한생을 바쳐온 고향땅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고향을 쉬이 버리고 떠날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볼테르만은 면구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조합일 더러 나가보곤합니까?》

그이께서는 넌지시 물으시었다.

볼테르만은 다시 정색해졌다.

《예, 종종 다닙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크게 방조를 못주면서도 하루만 지나면 마음이 갑갑해지니말입니다. 매일 벌에 나가 자라는 곡식을 바라보는게 내 생활의 전부입니다. 특히 봄이나 가을철에는 새 관리위원장이 꼭꼭 초청합니다. 조합살림을 놓고 나의 조언을 바란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사업경험을 넘겨주는셈입니다. 그럴겁니다. 심분 리해가 됩니다. 그들 젊은이들에겐 관리위원장같이 경험있는 일군들의 조언이 천금보다 더 귀중하지요.》

그이께서는 볼테르만의 소행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잠잠했던 늙은 보리수의 피플새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였다. 아까와는 다른 완성된 선율의 류창한 노래였다.

피플, 피플, 이루이루 피플!

수령님께서서는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제 볼테르만동무의 말을 듣고보니 몇해전 일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때 나는 현지도도를 나갔다가 농촌의 한 관리위원장동무를 평양의 이름난 병원에 입원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고 신색도 그전만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하고 휴식도 시키면서 보약을 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지방에 출장갔다 돌아오니 그 관리위원장동무가 잠도 식사도 잇고 퇴원만 하겠다고 줄라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능하다는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고 나도 처음엔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순전히 농장일이 근심이 되어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동무이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원대로 퇴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농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식사도 잘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관리위원장사업을 젊은 일군들에게 인계하였지만 농장에 나와 살림살이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하던 사람이 일을 놓으면 더 힘든 모양입니다.

볼테르만동무도 그렇습니다. 비록 범상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오랜 사업 경험과 교훈속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10 년맞잡이로 귀중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십니다.》

《그건...》

그는 가슴벅차올랐다. 자기가 지금도 조합에 것처럼 필요하고 귀중하기까지 한 존재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인생말년에 지나보내던 평범하고 지어는 지루하기까지 하던 보람없는 생활, 이 모든 순간순간이 삽시에 신비로운 해빛을 받은 새싹마냥 것처럼 진귀하고 참신한것으로 변하여 그의 한가슴에 무한한 긍지를 안겨주었다.

그제야 조합의 젊은 일군들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존대하여 이것저것 묻던것이 단지 인사치레가 아니였고 지어는 숭고하리만치 큰 의의가 있었음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고보니 제가 그들을 더 도와줄것도 그렇게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저 쌍임벌만 놓고보더라도 아직 수확고를 더 높여야 되고 조합원들의 살림살이도 더 좋아져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보시오. 볼테르만동무, 쌍임벌의 진펄을 곡창으로 깔고앉을 동무의 그 욕심이 여전히 그토록 크구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진펄개간과 조합관리운영에서 볼테르만동무는 큰힘이 될 겁니다. 나는 볼테르만동무의 그 열정을 지지합니다.》

그이께서는 볼테르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러자 볼테르만의 가슴은 환히 열리는것만 같았다. 저 광활한 쌍임벌처럼, 봄날의 푸른 하늘처럼 눈빛은 더 밝아지고 심장은 마구 뛰노는 것이었다. 아무 할일이 없던 그에게 불원간 저 넓은 하늘을 받아안은듯 일이 많아지고 벌써부터 마음은 분주해져 생은 약동하는 것이었다.

《주석동지, 귀중한 말씀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볼테르만은 충심으로 그이를 우러렀다.

늙은 보리수나무는 해빛에 번쩍거리고 피플새는 청고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자, 이제는 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이나 찍고 헤어집시다. 그리고 나는 친우로서 동지로서 볼테르만동무와 부인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껴안으시고 공원길을 나서시었다.

그이의 손을 잡고 어깨에 얼굴을 기대인채 볼테르만은 걸음을 옮기었다. 마음은 어린애처럼 천진하고 행복은 가슴에 부풀어올랐다. 불모의 쌍임벌에 봄의 서곡을 안겨주던 은혜로운 빛발속에서 오늘은 인생의 봄을 받아안은 그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렇게 걷고싶었다. 이렇게 걷고 또 걸으면 누구에게나 락조비긴 황혼길을 모르고 꽃들이 만발한 인생의 봄언덕을 걷게 되리라, 아니 볼테르만은 벌써 계절을 모르는 영원한 생의 봄을 한가슴에 받아안고 보람찬 래일에도 달리고있었다. 하여 난알항기 그옥한 쌍임벌의 밀이삭들을 한아름에 부여안고 불을 비비며 이삭들의 속삭임소리를 가려듣던 그 시절의 희열이 가슴속깊은곳에서 태동하고있는 것이었다.

아, 봄이었다. 골초브의 봄이었다.

구락부앞마당에는 환송군중들이 짝 들어차있었다. 다시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만세, 만세, 김일성 동지!》

《친선, 단결, 김일성 동지!》

정녕 인류력사는 하많은 수령들의 덕망을 전해오건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만민의 수령을 더는 모르고있는 것이다.

목메인 환호성은 봄빛이 짙어가는 골초브의 하늘에 높이높이 울려퍼지고있었다.

봄빛 넘치는 백송땅

송찬웅

영광의 땅 백송리

푸른 산발 둘러선
산속의 막바지
잣나무 소나무 많다 하여
네 이름 백송리라 불렀더니

허구한 세월
세상에 소문도 없이
덤불에 락엽만 덧쌓이더니
언제부터 네 골안에 종소리 울렸더니

한치의 땅을 두고
조국의 운명을 두고
생사를 판가리하던 그때
우리 병사들이 와야 할곳 여기였던가

고요가 깃든 아늑한 골짜기
물소리 새소리 조잘대고
밤나무 설레던 예가 정녕
우리 청춘들이 있어야 할곳이었던가

아, 그런데 여기로
여기 배움의 전선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명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나니

달려왔어라

사랑의 그 명령 받아안고
포화에 불타는 고지를 내려
피어린 결전의 언덕을 떠나
여기 백송리 산속의 대학으로

여기서 울려퍼졌어라
배움의 종소리 종소리
원쑤의 폭음을 짓누르며
승리할 래일의 봄우뢰를 터치며

골안을 흔들던
그날의 종소리 멎은지 오래도
세월을 넘어 끝없이 울려오는
위대한 사랑의 그 메아리
오늘도 천만 사람들을 부르는가

집 한채 나무 한그루
한줄기 오솔길에도
수령님 다녀가신 4월의 봄빛 어려
산천이 그대로 빛을 뿌리는 백송리

너는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어도
인류의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불멸의 그 자욱 그 사랑 전하며
온 나라의 배움터로 높이 솟았구나
오, 영광의 땅 백송리!

눈석이 흐르던 봄밤

낮설지 않아라
밤나무 무성한 산기슭
그전날 대학본부가 자리잡았던
돌기와 엮은 수수한 농가집이여

고향집에 들어서듯
토방우에 올라서니
이 가슴에 물결쳐와라
못잊을 백송리의 봄밤이

밤은 깊어깊어

산발우에 은하수 기울어도
꺼질를 모르고 타고르던 등불 하나
온밤 벽에 걸린 조선지도를 밝혔나니

어려와라
교원학자들과 자리 같이 하시고
조선지도의 동서부를 짚어가지며
자연개조의 원대한 뜻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이

그 밤은 그 밤은

꽃도 푸른 잔디도
아직은 활짝 피어나기전
다만 봄빛을 그리며 움트고있었어라

눈서리를 녹이며
개울물은 구슬같은 노래부르고
상처입은 대지를 어루만지며
부풀고있었어라, 꽃망울도 나무순도...

계절따라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결에
하늘가에 지저귀는 종달새의 노래속에
봄은 있었던가 류다른 그봄은...

아, 봄 조선의 새봄은
폭음에 문풍지울던 그 밤
등불을 낮추 드리운 여기 농가집에서
대동강의 흐름과 서해기슭을 안으시고
조국의 미래에로 끝없이 나래치신
수령님 구상속에 태동하고있었나니

그날의 농가집 문앞에 서서
벽에 걸린 조선지도 바라보느라면
이 가슴에 자양으로 한껏 깃들여라
조국의 천년 미래가 펼쳐진
아, 사랑이 흐르던 4월의 봄밤이...

장군님 맞는 날

개울물 조잘대며
골짜기에 흘러내리고
산새도 지저귀며
숲속에 노래불러라

산에는 산마다
진달래 붉게 피고
개울가엔 새움 푸르려
바야흐로 봄빛 단장하는 날

오신다 오신다 하여
고대하던 **김일성** 장군
산골의 우리 살림 보시려
정녕 이곳에 오셨는가

오래 헤어졌던
아버지를 맞는 아이들처럼
울렁이는 가슴마다
환희로 설레이는데

저기 배꽃 핀 언덕길로
수수한 회색옷차림에
환한 웃음 담으시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장군님

어느새 **김일성** 장군의 노래
우렁찬 합창 되고
환영의 박수소리 만세소리

끝안을 뒤흔들어라

오, 여기는 평화의 날
수만 군중이 물결치고
천갈래 만갈래 오색기발 나뭇기던
5월의 시위광장이 아니다

그래도 좋구나
기발은 없어도
장군님 따르는 우리의 마음
진달래꽃다발에 담아
삼가 드릴수 있음이

벽차 다함없어라
말씀이 그대로 기뻐이고 승리인
장군님 뜻을 마디마디 아로새기며
우리는 저마다 생각했네

이제 오고야말
승리의 광장 주석단 우러러
장군님께 영광드릴 그날을 위해
힘써 배우고 또 배울것을!

1952. 4. 13.

(이 시는 현재 백송혁명사적관에
전시되어있음)

오, 밤나무골 내 정든 산천아

얼마만이나
밤나무골 밤나무골
내 대학시절이 흘러간
정다운 산천아!

흐르는 개울물도
물오른 밤나무아지도
그날처럼 봄빛 푸르러
애뜻한 추억을 불러주는가

어디 보자
아침저녁 모여앉던
소공원의 통나무의자들아
내 요람이며 교실이던
추녀 낮은 반토굴집들아

저기 뽕창가 침대머리엔
내 공부하던 앉은뱅이책상도 있으리
솔향기 풍기던 흙벽 그 어디엔
내 군복과 교복이 걸려있던 자리도 있으리
여기서 나서자란 고향은 멀어도

딩굴며 뛰놀던 고향집뜨락인듯
여기에 내 푸른 청춘의 닳을 내리고
포부와 리상의 나래를 키웠나니

꿈인들 얼마나 컸던가
이야긴들 얼마나 다정했던가
재를 털고 일떠설 고향의 새 모습 그리며
너나없이 진정할줄 모르던 우리의 집

색날은 군복 입고 찾아왔던
그날의 애젊은 대학생
오늘은 귀밑머리 희여 찾아왔어도
옛모습 그대로 나를 반기며
청춘의 귀한 시절 되살려주는가

오, 밤나무골 밤나무골
너는 가장 존엄했던 세월에
가장 뜨거운 손길로 나를 안아
당의 아들로 키워준 사랑의 품
나의 청춘을 꽃피워준 정깊은 고향이여라!

봉학역으로!

아지랑이 감도는 들판너머
저 멀리 백송리 푸른 숲은
떠나가도 자꾸만 따라서며
다시 오라 손저어바래주는듯

차마 걸음 못떼고
돌아보며 돌아보며
봉학역으로 가는 큰길에 나서니
이 가슴에 물밀듯 사무쳐와라
정전을 맞던 그해의 여름밤이

또 한채 토굴집 이영을 없으려
밀짚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를 끌며
백송리골안으로 돌아오던 이 길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벗과 함께 덩굴던 그날의 환희여!

포화의 3년세월
싸우던 전호에서나
배우며 농사짓던 간고한 나날에나
항시 기다려온 그날이 와서...

탄생 마흔뒤편을 앞두고
포연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광장도 주석단도 없는 골안에 모시고
진달래꽃다발밖에 드릴수 없었던 그때
그토록 갈망에 타던 그날이 와서...

아, 정녕 바라던 그날이 와서
백송리 온 골안이 들썩하게
《우리는 승리했네》 노래부르며
물목이 터진듯 봉학역으로
전교의 대오가 파도쳐가던 이 길

그 밤엔 기적소리 기적소리
 왜 그리 못건디게 내 마음 흔들었던지
 그 밤따라 차광막을 거둔 불빛들
 왜 더욱 유별스레 안겨왔던지

밤새 렬차를 타고 달려간
 내 언제나 그리던 영웅도시 평양
 만세소리 터져오른 환희의 절정에서
 내 품고품어온 소원을 가슴후련히 풀었나니

아, 그날 나는 뵈웠노라
 전승의 광장 높은 주석단우에

원수복을 입으시고 손을 흔드시며
 태양같이 웃으시던 수령님의 영상을...

나는 가노라
 그날의 감격에 젖어
 내 인생의 궤도우에
 승리의 첫 기적소리 울려준
 봉학역으로 봉학역으로!
 내 정든 집 창문이 웃는 수도의 광장으로!

백송혁명사적지에서

구룡연 외 1 편

유영하

내려 쫓는 물줄기 세존봉을 흔들어
 가슴 그리도 높뛰는가
 끝없이 쏟아지는 구룡연 바라보며
 쇠물 뿜는 젊음이 생각하네

-저 폭포 그대로 쇠물 되었으면...

희디흰 물보라 끝안을 휘감아
 마음 그리도 설레이는가
 필필이 내리는 구룡연 안아보며

비단짜는 처녀 생각하네

-저 폭포 그대로 비단 되었으면...

아, 구룡연 구룡연!
 다가서는 천만의 가슴에
 보여오는 모습은 달라도
 내 나라 빛내갈 생각은 하나로 합쳐
 금강엔 마음의 폭포가 쏟아져라

진주담

방울방울이 그대로
 눈부신 진주알
 방울방울이 그대로
 아름다운 구슬

옥돌우에 구울며
 진주담에 차고넘친것
 아, 그 모두가
 금강의 진주보석

아깝게 흘러가는 억만 구슬
 알알이 다 모아

금강산에 진주봉을 더 세워볼가
 사방을 둘러봐도 빈자리는 없구나

봉이봉이 만이천봉에
 아름다운 진주구슬로
 또 한봉이 쌓은들
 금강산엔 흠이 되려니

아, 진주담 진주담
 금강산엔 아름다움이 차고도 남아
 구슬구슬 진주도
 너는 그냥 흘러보내누나

위대한 태양은 빛나...

리일복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가 타고난 강한 기질이나 그 어떤 고유한 성격적특성에 의해 평가되는것이 아니다.

민족이란 자기의 속성과 특기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저절로 발현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이토록 존엄과 위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된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인민이 비쳐진 거울로서의 령도자, 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대변자이며 인민을 이루는 개개의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뭉쳐지게 하고 력사의 주체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담당자로 내세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실 때 그 인민이 위대해진다는것을 조선혁명은 산 현실로 뚜렷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 8기 제 1 차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수많은 과학적인 명제들과 철의 논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길을 독창적으로 밝힌 이 강령적인 문헌에 접하여 우리는 다시금 사상리론의 영재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으며 이 고전적 문헌에 안받침된 그이의 영광찬란한 60 여성상의 혁명활동과 크나큰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심장깊이 되새겨보게 되었다.

조선혁명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승리할수 있음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수령이 과학적이고 혁명적 인사상을 창시하고 그 사상으로 인민대중을 깨우치며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뿐 아니라 옹은 전략전술, 투쟁구호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고무추동하며 승리에로 이끈다는것은 엄연한 력사의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처럼 이 진리를 가장 참혹한 혁명의 기로에서, 가장 준엄한 력사의 시련을 통하여 체험하고 세상앞에 증명한 인민이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중중첩첩 겹치는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시련의 고비를 맞받아나아가 개척한 혁명위업, 그 누가 해줄 일도 아니고 오직 자기자신의힘으

로 감당하여 수행해야 할 오랜 력사적숙망의이 위업은 광휘로운 주체의 빛발로 앞길 밝히시며 인민대중을 이끄시여 전대미문의 새 변혁을 이룩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만 한몸에 걸머지시고 승리로 수놓아오실수 있는 불멸의 위업이었다.

하거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기나긴 나날해쳐오신 영광찬란한 로정과 폭풍 사납던 그 길우에 바쳐오신 심혈을 어찌 눈시울 뜨거움 없이 돌이켜볼수 있으며 온 세상에 자랑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시부독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가 **《조선방문기》**에서 다음과 같이 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국민들은 명란하고 걱정이 없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계십니다.》

라고들 말한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자신께서 원하시건 원치 않으시건 아버이의 지위에 추대되시였다.

북조선사람들의 굳은 신념이 부럽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영광과 행복에 대한 가식없는 평가이며 찬양이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지닌 권위와 영예, 그것은 곧 온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높으신 권위이며 영예인것이다.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 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이 **김일성** 동지!

그이는 가장 장구한 혁명투쟁로정을 빛나는 승리로 아로새겨오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자이시다,

실로 그이의 혁명활동력사는 반세투쟁의 가장 준엄한 전초선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여오신 자랑찬 투쟁력사이며 우리 시대 혁명운동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혁명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여오신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이다.

중학시절부터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혁명의 새벽길을 헤쳐나가시던 때에 있는 일을 회상하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신적이 있다.

《그때 운동화 한켠에 1 원 20 전~1 원 50 전씩 하였는데 신 한켠을 사고나면 월사금도 물어가지, 공책과 교과서도 사야지 결국 학비가 모자라서 책을 사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돈을 잘 벌어서 보내주시려는지, 벌지 못하여 못보내시려는지도 몰라서 운동화를 한켠에 사서는 학교에 갈 때만 꼭 신고 집에 돌아와서는 벗어놓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15 살 어린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바로 이런 인간생활의 최하층에서 본격적인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었다.

문노니 과연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혁명투쟁을 시작한 정도자를 동서고금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가?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통을 다 겪으시며 혁명이 겪을수 있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한몸에 다 감당하시며 싸워오시였기에 우리 수령님의 투쟁경험은 그로록 고귀하고 풍부하고 위대한것이 아니겠는가!

인민속에서 나오신 인민의 수령!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의 근본특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믿음은 혁명활동의 기초를 이루었고 그이의 전 혁명활동력사에 일관되어있었다.

이 땅에 일제침략의 검은 구름 뒤덮였던 1920 년대, 어중이떠중이들이 《독립》을 하고 《혁명》을 한다고 사방에서 입터진 개구리처럼 떠들어대던 그때, 그 누구도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모르고 혁명의 원동력을 보지 못한채 료리집의 자우룩한 담배 연기속에 찰랑이는 술잔을 맞짚으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정견》과 《주의》, 《주장》을 떠벌일 때에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속에서 인민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며 혁명활동을 벌리시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찾으시였다.

때로는 지주집 머슴도 되어보시고 때로는 연예대도 이끄시고 교련도 잡아보시며 인민대중을 깨우치고 불려일으키시면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인민적정도자의 구감으로서의 그이의 풍모는 진정 지난 역사가 알지 못하는 특기할 사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때를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인은 우리들이 공연한 <단심줄> 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은 비록 세사람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놈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차천리》로인의 이야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선사람은 비록 세사람이 모여도 단결하여 손에 총을 잡고 일제놈들과 싸워야 한다는그 로인의 말은 그후 우리의 투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충의 두지동마을에서 한 로인으로부터 들으신 이야기를 이처럼 잊지 않으시며 그 인민의 뜻을 담아 투쟁의 길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깊은 산속 한 산전막로인의 말에서도 인민의 힘과 고무를 새기시였고, 바로 이런 인민적정도자이시였기에 그이께서는 미제를 쳐부시는 전쟁의 엄혹한 날에 락원의 한 녀성당원이 올린 한마디의 말에서 힘을 얻으셨던 일을 오늘도 두고두고 잊지 못하시는것이다.

바로 그러하시기에 태성할머니의 그 목소리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강선로동계급의 목소리에서 큰힘을 얻으신 우리 수령님!

그이께서는 그 인민의 의지와 희망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혁명투쟁에 구현해나가시는 과정에 일찌기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력사의 새길을 개척하신것이 아닌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의 근본초석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독창적인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민대중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불패의 혁명적기치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민대군을 이끄시였기에 불길만리, 혈전만리 그 간고한 길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은 백전백승의 길을 걸어 우리 혁명의 깊은 뿌리인 혁명전통을 마련하였으며, 주체의 그 기치를 줄기차게 휘날려왔기에 해방후 그 복잡한속에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미제를 타승하고 사회주의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정도자로서 1920 년대로부터 1980 년대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오신분은 오직 우리 수령님밖에 없다.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과 불멸의 위훈으로 빛나는 혁명력사를 창조해오시였기에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대의 로련한 수령으로, 세계혁명의 저명한 정도자로 높은 칭송을 받고계시는 것이 아니라!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당과 혁명정권을 창건한 수령,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나긴 기간 영광찬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승리로 이끌어오는 정도자를 오늘도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은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속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깃들어있다.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경험으로부터 당과 국가 건설경험, 혁명전쟁경험, 자립적민족경제건설경험 그리고 자위적국방건설경험과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

경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다 담겨있으며 그것을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면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들이 모두 집대성되어있는 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투쟁업적을 세상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이 로작이야말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완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이론, 주체적인 전략과 전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위대한 수령님의 이번 시정연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위해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부르는 전투적기치이며 자주시대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적문헌인 것이다.

19세기중엽에 창시된 과학적사회주의리론은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이론발전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그때로부터 역사는 멀리 전진하였으며 사회주의는 엄연한 현실로 되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완성시키는 것은 특히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고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던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적조건이 더욱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은 지난날의 실천적경험과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시기의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 모든 전략적단계들의 투쟁방향과 과업, 그 수행방도를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론을 새롭게 풍부화하고 그것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한데 크나큰 혁신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지구우에 펼쳐질 세계의 래일을 밝혀주시었다!

지구우에 역사가 흘러 수십억년, 사람이 나타난 것이 수백만년전이라 일컫지만 자주의 항로에 첫출범의 닻을 올린 주체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인류는 자기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지구는 자기의 래일을 환히 내다보게 된 것이니 이 불멸의 주체시대를 펼쳐신 우리 수령님의 위업을 어찌 만대에 길이 전하지 않으랴!

세상엔 소문난 위인들이 적지 않다 해도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지나간 세월을 혁명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는 찾기 어렵다.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것이며 그이의 손길 따라 나아가기에 우리 인민은 존엄있는 인민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는 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이 있어 위대한 인민이 있고 위대한 수령이 있어 인민의 참다운 새 력사가 창조되는 것이니 조선의 현실은 그의 산 증거로 지구우에 자기의 뚜렷한 존재를 과시하고있다.

이 땅우에 침략의 구두발소리 소란하던 그 시절 인도의 한 진보적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바 있다.

일찌기 아세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가 비록 우리 조선의 앞날을 내다보고 쓴 것은 아니라 해도 오늘 이 땅의 현실은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위대한 혁명의 태양이 인민의 나갈 길에 찬란한 해빛을 뿌리고 위대한 향도성이 창창한 미래를 환히 밝혀주는 조선은 오늘 동방 밝은 등불이 되었고 지구우에 빛을 뿌리는 혁명의 광원을 안은 위대한 나라로 된 것이 아닌가!

정녕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찬란히 빛내어나가시는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문노니 어느 시대, 그 어느 인민이 오늘 우리인민이 지닌 이런 특전을 지닌적이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필승의 신념에 넘쳐있는 것이며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박차고 불굴의 기상을 안고 전진하고있는 것이다.

승승장구하는 이 길을 걸어 우리 인민은 마침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할 것이며 자주성이 활짝 꽃핀 인류숙망의 새 사회를 지구우에 펼칠 것이다.

위대한 태양과 찬란한 향도성을 모시여 누리에 빛나는 나라, 내 조국이어! 휘황한 그 빛발아래 더욱 룡성번영하라!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이어, 해와 달이 다하도록 길이길이 찬란히 빛나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형상과 우리 문학

윤기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고 우리 문학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고 우리 문학과 세계혁명문학발전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다.

그가운데서도 수령형상창조리론을 개척체계화하시고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찌기 주체혁명위업이 닳을 올리던 1920 년대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여 빛을 뿌리기 시작한 조선문학은 우리 시대에 와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형상하고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주체혁명문학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다.

오늘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을 중추로 하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가장 높은 문학으로, 사회주의적내용에 민족적형식을 잘 결합시켜 사상예술성이 높은 참다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혁명문학으로 되였다.

이 평론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와 앞으로 수령형상창조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1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전하는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참으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심에 있어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사상예술적으로 진실하고 깊이있게 격조높이 형상한것이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잘 형상함으로써 참으로 세기의 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격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수령형상창조에서 대를 바로세우고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가장 옳바른 길을 개척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적수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창조에서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모를 그리는것을 떠나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수령의 위대성형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모를 그리지 않고 인간품모, 인간성일면만을 위주로 형상한다면 그것자체가 비록 생동하게 형상된다 하더라도 수령의 품모를 참다운 의미에서 원만하게 창조할수 없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문학은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모를 그리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인간품모형상을 유기적으로 잘 안반침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잘 그릴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과 공산주의혁명가의 형상이 질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게 되고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이 참답게 창조될수 있게 되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문학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이라는 고유한 형상분야가 뚜렷이 확립되게 되었다.

이것은 주체의 혁명문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이 달성한 가장 귀중한 성과로 된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모를 기본으로 그리기 위하여 모든 수령형상작품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밑에 발전하는 력사적사건을 기본이야기줄거리로 하고있다.

력사적사건이란 혁명발전의 한 시대를 반영하고 특징짓는 전형적인 사회적사건이며 혁명투쟁을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이다. 력사적사건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운동을 령도하는 수령의 혁명활동과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의 령도밑에 발전하는 력사적사건을

작품의 기본이야기줄거리로 하여야 수령을 형상체계의 중심에서 형상하고 정치적수령으로서의 위대성을 참답게 부각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작품에 묘사되는 생활환경과 예술적정황을 혁명발전의 기본문제해결을 위한 전형적인 환경으로 꾸릴수 있으며 작품의 이야기도 혁명의 중심문제를 타고 발전하여나갈수 있게 꾸릴수 있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철저히 기초하고 역사적사건에 확고히 의거하여 수령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사실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참으로 위대한 생활의 철학으로 되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모든 장편소설들과 영화문학 《조선의 별》의 모든 작품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진행하시고 령도하시는 혁명투쟁과 력사적사건을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의 중심선으로 설정하고있는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뚜렷한 대답으로 된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보아도 그렇다.

이 장편소설에서는 1939년 10월부터 1940년 초까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시는 대부대선회작전의 력사적 사건과 사실을 이야기줄거리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범한 예지와 안목으로 천리앞길과 적의 흉계를 한눈에 헤아려보시고 일찌기 그 어느 전쟁사에도 있어본적 없는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구상하시고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투쟁에서 강철의 심장을 지니시고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시며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찾아보게 된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도하신 력사적 사건과 사실을 작품의 기본이야기줄거리로 함으로써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체현한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령도풍모를 형상할수 있는 예술적정황과 생활환경을 마련할수 있었으며 또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그릴수 있는 인간관계조성의 계기들을 참답게 만들수 있었던것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그처럼 의의있는 작품으로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 《근거지의 봄》 등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그처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고 격조높이 형상할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

우리 문학은 또한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풍모를 기본으로 하여 그리기 위하여 모든 수령형상작품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형상체제로 설정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주인공을 문학작품에서 형상적 화폭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주인공은 시대를 반영한 작품의 주체사상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종자와 창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심적역할을 맡고있다.

그러나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이와 같이 문학작품일반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위치와 역할과는 또 다른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있는 인간관계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며 인간관계를 조성한다는것은 수령에 의하여 발기되고 조직되고 령도되는 혁명사업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지금까지의 문학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이다.

문학의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지금까지 각이하고 다양한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존재하여왔으나 그 어느 인간관계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처럼 그렇게 작품을 꾸린 문학작품은 없었다.

문학작품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에서 특히는 우리 나라 문학에서 전형적으로 제기되고 빛나게 해결된 새로운 혁명적인간관계이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우리시대를 진실하게 반영하며 수령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려는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창작가들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이러한 인간관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설정의 모범으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각계각층 인민대중과 수령과의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간관계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본질을 인간관계의 견지에서 근원적으로 조건지어주는 인간관계이며 우리 혁명의 추동력을 밝혀줄수 있는 인간관계이며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치

적의의가 있고 생동하게 풀수 있게하는 생활적기초를 주는 인간관계이다.

이처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수령의 위대성을 참답게 그릴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인간관계 이다.

장편소설 《1932 년》을 보아도 쉽게 알수 있다.

이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120여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 리보익할머님, 김보현할아버님, 김철주동지, 김형권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군지휘관들인 리철군, 김광식, 한홍수 등 위대한 수령님과 유격대원들인 권만성, 변인철, 박흥덕, 송덕형, 박기남, 진일만, 최칠성, 혜영, 차기용, 영숙, 진봉남, 명옥, 리동천, 리혁 등 위대한 수령님과 부녀회원들인 금옥, 복실, 봉애, 곽단, 보금 등 위대한 수령님과 아동단원들인 첫째, 리철남, 창순, 금숙, 숙이, 상훈, 명기 등 위대한 수령님과 지식인들인 민선생, 백광명 등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들인 철남 어머니, 정옥, 서국보, 김창덕, 윤철남, 세걸, 강로인 등 위대한 수령님과 노동자들인 명선학 등 위대한 수령님과 초기공산주의 운동자들인 안동학, 송필등 위대한 수령님과 독립군 지휘관 병사들인 주호림, 최참모, 엄치환, 피상수, 리동수 등 위대한 수령님과 머슴과 소작인들인 성남, 독고령감 등 위대한 수령님과 구국군들인 최동일 등...

이밖에 지주인 최덕만, 최일호, 양가, 일제의 군경들인 아라끼, 시나가와, 오까모도, 하라, 호리모도, 스기노, 백순사, 최경부, 야마나시, 이다찌, 하야시 등과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속에서 우리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뚜렷이 알게 되고 혁명의 주동력을 뚜렷이 파악하며 우리 혁명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며 승리한다는 우리 시대의 진리를 체득할수 있다. 실로 이 인간관계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할 때만이 조선혁명의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는 불멸의 진리를 생동하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인간관계는 1920 년대말 1930 년대초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와 각계각층의 요구와 동향을 명확히 알수 있게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하여준다. 또한 이 인간관계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 창조에서 생활탐구의 무진장한 원천으로 됨으로

써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례를 들어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토기점골에서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 어머님께서 리별 하시는 눈물겹고도 숭고한 불멸의 생활이 탐구될수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지하공작원들의 관계속에서는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과 그 가족들에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과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 바쳐 충성다하는 전사의 의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감동적인 화폭인 위대한 수령님과 오상권의 생활을 찾아낼수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큰골인민들, 큰골아이들의 관계를 통하여 일제와는 무장을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생활을 찾아내게 하였으며 마령감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는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에 의거하시고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심으로써 어떤 역경에서도 백전백승하신다는것을 확인하는 생활을 탐구할수 있게 하여주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작품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설정은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할수 있는 온갖 사실과 정황을 조성하여주며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할수 있는 생활을 찾을수 있게 하여 준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수령이 령도하는 력사적사건과 사실을 작품의 기본이야기줄거리로 설정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인물관계를 짚으로써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의 혁명력사를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수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현하는 참다운 문학으로 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은 다음으로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격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면서도 위대한 인간으로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을 인간학적으로 그릴수 있게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군사 전략가, 탁월한 령도자일뿐아니라 참된 인간의 모든 특성을 한몸에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령도풍모를 그리는것과 함께 인간풍모를 잘 그려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인간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배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성,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혁명적의리,

대해같은 포용력과 넓은 도량 등 고결한 인민적성품을 지니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반세기가 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력사인 동시에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사랑의 력사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령도풍모를 숭고한 인간풍모와의 통일속에서 그려야 한다.

우리 문학은 여기에서도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적풍모를 단순한 인정적, 세태적 관계속에서가 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속에서 발현되는 끝없이 숭고한 인간세계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영화문학 《조선의 별》에서 새마을 오두막장면을 상기해보자.

참으로 이 장면은 자신보다 혁명동지를 먼저 생각하며 혁명동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와 위대한 인간풍모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보여준 빛나는 화폭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시며 혁명동지 한사람 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함께 그속에서 빛을 뿌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풍모를 또한 감명깊게 볼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오중훈대장을 잃었을 때와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한태혁, 장편소설 《압록강》에서 조분옥을 성심성의 도와주고 나중에 그들을 잃었을 때 볼수있는 장군님과 전사의 관계에서도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성은 전사들과의 관계뿐아니라 가계분들과의 관계나 인민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인간풍모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풍모와 함께 그와의 통일속에서 형상되고 있음으로 하여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매력과 인격을 가진 위대한 인간의 불멸의 풍모로 형상되고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수령의 형상은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비상한 형상적감화력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로동계급의 혁명문학 발전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가장 정확하고 빛나게 형상한 혁명문학의 본보기로 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달성한 이 성과들은 우리 문학발전과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생활과 관련된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절대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생활에서 있는 사소한 일도 그것은 보통사람들이 한생을 바쳐도 다 할수 없는 참다운 삶으로 충만된 위대한 생활이다. 그런데 우리 문학은 이 모든것을 생활그대로의 형식으로 눈에 보는데이 심장으로 직접 체험할수 있도록 형상하고 있는것만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말로 다 헤아릴수 없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 것이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과 인민들의 혁명적량식으로, 그들이 따라배울 생활철학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수령형상창조원칙에 맞게 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2

우리 나라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사업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창작가들앞에는 여전히 탐구의 정력을 쏟아부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창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높은 성과를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거대하고 세기적인것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건설에서 수령형상이라는 새로운 형상분야를 확고히 개척하고 그를 빛나게 해결하였다는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다.

수령형상문제의 해결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을 무엇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사회에서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향유하게 될 공산주의문학의 원형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이 위대한 성과와 업적을 참답게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우리 앞에 나선 창조적과제는 우선 수령형상을 체계적으로 창조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형상을 체계적으로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대 시기와 단계에서 벌어나가신 모든 분야의 혁명투쟁력사 전반을 체계성있게 형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년시절을 형상한 장편소설 3 권과 《E, C》의 결성으로부터 1940년초까지의 항일혁명력사를 형상한 13 권의 장편소설이 총서 《불멸의 력사》의 총적인 제목으로 창작되었다. 물론 이것은 방대한 량이며 큰 성과이다. 그러나 60 여성상에 걸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영화문학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기 위하여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형상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를 확증해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는 혁명하기를 바라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민족, 모든 인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근본문제들, 개별적사람들과 민족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나서는 문제, 민족해방혁명에서 나서는 문제,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나서는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당, 주권, 근로단체 및 군대건설문제, 노동계급문제, 농민문제, 인텔리문제, 녀성문제, 청소년문제, 종교문제, 교육문제, 보건문제, 혁명전쟁문제 등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시대의 각이한 혁명단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형상할 때 비로소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백과전서적의의가 남김없이 파시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주개혁은 어떻게 령도하시였는가, 사회주의혁명을 어떻게 령도하시이고 반제혁명전쟁은 어떻게 령도하시이고 승리를 보장하시였는가 등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 현대혁명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주려면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형상하는 문제가 선결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것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참답게 그리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생활과 투쟁의 사소한 일조차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한없이 귀중한 재보로 된다.

지금까지 형상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아직 많은 문제들이 예술화되지 못하고있다.

몇가지 례를 들어보더라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북만원정에 오르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축한에 누우시여 의식을 잃은 가운데서도 《반일전가》를 지으시여 대원들을 고무하신 이야기며 로야령의 외딴집 로인일가가 수령님을 지성으로 구환하신 이야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만군 련대장의 부인을 감동시켜 위만군련대장으로 하여금 반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하신 이야기, 유격구의 투쟁뿐아니라 반유격구투쟁이야기 그리고 남호두회의, 다홍왜회의, 요영구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소부대활동과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하는 시기의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전투들인 동녕현성전투, 간삼봉전투, 무송현성전투와 관련된 이야기 등 많은 사실과 이야기들이 아직 전혀 형상되지 않았거나 일부 형상된 경우에도 많은 내용들을 스치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여준다.

따라서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형상할뿐아니라 빠지는것 없이 전면적으로 형상하도록 작가적안목을 세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형상을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묘사의 폭을 또한 넓혀야 한다.

지금 적지 않은 수령형상작품들이 묘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탐구하고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있다. 례하면 장편소설 《1932년》에 등장인물이 120여명이나 되고 그들이 당대 우리 나라 현실에서 거의 모든 계층들을 거의다 포괄하고있는것은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폭넓게 보여주며 수령형상을 전면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한 측면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만족할수는 없으며 더 사색하고 탐구함으로써 묘사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하기 위하여 안목을 더 넓히고 혁명력사의 모

든 문제를 다 세계적차원에서 분석하고 형상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항일혁명투쟁은 그 어느것이나 다 조선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들이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운명개척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들이며 세계적인 문제들이다.

여기에서 세계제국주의의 운명이 판가리되고 노동계급의 새로운 혁명리론이 탄생한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한페이지 한페이지는 다 세계적인 문제이며 인류의 운명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아직까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형상을 깊이 파고들어 전개하여 형상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위대성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묘사하는것이다.

물론 지금 창작가들이 위대성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또 적지 않은 성과도 달성하고있다.

위대성을 다각적으로 그림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사실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보다 완전하게 드러내게 할수 있으며 충만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생활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세계적 및 인류사적의의를 가지는만큼 창작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묘사의 각광을 집중하여 그 본질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물론 제3자의 시점에서 묘사하는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유일한 수법은 아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이 끝없이 깊고 풍부한 심중세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소사하집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머님과 리별하시느 장면이 만대에 빛날 보석같은 생활세부로 될수 있는것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마음쓰시였는가 다각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한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제3자의 시점에서 그리는데 비하여 참으로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는 작가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정중하면서도 대담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색과 생활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형상해야 할것이다.

바로 이렇게 할 때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은 전면적으로 형상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문학적으로 진실하게 그릴수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탐구의 참신성, 심오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그것을 예리하게 분석적으로 진실하게 그리야 한다.

생활탐구는 깊이있는 형상창조의 근본조건이다.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의 형상은 위대한 생활에 대한 탐구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생활을 찾고 거기에서 생활의 참된 의미를 찾아내어 분석적으로 뜻이 깊고 생동하게 그릴 때 비로소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도자의 면모를 형상적으로 드러낼수 있게 된다.

그 좋은 레로서 장편소설 《1932년》의 소사하집 장면이나 영화문학 《조선의 별》의 새마을 오두막장면 등을 들수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창작실천들에는 고심어린 탐구로 위대한 생활을 보여줄대신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자체의 기록주의적인 라렬에 급급하고 그를 평면적으로 그리는데 그치는 레가 없지 않다.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들이라 하더라도 사색과 탐구를 기용인다면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흥을 안겨줄수 있다.

실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위대한 생활로 충만된 위대한 인간의 빛나는 서사시이다. 세계에는 혁명가도 많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풍상고초를 뼈에 사무치게 겪으신 그러한 혁명가, 그러한 수령은 없다. 세상에는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의 수령님처럼 인간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인민의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안아온 절세의 위인은 없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이 위대성은 형상하는 창작가들이 높은 당적책임감을 가지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생활을 찾을수 있고 위대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다.

위대성을 형상하면서 아직도 선언적으로 그리거나 기정사실화하여 그리거나 공식화하여 그리는데 경향이 다 가서지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일부작가들이 창작적담을 가지지 못한 표현이며 창조생활에서 안일성의 표현이다.

창작가들은 안일한 창작태도를 버리고 당이 안겨준 담력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밝고 더 정중하게 그리고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수령형상작품이 참으로 위대한 생활철학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창작가들의 혁명적열정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란 없다.

모든 창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더 깊이있게 형상하겠는가를 사색하고 탐구하여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 문제를 더 높은 수준에서 해결함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수기

고귀한 영상

전래식

살구꽃, 앵두꽃, 복사꽃이 다투어 피는 계절이 왔다. 만민이 축복하는 4월의 봄명절이 왔다. 이 화창한 봄날, 이 뜻깊은 명절에 정답고 고마운 품에 안겨사는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것이다. 나의 아버지도 늘 그리했듯이 오늘 자기의 심장을 피력하려고 붓을 들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수없다. 나는 그를 대신하여 그 심정을 여기에 옮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찾고 인생의 보람을 누린 작가이다. 아버지는 그 품속에서 비로소 작가라는 인간을 찾았고 당증을 메였고 작가가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그가 생존의 전기간에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였다. 해방전 그의 빈농민생활은 광명을 기약할수 없는 칙칙야밤 암흑생활이였다. 그는 그때 농민야학방에서 아래와 같은 동요 한편을 지어서 읊었다. 지금도 고향마을 사람들은 그의 동요를 옛말처럼 전해 부르고있다.

열일곱 열여덟
나많은 처녀
실없는 빨래는
하기도 싫어
시내가에 앉아서
먼산만 보며
누구가 그리운지
한숨만 쉬네

검은 머리 붉은 땀기
바람에 나풀
마음없는 산나물은
캐기도 싫어

이렇게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자기의 서글픈 인생을 동요에 담아 읊조리던 그였다. 나이많은 처녀가 아니라 자기가 한숨쉬며 울고있었다.

정말 어버이수령님의 품이 아니었다라면 아버지는 그저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흘러보내고 말았을것이다. 그러나 달리는 될수 없을것 같던 그의 운명에 광명이 비쳐들었다. 행운은 그를 버리지 않았던것이다, 아버지는 나이 30에 해방을 맞이했고 그 해방과 함께 새생활의 대하에 뛰어들어 가슴을 찢고 일어섰다. 정말 고마웠다. 하늘도 땅도 산천도 다 내것이고 정다왔다. 그 넓고 시원히 열린 하늘, 그 푸르고 맑은 강물, 넓디넓은 대지, 사품치며 깨여지며 울부짖던 덕지강의 흐름도 시름 많던 고생을 털어버린듯 고요히 누워흐렀다.

이 강, 이 하늘, 이 땅을 새롭게 찾아주신 수령님의 은혜야말로 열백번을 고쳐산들 다 갚을수 있을가... 그래서 그는 농민들과 함께 새조선을 세우는 일에 땀을 보태고 열정을 바치고 지혜를 냈다.

그품이 하도 고마와 호미를 붓으로 바꿔쥐고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었다. 처음에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땅을 주신 장군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온군내인민들의 편지를 밤새워 도맡아 써주었다.

그 다음엔 농민독본과 농민잡지에 자기를 주인
공으로 생각하며 새 농민들의 새생활을 이야기로
썼다. 그래서 작가로 되었다.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고마운 품을 떼어놓고는
그의 작가로서의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직 혁명문학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던 그에게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면서 우
리 혁명문학의 새로운 진군길에 들여세워주시었다.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써낸 작품도 보아주시고 치하
도 해주시고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주시며 손잡아 이
끌어오신 그 나날들에 작가는 하나의 혁명대학을
다녀왔다. 어느 한때는 혁명에 손실을 끼친 작품을
써서 큰 과오를 범한적도 있었다. 그때도 아버지수
령님께서서는 빈농출신의 큰작가라고 하시며 당이 키
우는 작가이니 활기를 펴고 일하게 하라고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생이 얼마남지 않았던 작년 4월, 그는 신문지상
에 언제나 그리운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다시뵈고
싶다는 수기를 발표하였다. 사실 그가 오늘까지 어
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신 회수는 얼마인지 모른
다. 어떤 때는 회의석상에서, 또 어떤 때는 저택에
서 반달나마 무릎을 마주하시고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수령님, 그런 영광의 특전을 받은 사람
은 그렇게 많지 못할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 수기
에서 한번 뵈옵고나면 또 만나뵈옵고 싶은분이 우
리 수령님이시라고 하며 아버지수령님께로 달려가
지 못하는 자기의 병든 몸을 두고 안타까와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모
습, 존귀하신 영상이 떠날줄을 몰랐다. 생의 말기에
는 더더욱 그러했다.

해방후 처음 초상화에서 뵈운 그 영상, 그는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에서 그날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날 모임에선 특기할 일 하나가 생기었
다. 그것은 농민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처
음 본것이였다. 중앙농맹대회에 참가했던 박형길이
가 초상을 가지고 온것이였다. 초상은 주석단정면
에 높이 달았다. 그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인것을
알고는 대렬이 흐트러져 주석단앞으로 막 몰려나갔
다. 붉은 기발이 와와 일어났다.

《**김일성**장군!》

《**김일성**장군!》

만세소리가 아니라 그냥 웨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신안동의 마봉서, 김석근이, 구안동의 배덕찬이, 배
덕걸이, 배덕보 이런 농민들은 랑볼로 눈물을 줄줄
흘리었다.

《야, 우리 장군님, 과연 나기두 잘났다.》

《그럼, 여부가 있겠소? 하늘이 낸 어른인데 보통
사람같이 생겼겠소?》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이름을 부르다간 이러
게 떠들어올리기도 했다.

아마 아버지지도 이날 이 농민들과 함께 아버지수
령님의 영상을 처음 우러러뵈웠을것이다. 그날은
군내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청원하는 군중대회가 열
린 1946년 2월초의 어느날이였다.

그때로부터 꼭 40년, 그는 한순간도 그 고귀한
영상을 눈길에서 떼지 않았다. 아니 마음속에서 놓
지 않았다. 그래서 1950년 가을, 적들의 일시적강
점시기 인민유격대에 들어갔다가 마을을 해방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 찾은것은 룡마루속에 붉은천에
싸서 깊이 간수했던 장군님의 초상화였던것이다.
적들의 만행에 부모처자가 생사기로서 헤매고 천
금보다 더 귀한 원고보따리가 행적을 알수없는 경
황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귀중한것이 아버지수령님
의 고귀한 영상이였던것이다.

오늘 아버지는 나의 곁에 없다. 작년 4월중순 그
는 수많은 독자들의 애석한 바래움을 받으며 영결
의 길을 떠났다.

최후의 시각에도 그는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을 우러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해방의 나날 처음으로 높이 우러러뵈웠던
그 고귀한 영상,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영원히 안고갔다.

사후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는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장례를 크게
하여 세상사람들이 다 알게 하도록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청년 따사로운 해발을 받아안고 고귀한 영상을
심장속에 지닌 사람들은 영원하다. 그 영원을 지켜
주는 위대한 품은 우주보다도 더 무한하고 해빛보
다 더 따사롭다.

명월구의 밤길

항일혁명전적지를 찾아서(1)

권정웅

우리 조선작가대표단은 중국작가협회의 초청으로 지난해 6월중순부터 7월초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

4.15 문학창작단 작가일행은 체류기간 베이징과 천진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중국동북에 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항일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답사하였다.

×

우리 일행을 태운 승용차는 7월 9일 아침 일찌기 연길을 떠나서 급류를 이루고있는 할바령하의 물줄기를 거슬러 줄곧 서북방으로 올라갔다. 얼마 안가서 조양하라는 갈래가 생겼지만 그래도 수세가 좋은 강물은 할바령골안으로 연연히 뻗어있었다.

승용차는 동불사, 로두구, 차조구를 차례로 골짜기를 끼고 올라갔다. 좌우로 산이 차츰 높아지고 물줄기는 좁아지면서 찬기운을 내뿜어 찜뭉치는 날씨인데도 전혀 더운줄을 모르게 하였다.

우리는 줄곧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산이든 물이든 마을이든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것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것들 모두를 익히고싶었고 영원히 기억해두고싶었기때문이다.

왕청에서도 그러했지만 안도현의 새 소재지, 지금은 명월진으로 불리우는 명월구로 가는 오늘은 더욱 흥분이 앞서고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도 무심히 대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심정이었다.

누군가가 짐짝에 있는 세부지형도를 잊고 왔다고 후회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인차 그것을 메꾸고도 남을만한 친절성에 접하게 되었다. 앞서부터 동행한 안내자가 설명을 말아나선것이다.

오른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넘어서면 1930 년대 초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에 널리 조직되었던 유격구들이 집중되었던곳이라 한다. 석인구와 왕우구, 삼도만과 가야허를 비롯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가 련달아있었다. 거기에 이름만 들어도 숭엄해지는 부암동이며 장재촌, 능지영이 있고 우리 인민정권의 원형인 인민혁명정부가 처음으로 섰던 사수평마울도 있고 토지개혁을 비롯

한 민주개혁이 실시되었던 력사의 땅이 있다고 한다.

반대쪽으로 나가면 련련히 백두산줄기에 잇닿은 어랑촌과 처창즈유격구가 나진다고 한다. 얼핏 보건대 산세는 그리 험한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산지대를 이룬 듅직하고 장엄한 기운을 력력히 풍기고있었다.

우리는 한낮이 좀 기울어 안도현의 새로운 소재지로 된 명월구에 도착할수 있었다. 직발 오면 80 킬로메터가 채 안되는 거리였지만 도중에 쉬기도 하고 설명도 듣다보니 시간이 걸렸던것이다.

《여기가 안도입니다.》

이미부터 우리가 안도에 오기를 그토록 바라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안도!》

《안도에 왔소! 명월구요!》

일행은 모두 감격해서 한마디씩 하였다. 일제히 차창밖으로 시선을 날리었다.

승용차는 바야흐로 안도현소재지 명월진의 복관을 꿰질러나가고있었다. 한쪽에는 기차길이고 한쪽은 자동차길인데 왼쪽에는 새로 꾸리고있는 거리이고 반대쪽은 옛거리 그대로였다.

자동차는 친구거리를 한바퀴 돌고나서 2 층으로 된 려관에 이르렀다. 려관에서는 안도현장과 몇몇 간부들이 우리를 따쫓이 맞이하여주었다.

잠간 휴식을 하고 저녁노을이 비끼였을 때 우리는 유서깊은 명월구를 돌아보았다. 거리는 흥성거리였다. 그중에서도 산간거리답게 정서를 둔구고있는것은 할바령하의 유유한 흐름이었다. 좁다란 골짜기를 빠져나오다가 문득 명월구라고 해서 강물도 잠간 정서를 펼치고있는듯하였다.

동쪽에 유한 산세를 보이다가 불쑥 하나 솟은것이 월출봉-달뜨는 봉우리이고, 서쪽에는 영월봉-달맞이 봉우리라는것이 있었다. 그 사이에 위치한 골안이 바로 명월구인것이다. 한때 이 지방을 웅석라가라고도 했다는데 아마 이 아근에 웅기구이가마가 있었던것으로 짐작된다.

항일무장투쟁의 시초가 열린 역사적인 12 월명 월구회의가 열렸던곳은 안도(명월구)거리에서 약 15 리가량 서북차쪽으로 가다가 오른쪽버딩에 위치하고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통나무로 방틀을 무어 길다랗게 지은 집이 네댓채 있었는데 회의는 한때 벌목군들의 숙소로도 리용하던 그 맨 마지막 집에서 열리었던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속삭이는듯 유정하게 울어에는 풀벌레소리를 들으며 발쪽에 난 오솔길을 깊은 생각에 잠겨 거닐었다.

문득 고개를 쳐들면 창호지를 바른 문틈으로 기름방등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때의 귀틀집이 서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옛추억만 고이 간직한채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발 최죽길이 뻗어있을뿐이었다.

바로 이자리가 당 및 공청간부회의가 열리었던 뜻깊은 장소다.

심양교외의 축대만이 설레이는 무연한 벌판 한가운데 류조구라는 한적한 역이 있었다.

1931년 9월 18일 새벽, 이 역에서 일본관동군놈들이 중국북천(심양) 북쪽교외에 있는 만철(남만주철도)선로폭발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9.18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미 목표물을 겨냥하고있던 일본제 총포가 울부짖었다. 중국의 동삼성만주땅은 완전히 관동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장작림이 탄 렬차를 폭파시킨것과 류사한, 수법에서 치졸하고 속심에서 극히 간악하기 이룰데 없는 방법으로 만주를 침공하면서 일제는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형용키 어려운 극악한 탄압과 착취를 감행하였다.

말그대로 앉아서 죽느냐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 조선인민은 일제의 야수적탄압에 폭력적진출로 대답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맞서 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예견성있는 사업포치와 정력적인 지도로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릴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고있었다. 혁명적무장력의 핵심적공간이 꾸리지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도 성과적으로 축성되어갔다.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야말로 항일혁명전쟁을 개시하는데 더없이 유리한 기회라고 판단하시고 항일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주사변》직후에 안도(송강)지구의 혁명조직책임자들의 모임에서 일제의 류혈적인 탄압만행에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대항하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를 밝히시고 그를 위하여 혁명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1931년 10월에 국내 종성일대에 나오시여 국내형편을 료해하시고 이 일대의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에게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모든 준비는 갖추어졌다.

바로 이러한 때 천리혜안으로 혁명의 먼 앞날까지 예리하게 내다보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기서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날은 1931년 12월 16일 저녁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림과 안도, 왕청, 연길, 훈춘, 돈화 등지에서 젊고 씩씩한 당 및 공청간부들이 모여왔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일제의 만주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조선인민의 반일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교훈을 분석하시고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독창적인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노전을 깔고 뜨끈뜨끈하게 불을 댕 끓다란 구들에 수십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모여앉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을 한마디한미디 가슴에 새겨넣으며 열심히 듣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선의 국경지대와 광활한 만주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한다면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적의 무력을 부단히 소멸약화시켜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조직문제, 유격근거지창설문제, 무장투

쟁의 대중적지반을 닦는 문제와 조종인민의 반일 통일전선형성문제 등을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타오르던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위업에 불씨를 달아놓았으며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의 시초가 열리게 되었다.

명월구는 이에 앞서 1931년 5월 좌경모험주의적 경향을 바로잡고 반일투쟁을 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토의한곳이기도 하다. 5월에 있는 명월구회의는 여기서 한 10 리가량 더 올라가서 어느 산전막에서 진행되었다 한다.

그리고 보면 명월구는 전략적의의로 되는 여러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뜻깊은곳이다. 이를테면 침략과 혁명, 강점과 해방의 리념이 이 명월구라는 지점에서 한계단 승화되어 맞닿은곳이라고 할수 있었다. 때문에 항일무장투쟁하면 곧 명월구와 그것을 련결시키게 되는것이다.

발족길은 고르롭지 못하였다. 하긴 그때는 여기에 길이 없어 무장투쟁로선을 받아안고 왕청으로, 훈춘으로, 화룡으로 남양과 온성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축대를 밟기도 하고 또는 영귀퀴그루를 부러뜨리기도 하며 걸었을것이다.

그들의 앞길에는 준엄한 생활이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여놓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 언덕, 그 나루터, 그 오두막들에서는 무장혁명에 대한 거세찬 불길이 타올랐다.

훈춘에서는 길목을 지켰다가 수송대를 까부시고 장총을 벗겨냈으며 나루터에서는 경관놈을 둘러메치고 보총을 빼앗아내었다. 화룡에서는 아낙네들이 지부령거리는 순사놈을 빨래방망이로 대갈통을 쳐서 뺏어내었으며 청년들은 상다리를 은지로 싸들고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고를 털어냈다. 로두구 약수동에서는 아이들이 경찰서창문을 넘어가 총을 들고 나오고 왕청에서는 짐을 저주다가 호미로 순사놈의 코허리를 찍어넘기고 총을 앗아들고 산으로 올리뛰었다. 이 모든것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있는데 모두 소사하로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장사진을 이룬 무장대오의 첫렬을 만들었던것이다. 그러나 명월구회의에 참가했던 그들을 단 한명도 만날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무장대오의 강화를 위해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쳤던것이다.

우리는 승엄한 감정에 잠기여 선렬들의 명복을 오래오래 빌었다.

그날 밤에는 푸실푸실 눈이 왔다고 한다. 그해의 첫눈이었을것이라고 하였다.

회의에 참가했던 몇명의 항일혁명투사들은 이길을 걸어서 량강구로, 푸르허도, 소사하로 갔을것이다. 이제 우리는 래일 그 자국을 따라 떠나게된다.

강가에 이르렀다. 뒤에서 자작자작 발걸음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어느 한 중년부인이 열살 되나마나 한 총각아이의 손목을 잡고 걸어오고있었다.

《아주머니, 여기서 소사하가 몇리나 됩니까.》

나는 이렇게 슬쩍 말을 던지고 인차 무춤해지고 말았다. 체속 궁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인데다가 혹시 저쪽에서 조선말을 모를수 있다는 위구때문이 있다.

녀인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선에서 온 손님이겠수다.》

함경도사투리가 더욱 정다왔다. 그렇다고 하니 녀인은 어느새 우리의 체취를 감각해서인지 조선에서 손님들이 자주 온다는것과 안도에 오면 소사하를 꼭 봐야 한다고 하였다.

《나도 이전에 소사하에서 살았수다. 거기에 강반석어머님께서 사시던 집이 있었지요. 무주툰언덕에 있던 묘를 옮겨갈 때 나도 가보았수다. 그 아군에서는 지금도 김일성장군님이야기, 강반석어머님이야기를 전설처럼 외우고있소다.》

녀인은 감회에 잠겨 말하고나서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자동차로 두시간이면 푼푼해요. 잘 다녀가시오다.》

녀인과 헤어지고나서 우리는 안도땅이 얼마나 이곳 사람들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숙소로 돌아왔다.

마당에서 기다리고있던 안내자가 래일은 소사하와 송강쪽으로 장거리행군을 해야 할터인데 피곤하겠다고 걱정해주었다.

《그렇지만 회의에야 <참가>해야지요.》

《회의라구요?》

《그렇습니다. 1931년 12월명월구회의지요. 무장투쟁로선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두 뜻있게 웃었다.

구름이 벗겨지면서 명월구의 월출봉우에 밝은 달이 솟아올랐다.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는 명월!)

나는 발돋움을 하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월출봉도 달맞이봉도 일시에 화답하듯 메부리를 높이 쳐들고 서있었다.

영원히 빛을 뿌릴 백두산전설

원도홍

전설이라고 하면 옛날로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날개옷을 입고 하늘을 나는 선녀나 신기한 도술을 부리는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와 보검을 든 장수들을 연상하게 된다.

《금강산팔선녀》도 그렇고 단군에 대한 전설도 그렇고 한나산의 백록담에 대한 전설도 그렇고 모두가 오랜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화와 전설에는 그 시기 사람들의 요구와 념원, 생활이 담겨져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경치좋은 명승지가 많은 나라로, 또 전설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있다.

금수강산 그 어디에 가나 전설이 없는곳이 없다. 금강산만 해도 수백을 헤아리는 전설이 있고 묘향산과 한나산, 지리산에도 술한 전설들이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내려오고있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고 어느 산보다도 숭엄하고 웅대한 기상을 품고있는 신비로운 조종의 산인데다가 백두산장군봉이라든가, 천지라든가 그 이름만 들어도 장수나 선녀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이 있음직한 산이다.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하고 백두산전설을 수집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일이 있었다.

량강도에는 한평생 백두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늙은이들이 많다.

그들가운데는 일제시기 처서판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고 화전을 일구어 부대기농사를 짓던 사람도 있고 포수노릇을 하던 사람도 있다.

지금은 백두고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있지만 그들은 거의다 일제때 살길을 찾아 앞지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먼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국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었다. 고향은 서로 달

랐으나 모두가 백두산 가까이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찾아가면 좋은 전설들을 많이 수집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곳이 보천읍에서도 팔십리나 떨어진 산골마을이었다.

마을 늙은이들은 내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 모두 어린애처럼 기뻐하였다. 이렇게 모여 앉으니 옛날 생각이 난다는것이였다.

지금은 모여앉아 모두 텔레비존을 보지만 그들이 어렸을때는 시꺼먼 내굴을 피여올리는 어스크레한 고콜불밑에 모여앉아 할아버지들의 옛말을 듣거나 구변좋은 이야기군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었다는것이다. 오래간만에 옛날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여앉으니 그때 일들이 추억되는 모양이였다.

마을늙은이들이 다 모여오자 나이가 제일 많은 할아버지가 좌상구실을 하려는듯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왜정때 백두산이야기를 많이 했수다. 그뉼 늙은이건 젊은이건 어린애건 모여앉으면 백두산에 큰 장수가 나타나 왜놈들을 치고있다는 이야기들을 신이 나서 했수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흰룡마를 타시고 백두산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도 하고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많은 장수들을 키우고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장군님께서 도술을 쓰셔서 왜놈들을 꼼짝못하게 녹여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백두산뒤에 백성들 모두가 다 잘사는 신기한 세상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했수다. 난 원래 말주변도 없는데다 이젠 다 늙어서 그때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외울수 없지만 저 《변호사아바이》는 지금도 잘할수 있을거웨다.》

여든이 가까운 좌상할아버지가 한 늙은이를 가리키자 말주변이 좋아서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은 아바이가 마치 기다렸던듯이 선뜻 나서서

《그럼 제가 왜정때에 들은 백두산전설을 한마디 하지요.》

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와서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며 한창 살판을 치고있을 때였다.

사람들은 더 살수가 없어 모두가 왜놈을 내쫓고 나라를 구원할 위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인 백두산에 하늘이 낸 큰 장수가 날개달린 흰 룡마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었다.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장수별이 높이 솟아 눈부신 빛을 뿌리는 백두산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두리가 300 리나 되는 큰 굴속에 들어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신기한 도술과 무술을 닦았다. 그들은 누구도 모르는 깊은 굴속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으로 잣아드는 도술도 배우고 한걸음에 몇백몇천리를 갈수 있는 축지법도 배우고 눈깜박할 사이에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또 수백수천사람이 되는 분신술도 배웠다.

그리하여 한사람이 수천수만의 왜놈들을 칠수 있는 장수힘을 키워나갔다.

왜놈들은 그것을 알고 백두산의 군사들이 도술과 무술을 다 닦기전에 없애버리려고 술한 군대들을 백두산으로 보냈다.

그런데 왜놈들이 백두산으로 기여오르자 요란한 우뢰소리가 파르릉 하고 울리고 사방에서 돌맹이가 비발치듯 날아왔다.

왜놈들은 눈이 켜해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주먹같은 돌맹이가 총알같이 날아와 왜놈들을 까둑히였다. 누가 어디서 무슨 조화를 부리는지 삽시간에 왜놈들을 모조리 쓸어눕히고말았다.

백두산에 기여올랐던 왜놈들은 한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왜놈들은 백두산으로 또 술한 군대를 보냈다.

이번에는 돌맹이를 피하기 위해 나무들을 방패로 삼으며 숲속으로 살금살금 기여올라왔다.

이때 백두산장군봉마루에 키가 후리후리한 림름한 장수가 흰 룡마를 타고 나타나시였다.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장군봉마루에서 숲속으로 기여오르는 왜놈들을 내려다보시고 권총을 높이 쳐드시여 쓰시였다.

땅 -

산밭이 찌르릉하니 울리게 요란한 총소리가 일어나자 잠잠히 서있던 숲속의 나무들이 굵은 가지들을 휘둘러 왜놈들을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그바람에 돌맹이에 얻어맞지 않으려고 숲속에 기여들었던 왜놈들은 모조리 쓰러져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왜놈들은 두번씩이나 무리죽음을 당하고도 백두산의 장수들을 그냥두었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아 또 술한 군대를 들이밀었다.

이번에는 숲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불태우면서 백두산으로 기여올라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장군봉에서 이것을 내려다보시고 하늘높이 손을 드시였다.

그러자 사방에서 구름떼들이 몰려와 억수로 비를 퍼부어 불을 끄고 왜놈들을 모조리 불바다속에 빠뜨려 수중고혼으로 만들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왜놈들은 **김일성** 장군님의 이름만 들어도 모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다시는 백두산에 기여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에서 술한 장수를 키우시고 왜놈들을 치는데 장군님께서 장수들을 거느리시고 백두산에서 나오실 때마다 왜놈들은 무리로 녹아나군하였다. ...

구변좋은 《변호사아바이》가 이렇게 이야기의 실머리를 떼자 늙은이들은 모두 옛날에 들은 이야기들을 상기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장수들을 이끄시고 하늘로 날아다니시면서 왜놈들을 죽치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술방울과 돌로 총알과 폭탄을 만들어 왜놈들을 쓰러눕힌 이야기 그리고 장군님께서 단풍잎을 띄워 그것을 타시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다니시면서 왜놈들을 죽쳤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한 늙은이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쓰셨다는 축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전술강의라도 하듯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신바람이 나게 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군사를 거느리시고 왜놈들을 치러 나가

실 때에는 언제나 축지법을 쓰시었는데 장군님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는 파도처럼 줄줄이 늘어선 산발들이 병풍이 접히듯이 다 접혔다가 쪽쪽 퍼지기때문에 한걸음에 수십리도 갈수 있고 눈깜빡할사이에 수백수천리도 갈수 있었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신기한 도술을 쓰셨기때문에 총알에 눈을 달아 왜놈들만 꼭꼭 따라가 맞히게도 하시고 종이에 그린 말을 타고 원수놈들을 죽치기도 하시고 눈깜빡할 사이에 군사들을 땅속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하늘로 솟아오르게도 하시었다는것이였다.

보천보에 나오실 때도 하늘로 날아오셨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 함남도에서 온 늙은이는 장군님께서 홍남비료공장합숙에 와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룡정에서 살다가 온 늙은이는 장군님께서 룡정병원에 오셨다가 가신 이야기를 하였다. 개성에서 온 늙은이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해방전에 개성에 오시여 남대문에 일본이 1945년에 망한다는 방을 써붙이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정말 믿는듯이 말하였다.

늙은이들은 저마다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살던고장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바람에 나도 어렸을 때 평양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왜정때 평양에서도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때에 장군님께서 평양에 나오셨다가 가셨다는 이야기를 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평양에 오셔서 왜놈순사들을 처단하고 상수구리에 있는 구름다리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아이들은 장군님께서 둔갑술을 쓰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장군님께서 신기한 용수철이 달린 신을 신고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늘로 날아오르신다고 하면서 서로 제가 옳다고 경쟁이질을 하던 일이 추억된다.

우리는 그때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철부지였으나 장군님의 전설적이야기는 모두가 다 잘 알고있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전설을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장군님을 뵙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장수별이 빛나는 북쪽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곤하였다.

우리는 장수별을 우러르며 백두산의 장수가 되려는 꿈도 꾸었고 축지법을 배워보겠다고 동무들과 같이 대동강모래밭에 나가 바지가랭이에 무거운 모래를 넣고 달리기도 하였던것이다.

나는 그때 백두산장수가 다 된듯이 신이 나서 달리면서 전투놀이를 하던 꼬마들의 모습들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지금은 다 늙은이가 되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받들어모시려는 마음은 벌써 그때에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혔던것이다,

그러기에 5천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전설적인 영웅으로 높이 우러르며 수많은 전설들을 창조해냈던것이다.

백두산은 수수만년전에 화산분출로 생겨난 아주 오랜 산이다. 하지만 백두산에 깃든 빛나는 전설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때에 비로소 수많이 생겨났다.

때문에 백두산전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왜놈들을 죽치시던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있는것이다.

세상에는 전설도 많고 신화도 민화도 많지만 백두산전설과 같이 것처럼 짧은 기간에 이처럼 수많은 창조된적은 없고 이처럼 널리 퍼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쥔 레도 없다.

실로 백두산전설에는 오직 **김일성**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장군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큰 장수로 그리고 별의별 조화를 다 부려 왜놈들을 꼼짝못하게 하는 위대한 분으로 흠모하여 마지않았던것이다.

때문에 나는 말하고싶다.

백두산전설은 **김일성**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백두산의 장수별처럼 눈부신 빛을 뿌릴것이라고...

김일성경기장을 찾아서

차명문

나는 얼마전에 새로 개건확장된 **김일성**경기장에 깃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하여 이 공사를 맡아 수행한바 있는 설계가, 시공일군 등 건축가들과 함께 **김일성**경기장으로 향하였다. 4월의 봄, 꽃피는 계절이다. 활짝 피어나는 살구꽃, 벚꽃, 개나리꽃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모란봉기슭, 웅장하게 자리잡고있는 **김일성**경기장은 한쪽의 그림처럼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화려하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자랑하는듯 축구, 탁구, 체조조형, 권투를 내뿜한 여러점의 체육조각을 생동한 화폭속에 펼쳐보고있는 드넓은 입구도로 앞마당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단장한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온갖 꽃이 만발한 향기그윽한 화원속에 묻힌 **김일성**경기장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 사적이 깃들어있는곳임으로 하여 더욱 숭엄하게 안겨왔다.

우리가 이곳 관리일군의 안내를 받아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기념일이 가까와오는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집단체조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많은 학생들이 또하나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쳐놓고있었다. 여러가지 아름다운 무용복에 손에는 각가지 소도구들을 들고 나풀나풀 춤추며 돌아가는 학생들이 씩씩이 설레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문득 작년 가을 어느날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던 외국의 한 수반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끝난후 집단체조 《빛나는 조선》을 관람하던 때일이 생각키웠다.

자주적인 발전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인민의 반세기 혁명력사를 조형예술적형상속에 펼쳐보이는 수만명이 참가한 대집단체조로 하여 그날도 경기장은 우리 인민들의 환희에 찬 끝없는 행복과 끓어오르는 랑만에 넘쳐있었다. 씩씩이 펼쳐지는 장면장면마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희열과 랑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보살피심과 사랑속에서는 우리 인

민들의 일상생활이고 참모습이라 생각하니 가슴은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부풀어올랐다.

이런 생각속에 잠겨있던 나는 우리와 동행하던 한 시공일군의 감동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정말 여기 경기장을 완전무결하게 꾸리기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울이신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와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댔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1981년 7월 17일이였다.

이날 관계부문일군들을 마주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사적이 깃들어있는 모란봉경기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만대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창조물로 완성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 곳에 개선문을 세우고 이제 모란봉경기장까지 새롭게 꾸려놓으면 그 일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곳으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추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경기장을 개건확장하자면 관람석계단도 지금보다 더 높이고 지붕도 썩워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새로운 경기장형성의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모란봉경기장을 이렇게 개건확장할 데 대하여 밝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려는 숭고한 뜻과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체육문화 시설을 마련하여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체육시설들과 기구들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건설하고 마련해주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로부터 두달 후인 9월 17일에는 지정이 넘도록 그동안 설계가들이 만든 새로운 경기장형성시안을 보아주시면서 종래의 구조물을 헐고 경기장폭을 더 넓히어 주석단 맞은편 관람석에는 광폭영사막과 같은 배경대도 만들며 경기장바닥도 훨씬 낮추어 체육경기뿐 아니라 집단체조를 하기에 편리하게 개건확장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우리는 경기장관리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경기장 내부시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선수들의 휴게실, 피로회복실, 각종 육체훈련실, 선수들의 침실로 구성된 내부설비는 백수십개의 방으로 구성되어있어 선수들의 편의를 훌륭히 도모해 줄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는 여러개 육체훈련실에서 집단체조 독연자들의 훈련모습도 보았다. 각종 체육기재에 매달려 쉼쉴 돌아가거나 땀판에서 순식간에 튀어올라 공중전회를 하며 온갖 재간을 다 부리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곳을 나선 우리는 관리일군을 따라 경기장바닥에 내려섰다. 폭신평탄한 풀색 경기장바닥은 볼수록 아늑하고 정결하였다. 바닥이 이처럼 잘 꾸러짐으로써 모든 체육선수들이 그 어떤 자연계절적 제한도 받지 않고 임의의 시각에 경기를 진행할수 있게 된것은 물론 그 어떤 집단체조도 훌륭히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완벽한 《무대》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를 안내하던 관리일군은 경기장의 지붕이라고 할수 있는 거대한 은빛채양을 가리키며 말을 하였다.

《저 채양을 보십시오. 세계에 보기드문 저 채양에도 우리 인민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

새로 개건확장되게 되는 **김일성**경기장에 지붕을 씌울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설계가들은 처음 형성시안에 세계추세대로 12미터길이의 채양을 예견하였다.

이것을 헤아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남의 나라것을 기계적으로 본따지 말고 관람자들이 비와 햇빛도 충분히 가릴것을 목적으로 한 채양은 더 길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숭엄한 뜻을 뜨겁게 새기게 되는 설계가들은 큰마음을 먹고 그후 거의 배로 늘어 채양보를 만들어 일부를 조립하도록 하

였다. 건축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을 실현한것으로 하여 만족감에 넘쳐있었다.

그러나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채양의 길이를 여러모로 가늠해보시더니 아직도 짧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시 더 늘어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건축가들은 참으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가슴뜨거워 올랐다.

채양이 더 연장되는데 따라 채양보에 실리게 될 짐의 무게를 우려하고있는 설계가들의 심중을 간파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지붕과 천정재는 모두 경금속으로 해도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순간 건축가들은 전문가들도 미처 따를수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발치는 비범한 예지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참으로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경기장을 마련하여주시려고 그토록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귀한 은정에 가슴만 뜨겁게 달아올랐다.

실로 행복의 요람인듯 폭신평탄한 푸른 바닥과 층높이 늘어난 관람석계단에 배열된 수만개의 개별 의자들 그리고 볼수록 미더운 은백색채양, 이 모든것에는 우리 인민들을 것처럼 귀중히 여기시여 하나를 주시면 열을 더 주시고 열을 주시고는 백을 더 주지 못해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다. 하여 사람들은 경기장을 가리켜 한없는 《은정의 집》이라고, 저 채양을 두고 《사랑의 지붕》이라고 노래하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경기장관리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주석단으로 향하였다. 당시 설계를 말아한바 있는 한 설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흥분하여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주석단이 경기장내부구성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자기 자리를 정확히 차지하게 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가르치심이 계셨기때문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1982년 2월 16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축원을 울리고있는 이 뜻깊은 탄생기념일인 오늘날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도 마다하시고 현지에 나오시여 경기장이 훨씬 확장되는데 비하여 주석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것을 간파하시고 주석단위치를 훨씬 더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경기장형성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될 주석단 위치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제때에 바로 정하여지게 되었던것이다. 뚫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이야기에 심취되었던 우리는 건축설계가로부터 경기장의 조형적형상의 특징과 의의에 대한 이야기도 감명깊게 들었다.

《저 하나의 일직선상에 완숙한 조형미를 갖춘 채양을 보십시오. 그날 현지에서 실무지도를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채양의 높이가 주석단, 관람석, 배경대에 따라 세층으로 구분되어있는것을 발견하시였습니다.

당시 경기장내부가 관람석과 배경대 그리고 주석단으로 구성되어있는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작성한 우리 설계가들의 설계에 따른것인데 오히려 그것은 조형적으로 조잡한 결과를 가져왔던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것은 마치 모자를 올려 쓴 사람과 눌러 쓴 사람 그리고 모자를 제껴 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선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근엄하신 표정으로 우리가 경기장을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기념비적건축물로 손색없이 꾸리자면 이제라도 채양조직을 바로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채양은 모두 관람석채양과 일치시키라고 하시며 한손을 높이 드시여 넓은 하늘에 커다란 원을 단번에 쏘고 그 어보이시는것이였습니다.

순간 건축가들은 강렬한 충동속에 그이를 경모하여 숨엄히 우러렸습니다.

오늘 거대한 공간상에 원활한 하나의 환곡선조형미를 이루면서 경기장의 웅장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채양조직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날 이렇게 푸른하늘에 대고 힘있게 그어주신 그 손길에 의해서 솟아난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명하게 밝혀주시고 빛나게 이끄시여 경기장이 완공되어가던 나날은 우리 나라 건축력사에서 또하나 잊을수 없는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나날이었다. 주석단과 관람석, 배경대 등 경기장내부의 갖추새가 이처럼 훌륭하기때문에 외국의 벗들은 이렇게 경기

장구성조직이 아주 잘 짜인 경기장은 세계에 보기 드물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기장이 도시형성상 주위건축물들과 잘 어울리게 할데 대한 문제에서도 심중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개선거리 기본건축물인 개선문과 경기장이 대칭되게 하고 특히 개선문 측면 중심축과 경기장중심을 일치시키여 본래 약간 돌아앉았던 경기장을 바로잡고 커다란 발통우에 웅장한 기둥들을 세우고 조선건축양식의 처마형식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문형성의 여러가지 양상을 경기장 앞면에 그대로 옮겨 서로가 잘 어울리게 하신것과 입구도로를 폭넓게 열어 개선거리 대통로와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경기장이 말그대로 개선거리형성에서 중심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게 하신것도 다 그이의 명철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확장된 경기장이 풍치 아름다운 모란봉을 누르거나 가리우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경기장바닥을 낮추면서까지 경기장을 개진확장하도록 하시였다.

오늘 개선문쪽에서 **김일성** 경기장을 바라보노라면 울창한 수림속에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하고있는 모란봉은 웅장화려한 경기장을 한품에 안고있는듯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벽차오르는 감정을 금할수 없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체육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창조와 건설의 나날에 바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빛나는 예지, 그 숭고한 사랑의 은정에 떠받들리워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김일성** 경기장, 해빛 넘치는 화창한 이 봄날 향기그윽한 화원속에 묻히여 한결 아름답게 단장한 경기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더욱 복돋아주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간직하고 역세게 살아갈 결의에 충만되어 경기장을 나섰다.

조국을 떠나 먼곳에서

김정남

《뿌-웅》 《뿌-웅》 드넓은 항구의 가박지에 닿을 내리고있는 대형집배 《순천》 호에서 울리는 기적소리는 정다운 조국의 기슭으로 돌아온 선원들의 기쁨에 넘친 목소리인양 항구도시의 저멀리로 울려가고있었다.

나는 항해지휘를 마치고 조타실에서 내려온 강승환선장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적도의 찌는듯한 폭양에 등실한 얼굴은 구리빛으로 타고 대양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나날에 머리에 흰서리가 불리운 선장, 그는 애젊은 나이의 청춘시절부터 배를 탄 사람이다. 그에게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좋은 글감을 많이 취재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선장은 자신에 대한 말을 꺼내는것을 쑥스러운일로 생각하는듯 열적은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충구한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그리고 보면그 역시 《배군》이지만 소박한 인간미가 풍기고있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취재를 도와준것은 때마침 응접실로 들어온 《순천》 호의 정치부장이 였다.

《우리 선장동무가 가지고있는 <항해 일기집> 을 보면 알겠지만 선장동무가 공화국기발을 대양에 휘날리며 달려간 배길은 지구를 여러번 돌고도 남는 거리지요.》

선장의 《항해일기집》에는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대양만리로 달려간 배길들과 항구들이 적혀있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양들과 바다와 해협들 그리고 운하와 항구들 안가본곳이 없고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이나 다녀온 항구들.

《<항해일기집> 에 적혀있는 배길을 따라가며 이야기 듣자면 며칠 품을 잘 들여야 할겁니다. 이번 항차에 있었던 이야기는 항해사들에게 들어도 실감이 있을겁니다.》

나는 정치부장의 말대로 1 등항해사 리득훈동무를 만났다. 리득훈동무는 해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1. 격파

《순천》 호가 조국의 항구를 떠난지도 어느덧 달포가 흘러갔다. 대양으로 항행하는 항해가들에게 있어서 45 일, 그것은 긴 나날이 아니다. 때로는 1

년이 넘어 조국의 항구로 돌아올 때도 있다. 선원들에게 있어서 기적소리로 항구를 울려놓고 떠나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한달이 아니라 한주일이 흘러갔어도 사무치게 가슴에 안겨온다. 선원들은 조국이 그리울 때면 마스트에서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조국을 그려본다. 공화국기발을 볼 때면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대양만리에 펼칠 불타는 맹세가 심장에 새겨진다. 그리고 조국의 기슭을 떠나 멀리에 왔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그 기슭에 닿을 내리고있는 심정이다. ...

동남아세아의 여러 나라 항구들에 들렀던 《순천》 호는 인도양을 넘어섰다. 이 바다는 류달리 붉은 색깔의 해조류가 많이 생겨나고있는곳이였다.

선장 강승환은 벌써 2 시간나마 조타실에서 항해를 지휘하고있었다. 그에게는 이 바다가 생소한 바다가 아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수년나마 폐쇄되였던 수에즈운하가 개통되던 그날에 (그때는 《혁신》 호선장이였다.) 첫번째로 운하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이 바다로 향하였었다. 그리고보면 이 바다는 선장에게 있어서 새로운 항로가 아니다. 그는 이 바다의 아름다운 산호무지와 굽등어떼를 따라 떼지어 날고있는 날치를 구경하느라고 조타실을 떠나지 않고있는것이 아니였다. 벌써부터 해도와 항박도에서 침로를 눈에 익힌 항구였다.

《순천》 호가 입항하여야 할 이 나라에서는 보름전에 미중앙정보부의 각본과 지령에 따라 군사정변이 일어났었다. 미제의 지휘봉에 따라 나라의 정책들이 실현되어가고있는 이 러한 나라의 항구로 《순천》 호가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입항하여야 하는 것이다.

선장은 자기 회사에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 조선서해해운회사앞.

우리는 조국의 영예를 끝까지 지켜낼것이다. 선장 강승환》 ...

어느덧 《순천》 호는 항구의 가박지를 향해 침로를 잡고있었다.

《키 좌로 20 도!》

《키 좌로 20 도!》 선장의 구령소리를 복창하며 조타를 재빨리 돌려놓고 타각지시기를 쳐다보는 기준조타수 홍서호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강승환선장은 침로를 지시하면서 통신장이 가져온 기상예보자료를 훑어보곤하였다. 그는 벌써부터 이 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불길한 날씨의 징조를 기상예보자료들과 바다모양에서 느끼고있었다.

불비처럼 내려쪼이는 해별에 노그라진듯 잔잔한 바다의 물결, 날새들이 자취를 감춘 바다, 바다는 그 어떤 신기루와도 같은 현상을 배태하고있었다.

강승환선장은 이러한 때에는 닻을 내리고있다가 항해를 계속하는것이 안전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런데 항당국에서는 즉시 가박지로 입항하여 수로안내원을 맞이하라는 무선전화를 보내오고있었다. 조금만 침로를 잘못잡으면 좌초할수 있는 협수로였다. 수로공보에는 이 협수로에서 최근년간 수십척이 배가 좌초하였다는것을 알려주고있었다. 날씨가 바야흐로 불리해질수 있는 때에 이러한 협수로로 배를 몰아가는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데 항당국에서는 수로안내지점에 즉시 도착하라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호혜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음흉한 모략이 내포되어있는것이였다. 물론 닻을 내리고 기다릴수도 있다. 그러나 항당국에서 그것을 구실로 입항을 불허하거나 배를 억류하려고 할수도 있는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도발할수 있는 사소한 구실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정황을 예리하게 포착하고있던 강승환선장은 《침로 그대로!》라는 구령을 주었다. 선장의 구령을 받아외우며 전령기를 《중속》 위치에 끌어당겨놓고있는 2 등항해사의 얼굴에 어려있던 동요의 빛이 사라졌다. 2 등항해사도 조타수도 선장의 힘있는 목소리에서 굽힘없는 신심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순천》호는 협수로의 첫 부표지점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 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붉은 모래폭풍》이라고 부르는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예상하였던바대로였다. 강승환선장은 즉시 1 등항해사를 선두로 내보내어 부표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붉은색을 띤 모래기둥의 회오리가 바다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선두에 나간 1 등항해사에게서 부표를 볼수가 없다는 보고가 무선전화기를 통해 달아왔다. 갑판은 한치앞도 가려볼수가 없었다. 전파탐지기조차 부표들을 밝혀내지 못하고있었다.

강승환선장은 항당국에서 이러한 순간을 기다리고있다가 배를 급히 가박지로 유인하려고 하였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그때에 배는 그만에야 모래밭에 올라앉게 되었다. 선장에게서 이러한 일은 처음이였다. 수백척의 배들이 침몰되었다는 말라까해협도, 희망봉의 주변바다도 그리고 그 어떤 태풍에도 배를 안전하게 몰아온 그 였다. 그는 항당국에 배가 세번째 부표지점을 통과하다가 좌주하였다는것을

통고하였다. 《붉은 모래폭풍》은 30 분나마 바다를 휩쓸고 사라졌다. 바다에는 언제 그러한 광란적인 폭풍이 불어쳤던가싶으리만치 정적이 깃들었다. 갑판우에는 모래가 신발이 잠기도록 내려앉았다.

조타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배의 조난을 놓고 모두가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동무들, 배는 좌주되었소. 그러나 신심을 잃어서는 안되오. 배를 빼내어 놈들의 도발을 짓부시고 뿔뿔이 항행해야 하오.》

조타실에 서린 무거운 공기를 몰아내듯 선장의 목소리는 저력있게 울렸다.

선장의 얼굴에는 동요와 주저의 빛이란 조금도없었다. 여전히 신심에 넘쳐있는 얼굴이였다. 바다와 더불어 담을 키워온 선장이였기에 배가 좌주되었다고 신심을 잃을 그가 아니었던것이다.

그는 통신장을 불러 배가 《좌주》되었다는것을 조국에 알릴것을 지시하고 배를 구조하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이런 때 항당국에서 구조선을 보내주겠다는 무선전과를 보내왔다.

《예선을 보내주겠음. 구조비 x팔라에 대한 담보를 알려줄것...》

막대한 액수의 구조비였다. 모래폭풍을 앞둔 때에 항구으로 입항을 요구한 놈들의 음흉한 기도를 벌써부터 꿰뚫어 보고있던 강승환선장은 그 요구를 거절해버렸다.

그의 가슴에서는 미제놈들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영예를 떨칠 신념이 더욱 불타올랐다.

해빛이 따갑게 내려쪼이는 무더위속에서 배를 구출하는 전투는 낮과 밤을 이어가며 계속되었다.

이러한 때 조국에서는 홍해로 항행중이던 《장자 산청년호》와 《봉산》호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항당국에서는 이 배들이 《순천》호가 있는 수역으로 접근하면 나포하겠다는 무선전화를 보내왔다.

강승환선장은 미제놈들의 도발책동에 굴하지 않을 신념을 불태우며 배를 구조하는 전투를 지휘해나갔다. 배의 구출작업은 련 삼일째나 계속되었다.

드디어 모래밭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던 배는 물 위에 등실 떠올랐다.

《만세!》 선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불렀다. 배가 항구로 입항한다는 전보를 받은 조국에서 축하의 전보를 보내주었다.

《... 《순천》호앞. 조국의 영예를 지켜낸 동무들을 축하한다! ...》

《순천》호는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항구의 가박지로 들어갔다. 수로안내를 담당하여 배로 올라온 항구의 수로안내원은 강승환선장에게 허리를 굽씩거리며 말하였다.

《어쩌면 당신들에게는 굴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좌주한 선박을 자체의 힘으로 구조하것은 보기도문 기적입니다.》

《저기 기발을 보시오. 저 기발은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족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강승환선장은 마스트에서 펄럭이는 기발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

1 등항해사의 이야기는 끝났다.

나는 《순천》 호의 러객실에서 강승환선장의 《항해일기집》을 펼쳤다. 《항해일기집》에는 강승환선장이 《혁신》 호 선장을 할 때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다.

2. 항로의 개척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배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해 및 강하천 운수망을 더 늘이고 철도와 수상 운수의 현대수송을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대외무역수송을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무역선들이 닻을 내리고 정박한 항구의 가박지로는 안내선들이 추진기로 물결을 뽀얗게 차던지며 달려가고있었다.

강승환선장은 조타실갑판을 거닐다가는 걸음을 멈추고 선미의 국기계양대에서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았다.

(공화국기발을 대양우에 휘날리며 국제항로로 《혁신》 호를 몰아가갈수 없단말인가? ...)

그의 머리속에서 줄곧 맴돌며 떠나지 않고있는 생각이 었다. 마스트쪽으로 눈길은 돌리는 강승환선장의 귀전으로는 자기 회사의 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려오는것 같았다.

《당에서는 선장동무를 믿고 <혁신>호 선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국제항로로 나가다가 미제놈들의<봉쇄>에 걸려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소.》

(그러니까 우리는 전이나 디름없이 가까운 이웃 나라들의 항구나 다니고 먼 나라들과의 무역은 용선을 할수밖에 없다는것이 아닌가?... 아니 그럴수가 없다. 당에서는 우리 항해사들을 믿고 이렇게 큰 짐배를 맡겨주지 않았는가!)

강승환선장의 이 생각은 자기 회사의 책임일군에게 하고싶었던 말이였다.

이때 마침 그 일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선장동무, 생각했소?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에 동무들이 싣고가는 화물은 시간을 다투어 여러나라

들에 실어가야 할 짐이요. 동무들은 조국을 떠나 먼 곳으로 간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저는 그렇기때문에 우리 <혁신>호로 직접 실어다주고 싶습니다.》

《그건 나나 선장동무나 그리고 항해사들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요.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국제항로로 나가는 항로를 미제놈들이 여러 해협에서 가로막고있지 않소. 그런데 선장동무는 그런 해협들로 배를 몰아가겠다는거요?》

《미제놈들의 책동을 잊부시겠습니까.》

《무역선으로말이요 ? ...조국으로부터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소.》

《저는 조국을 떠나 그 어느곳에 간다고 해도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의 책임일군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선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바다와 함께 담을 키워온 선장동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것이 참으로 놀랍소!》

그 일군의 눈길은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회사의 책임일군이 돌아간후 조타실로 들어간 강승환선장은 감시창앞으로 다가갔다.

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마스트 저멀리로 선수가 바라보인다.

문득 그이겐 이처럼 큰 짐배의 선장이 되었다는것이 놀랍기만한듯 가슴이 설레였다.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겼던 그 시절, 강승환선장의 어린시절은 짙은 뿔에도 해빛을 받지 못해 시들어가는 한그루의 나무인양 가궁한 인생이였다. 부대기발을 땀방울로 걸구어 지어놓은 난알은 지주놈에게 빼앗기고 먹을것을 구하려 함지를 이고 어데로인가 떠나는 어머니를 따라나선 강승환은 그날 처음으로 바다라는것을 보았다.

가없이 넓게만 펼쳐진 바다, 고기배들이 물켜있는 선창에서는 고기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를 도와 파도에 밀려나온 바다나물을 주으며 선창쪽에 눈길을 팔고있는 더벅머리소년, 강승환은 어른이 되면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어머니의 함지에 가득가득 채워주리라 마음다졌다. 해방이 되어 조국은 그에게도 빛을 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해빛밝은 대학의 강의실들과 바다와 무역선, 조국은 그를 무역선의 선장으로 키워주었다....

선수에서 눈길을 돌린 강승환선장은 조타실안의 항해기구들을 바라보았다.

전파탐지기와 로파수신기 ...

(당에서 우리들을 믿고 이렇게 큰 짐배를 맡겨주었는데 미제놈들의 《해상봉쇄선》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전과 디름없이 가까운 이웃나라들의

항구로만 다니는것은 당의 믿음에 보답하는 혁명전사의 의리가 아니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마스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그 어떤 태풍이 앞을 가로 막는다고 해도 끄떡없이 배를 몰아갈 신념이 불타오르고있었다.

머칠이 지나갔다. 미제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국제항로를 개척하려는 선장의 결심대로 《혁신》호가 조국의 기슭을 떠나는 날이 오고야말았다.

뿌-웅! 우렁찬 기적소리로 항구를 울리며 출항의 닻을 올린 《혁신》호는 마침내 문제의 그 해협이 수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미제놈들은 《혁신》호가 국제항로로 나가는것을 한사코 막아보려고 포사격을 퍼붓고 함선들과 비행기까지 출동시켰지만 선원들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공화국기발을 대양만리에 휘날리며 국제항로로 나가는 첫 항로를 개척한 《혁신》호 선원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충성의 전과를 조국으로 날려보냈다.

3. 사랑의 항로

숨막힐듯한 열대의 폭양은 오늘도 불비를 쏟아붓고있었다. 《혁신》호는 인도의 마드라스항구를 향해 달려가고있었다.

오래동안 해도실에서 해도를 보고있던 강승환선장은 조타갑판으로 나왔다. 대양의 물결은 고르로이 출렁거리고있었다. 이런 때면 생각이 깊어진다. 그의 가슴속에는 잊을수 없는 사연이 간직되어있었다. 뜻깊은 그 사연을 이야기하듯 출렁이는 물결도 저렇게 소리없이 설레이고있는것이 아닌가!

첫 항로를 개척한 때로부터 세월은 여러해 흘러갔다. 그 세월의 항로우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해발이 언제나 파사롭게 비쳐오고만있었던것이 아닌가.

어느덧 선장의 눈앞에는 감격의 그날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혹해의 검푸른 물결을 헤치고 달려온 《혁신》호는 벨가리아의 와르나항에 닻을 내렸다.

벨가리아를 방문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와르나시에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것은 《혁신》호가 항구에 닻을 내린후 이틀째되는 저녁무렵이었다. 강승환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와르나시의 이름난 화초원에서 가져온 꽃다발을 들고 환영의 꽃바다가 펼쳐진 거리로 달려나갔다.

이윽고 와르나시민들의 흠모에 넘치는 마음의 창문들이 활짝 열린듯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오르며 꽃바다가 넘실거리고있는 연도의 한복판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무개차가 서서히 다가오고있었다.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환

영군중대렬앞을 지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혁신》호 선원들을 알아보시고 차를 멈추시고 손저어 선원들을 불러주시였다. 랑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달려나갔던 강승환선장은 무개차가 있는곳에서 몇걸음 떨어진곳에 멈춰섰다.

《<혁신>호 전체 선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접하기 위해 ...》

번쩍이는 해운모채양에 손을 정중히 올리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인사를 올리던 강승환선장은 그 만에 목이 메여 뒤말을 잇지 못하였다. 선원들이 어버이수령님께 꽃묶음을 드리였다.

《우리 <혁신호>선원들이 왔구만! 미제놈들의 《해상봉쇄선》을 뚫고 대양우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린 항로의 개척자들이 환영하러 나왔소!》

어버이수령님께서선원들을 가까이로 오라 하시며 손을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품에 안긴 선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 험한 풍파를 뚫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들이 많았겠구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대양만리우에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며 달려온 《혁신》호 선원들의 수고를 헤아려보시는듯 그들의 얼굴을 대견히 바라보시다가 강승환선장의 어깨우에 한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선장동무가 수고가 많았소. 앓는 동무들은 없소? ... 한사람도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조국에 돌아와야 하오. 나는 동무들을 조국에서 기다리겠소.》

어버이수령님의 다정하고 자애깊으신 말씀이 강승환선장의 심장으로 흘러드는데 무개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

강승환선장에게는 세월이 흘러갔어도 오늘도 발칸반도를 뒤흔들며 올라가던 그 환호성의 메아리속에 안겨온 사랑과 영광이 가슴에 넘쳐나는것만같이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올랐다.

와르나시민들의 그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셔야할 영광의 길을 멈추시고 그도록 크나큰 사랑과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있어 대양만리에 영광만이 넘쳐나는것이 아닌가!

×

강승환선장의 《항해일기집》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는 이야기들은 조국을 떠나 그 어느곳에 가있어도 영광으로 넘친 대양만리에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떨친 자랑스러운 화족들이였다.

긴급수송이 끝나뒤

정해경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래일을 기다릴것이다. 더구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에 들어서면 가슴속에 행복의 수레라도 굴러가는듯한 흥분 기분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그 감정의 하나는 삶의 년륜속에 새겨진 생활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서정곡의 선율과도 같이 즐겁고 아름다운것일게고 다른 하나는 새해에는 무엇인가 꼭 이루고싶은 희망과 욕망이 신기루와도 같이 눈앞에 언뜻거리기 때문일것이다.

이마도 그것은 어린시절 어머니들이 동심속에 심어준 새해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의 지속되는 흐름인지 ...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탄광기계공장의 기술부기사장이란 직책을 안고있는 최관준은 언제 그런 감상적인 생각에 잠겨볼 겨를이 없었다.

종합채탄기 문제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고보니 지나온 한해가 공허하게 생각되었고 박두해오는 새해가 두렵기만 했다.

팔목에 감긴 시계소리가 증폭되어 혈관을 타고 뇌리속으로 육박해들면서 이해의 남은 시간을 전자시계의 수자판처럼 관준의 눈앞에 새겨놓았다.

이 해는 이제 세번의 낮과 네번의 밤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해안으로 석대의 종합채탄기를 완성하여 새해에 탄광들에 보내주겠다고 한 탄광기계공장 계획이 연평전기공장에서 대형전동기를 싣고오던 자동차의 간단히 수리할수 없는 고장으로 암담하게 되었다.

그 출로를 모색하기에 골을 짜고있는 최관준은 결승테프를 눈안에 두고 발목을 접질린 룡산선수처럼 난처한 립장이 된 자신을 통감하고있었다.

탄광기계공장에서 만들고있는 종합채탄기 생산 문제는 단순히 한개 공장에 국한되는 계획문제가 아니였다. 한개의 막장을 통채로 틀고앉아 한면벽을 한꺼번에 털어내게 될 쌍원통식종합채탄기는 생산능력으로 보나 중량상으로 보나 현재의 채탄기 기계들과는 대비도 되지 않게 어마어마한 기계였다. 이 종합채탄기의 출현은 우리 나라 탄광기계제작공

업에서나 석탄공업발전에서나 하나의 거대한 계기점으로 될것이였다.

이런 종합채탄기의 조립이 끝나감에 따라 온 공장의 초점이 전동기에로 쏠리고있는 때에 대형전동기를 싣고 떠난 먼거리수송사업소차가 고장으로 주저앉아 전보를 보내온것이다. 전보를 친곳은 통천농기계작업소, 이곳에서 600여리길이 되는곳이다.

이제 제아무리 긴급수송을 한다쳐도 오고가는 시간과 조립시간을 합치면 이해의 남은 시간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게다가 먼거리수송사업소차들은 몽땅 연말 집중수송중이어서 옆친데엃친격이 된것이다.

오직 한가닥 전망이랄가 기대를 걸수 있는것은 공장자체로 자동차수송을 조직하여 맞받아나가 싣고오는길이다.

그래서 관준은 운수직장에 포치를 하긴 했으나 그 기대의 실마리우에 덮쳐드는것이 먼거리수송차의 고장으로 보아 대형화물자동차를 끌고 수백리 눈길을 헤쳐가고 오고 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였다.

종합채탄기의 최종조립을 보상하자면 자동차가 가고오고 고속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은 이해의 남은 시간이 주는 답이다,

그래서 관준은 운수직장장에게 운전사선발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도록 지시를 주었다. 그러나 한번 실패를 본 자동차수송으로 종합채탄기의 결과를 보자는것이 미지수가 달리는 수학문제를 풀 때처럼 뒤가 껄름직하게 생각되였다. 그래 관준은 무슨 뼈어진 방도가 없을가 해서 공장일군들을 사무실에 불러놓고 토론을 하던중이였다.

철도에 호소하여 최우선권을 얻어보자는 안, 기술자들이 기차편으로 나가 고장난 전기공장차를 수리해가지고 들어오자는 안, 누구는 공업의 식량이라는 탄의 특수권을 내대고 헬리콥터를 불러오자고 웨쳤다.

그러나 이안들은 시간을 얻는데서나 그 현실성면에서나 자동차수송을 조직하는것보다 더 전망적인 안이 못되였다. 처음에는 당장 전동기 실은차를

공장마당에 끌어다놓을듯 무슨 탄성제처럼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의 창고가 비었는지 연방 담배대만 갈아대며 관준의 기색을 살폈다.

그들의 기미로 보아 그래도 탄광들이 명줄을 걸고있는 큰 탄광기계공장의 기술부기사장이란 사람이 그리도 막막하랴 하는 심산이었다.

이제는 관준의 머리도 석고처럼 굳어져 좀처럼 생각을 띄워주지 않았다. 관준은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통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관준은 사무실에 짝 찬 일군들을 마주하고 있기가 답답하여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희미하게 명멸하는 구내야외등들에 비치여 눈에 안겨오는것이 밖에서 서성거리고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이해 공장의 목표로 내걸었던 종합채탄기의 운명을 두고 그들도 기술부기사장실에서 무엇인가 가슴이 열리는 해결책이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모양이었다.

어디서 눈가루를 띄워가지고 달려온 바람이 사무실창문을 두드리다가 방안의 동정을 살피듯 처마밑에 매달려 발풍금소리처럼 봉봉거렸다. 이어 노성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관준은 열결에 창문가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갑자기 사나워진 바람이 창문을 부시고 들어와 종합채탄기를 내놓으라고 매를 들것 같은 환각이 떠올랐던것이다.

이때 누가 출입문을 들썩하게 두들겨댔다. 이것은 바람의 장난과는 다르게 관준의 신경을 또 자극했다.

관준은 내뺨는다기보다 끌어당기는듯한 어조로 《누구요?》 하고 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이 둘러앉은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보였다. 그러나 전등빛이 덜 미치는 문앞에 선 그가 누구인지 인차 가려볼수 없었다.

크지 않은 키, 상체에 비하여 불균형적이라고 할만치 어깨가 좌우로 퍼져나간 체구, 평퍼짐한 코날개우에 무슨 검은 신호등처럼 번쩍이는 두눈, 관준은 그제야 그를 알아보았다. 대형화물자동차 91호 운전사 서영선이였다.

《무슨 일이요?》

관준의 목소리는 무엇에 겁나하듯 조심스럽게 울렸다.

《부기사장동지, 떠나지 않겠습니까?》

애연가들의 목소리처럼 좀 탁성인 그의 음성이 무슨 개혁의 종소리처럼 방안의 분위기를 회복시켜주었다.

《음... 동무가 가요?》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관준의 얼굴에 일순 미소같은것이 비꼰다가 무엇에 쫓기듯 사라지더니 침울한 기색을 띠었다.

《나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운전사는 관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서둘러 문을 나섰다가 다시 풍만한 상체를 문턱 너머로 들여놓는다.

《정문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고는 밖을 나섰다.

사무실안은 웅성웅성하며 삽시에 활기를 띠었다. 그런속에 키가 전주대처럼 격실한 채탄기직장장이 허리를 반쯤 펴고 일어섰다.

《아니 저 동무가 갑니까?》

그의 얼굴에는 불만기가 잔뜩 어려있다.

《저 동무가 형편없는 잠꾸러기라는거야 온 공장에 짜 - 하지 않습니까. 참...》

관준이 대답을 앓자 채탄기직장장은 의자에 되는대로 몸을 던지더니 호주머니에 두손을 넣고 부시럭거리며 껌입을 다시였다.

채탄기직장장의 말은 관준에게 불쾌한 지난 일을 상기시켜주었다.

작년 여름, 그때는 화물역에 도착한 물동량이 많아 운수직장의 대형차들도 총동원하여 짐중수송을 했었다. 그런데 밤도 아닌 대낮에 91호운전사인 서영선이 깜틀깜틀 줄다가 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마침 우전칸에 동승하고 수송지휘를 하던 관준이 재빨리 정황을 판단했기에 그만도 다행이었다.

차부속때문에 온밤 돌아눕다는것을 후에야 알았지만 언제 보아도 서명선은 잠이 모자라하는 기색이었다. 관준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오금이 짜릿해진다. 하지만 일군들앞이라 조금도 내색을 말아야 했다.

《나쁜 일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되요? 운수직장에서 그 동물 선발했을 때야 보는것이 있어 그랬을게 아니요.》

관준은 이렇게 말했으나 자신도 서영선이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아주 지워버릴수는 없었다. 그의 이런 기색을 살폈던지 채탄기직장장이 한마디 더 토설했다.

《그 동물 고려해봅시다. 씨름에서 지면 다시 해 볼수도 있지만 이번 일이야 공장의 중대사가 아닙니까... 더구나 요즘엔 우리 직장의 어느 처녀와 정분이 나가지구 때아닌 봄바람에 봄- 떠서 다닌다는 소문두 있어 내 좀 알아보려던 참입니다.》

관준은 저도 모르게 채탄기직장장의 말에 귀를 강구다가 찔 눈을 흘기었다.

《또 쓸데없는 소리... 총각처녀가 사랑하면 좋은 일이지.》

한동안 덤덤히 서있던 관준은 수송조직때문에 직장에 나간 운수직장장을 전화로 찾았다.

《전동기수송에 서영선동무를 보내기로 했소? 그랬다? 꽤 해낼것 같소? 운수직장 운전사들이 모여 앉아 토론했다? 그 동무가 자진했다구. 그러니까 추천한게 아니라 그 동무가 자진했다는거겠소?》

그러고보면 관준이도 심중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서영선이 자진한것은 무슨 사랑의 감정에 흔들린것 같기도 했다. 어제저녁에도 처녀와 유보도와 얼음덮인 계단을 내려가더라고 방금 누가 말했겠다. ...

관준이 한동안 갑자르며 송화구에 대고 후 - 후 입소리만 내고있는데 출입문이 벌럭 열리더니 찬바람이 확 끼쳐왔다.

《떠납시다. 발동을 걸어놓았습니다.》

91 호운전사 서영선의 목소리가 마치 관준이 들고있는 송화기에서 울려나오듯 사람들의 머리위로 퍼져갔다.

여기저기서 팔들을 걸어올리고 시계를 보는 사람, 《떠나지 않겠습니까? 불비속을 뚫고 전시무사고수송을 보장한 기사장동지가 고문격으로 가는데야...》 이렇게 권하는 사람, 방안의 분위기는 시간을 재촉하고있었다.

관준이는 송수화기를 놓고말았다. 이제 사람을 바꾸어 장거리수송준비를 시킨다는것이 운행중같은것을 때주는 사무적인 문제가 아니였기때문이었다.

관준이에게 급한것은 시간이였다. 관준이의 머리 한쪽귀통이를 들고 빠급히 새어드는것이 서영선이기도 인간이다, 그럴진대 눈을 가지고 심장을 가졌다면야 공장의 현 실태를 보고 외면할수 있으라하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요사이 채탄기직장의 어느 처녀와 정분이 났다는것이 어쩐지 이번 일에 꼭 무슨 폐단을 끼칠것만 같은게 마음이 번거로왔다.

관준은 인차 자신을 질책하였다. 사랑과 같은 개인적자유에 속하는 문제에까지 직권을 리용하여 꺼들 권한이 없기때문이었다.

관준은 옷걸개에서 부라부라 솜동복을 내려입고 털모자까지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채탄기직장장쪽으로 낮을 돌렸다.

《직장장동무, 무슨 일이 있어도 굴피아침까지는 도착할테니 그렇게 준비해주오.》

관준은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외등이 환히 밝은 정문앞에서는 차의 발동소리도 모여선 사람들도 활기를 띠고있었다.

정문으로 황황히 걸이나와 한걸이나 되는 차문손잡이를 비틀고 운전칸에 오른 관준은 옆에 틀고앉은 영선이에게 《떠나지요.》 하고 군사지휘관들의 구령처럼 모가 나게 그러면서도 믿음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차는 언땅을 구르며 정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모여섰던 사람들이 좌우로 흩어지면서 자동차열을 따랐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부탁의 목소리를 웨쳐대기도 하고 어떤 처녀들은 손을 흔들어도했다. 차문밖으로 시선을 던졌던 관준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다는 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미구에 고고성을 터칠 새 채탄기의 운명이 결코 몇몇 생산자들이나 일군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것이다,

별안간 차가 주춤거리더니 서명선이 운전칸문을 열며 잣아드는 소리를 내보낸다.

《안심하구 기다리오.》

관준은 무슨 영문인가싶어 창문밖으로 다시 시선을 던졌다가 눈이 커져서 뒤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인지 하려다가 못다한 표정으로 한손을 쳐든채 따라오는 한 처녀의 모습에 눈길이 붙들리웠던것이였다. 서영선은 무표정한 얼굴로 두툼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가속기를 밟는다. 처녀는 여전히 그자세로 몇걸음 따라오다 멈추어선다.

관준은 처녀한테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뭔가 몽클한것이 가슴을 두드리며 눈뿌리를 달구었다. 관준은 그 처녀가 또 따라오다가 발이 걸쳐여 넘어질것만 같아 그리고 어쩐지 눈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 처녀가 어둠속에 잠겨버릴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못하였다.

미색데트론으로 날씬한 몸매가 살아나게 해입은 솜동복, 가쁜히 맨 혁피, 목털깃을 대지 않은것으로 하여 목이며 얼굴이 더 단아해보이는 차림새, 처녀

는 어둠속에 사라졌으나 그의 모습은 사진을 찍어 놓은듯 눈앞에 오래 남아있었다.

(이 동무가 공장의 저런 부탁을 알기나 하는지...)

자연 이런 생각이 북받치면서 영선의 마음을 타진해보고싶었다.

《동무가 자진했소?》

차가 정문을 멀리 벗어나 길거리에 나서자 관준은 이렇게 물었다.

《예.》

이렇게 허끝으로 무거운것을 들어올리듯 한마디 했던 영선이가 우물쭈물하며 갑자르더니 《딱그렇다고 말할수도...》 하고 말끝을 감추었다.

(이사람이. 그럼 누구퐁에 놀아 나섰단말인가.

혹시 처녀의 인기를 끌자고?...)

피득 차창우에 드리워 흔들거리는 장식레스에 눈길이 끌렸다. 섬세하고도 다심한 손길이 어린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어쩐지 이 데면스런 친구에게는 격에 맞지 않는것 같아 골살이 찌프러지는것을 참으려니까 가슴한복판으로 무엇이 뚫고 지나가듯 심장이 뜨끔 쏘았다.

그러나 관준은 감정을 눌러야 했다. 이제는 영선에게 힘이 되고 고무로 되는것외에 다른것이 용서될수 없었다.

《혼자서 천여리가 넘는 길을 대어댈수 있겠소?》

관준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코날개좌우에서 무슨 신호등처럼 껌벅이는 영선의 눈길을 살폈다.

《글쎄요. 두고봐야지요. 차라는게 어디 사람의 마음처럼 되어주는 물건입 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대답이었다.

(무책임성이 이젠 입에까지 옹아가 아무 말이나 탕탕이군.)

관준은 자기를 몹시 후회하였다. 운수직장에 파업을 준 후 운전사선발정형을 알아봤어야 했을것이고 서영선이한테 응당 교대운전사를 달아가지고 왔어야 했을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관준이 머리에 교훈으로나 남아있을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어느새 관준의 가슴속은 서영선에 대한 불만이 발효하듯 끓어오르고 공장에 물의를 일으켰던 지난 일로 생각이 아지쳐갔다. ...

이런 일도 있었다. 역에서 채탄기직장의 탄을 실어들이던 영선이가 마지막속에 반차도 안되는 탄을 싣고 들어왔다는것이다. 알아보니 탄을 싣고들어오

면서 보니까 저녁인데도 채대군인 산림집 두채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더라는것이다. 그래서 그 집 마당에 서너툼씩 부리워놓고 《잘사시라, 행복하시라!》 라는 글발까지 써넣었다는것이였다.

채탄기직장에서 이런 보고를 받은 관준이가 후방과에 채대군인세대들의 석탄공급정형을 료해하여 보니 영선이가 탄을 부려놓았다는 두 집은 신통히 안해들이 첫 해산을 하려 친정에 가고 남편들은 공장합숙에 들어와있는 집들이였다.

물론 생활에서는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업상에서는 어디까지나 무규률적이고 심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죽하면 91 호운전사 피짜라는 소문까지 나돌았겠는가...

하지만 지난 일은 지워버려야 했다. 앞일을 생각하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때에 언제 뒤일에 머리를 쓸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천리가 넘는 길우에 나선 이상 생각도 시간도 아껴야 했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보니 운전사를 데리고 가는 부기사장으로서 너무나도 빈손이였다. 이제부터 먹이고 휴식시키고 고무시키는것이 관준의 임무였다.

《가만, 뭘 좀 싸가지고 가지요.》

관준은 시내를 벗어나기전에 도중식사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게 뭘 좀 있습니다.》

영선은 운전칸 의자등받이뒤를 눈짓했다.

《언제 준비했겠소. 갑자기 떠난길인데.》

관준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렴 부기사장동질 굶기기가 하겠습니까,》

서영선은 이번 수송길의 책임자가 자신이라든듯 태연하게 말했다.

관준은 도중식사로 하여 미안스럽기도 하고 한편 까닭없이 불쾌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했다. 차는 어둠속에 더깊이 몸을 잠그면서 고속으로 달리였다.

초저녁 차소리는 우에 떠돌며 운전칸은 요란히 울리더니 새벽이 되면서 차소리는 밀으로 잣아들어 땅 표면우에서만 뽕뽕거렸다. 운전칸은 제법 아늑하기까지 했다.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관준은 영선의 얼굴에서 눈길을떼지 못했다. 피곤과 졸음이 영선의 얼굴에 지긋게 매달려 그 퉁퉁부레한 얼굴을 가냘픈 모습으로 만들어놓았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차창밖멀리까지 달리고있던 그의 눈길은 차차 차앞 전조등밑으로 숙어지고있었다. 깜박하는 순간에 간신히 들려있는 그의 눈섭이 닫기게 될수 있을 것 같았다.

관준은 험험 기침을 했다. 그 바람에 영선의 눈까풀이 들리더니 눈동자가 원기를 회복하는듯싶었다.

관준은 차창을 내리웠다. 갑자기 퐁퐁 얼어든 겨울밤의 차디찬 공기가 얼굴에 확 끼쳐들었다.

서영선의 눈길이 전력을 보충받은 무슨 신호등처럼 빛을 냈다.

《준비를 하느라고 미리 잠을 자지 못했구만.》

관준은 졸지 말라는 주의를 이렇게 에둘러 했다.

《언제 잘새가 있습니까. 종합채탄기때문에 채탄기직장장이 눈이 아홉이 되어있는데... 그놈의 종합채탄기가 한것은 인정사정도 없는 모양입니다. 술한 사람들의 속을 말리구.》

영선의 이 말은 관준이를 어딘가 멀리로 동심세게로 이끌어갔다.

(이 친구 말처럼 정말 기계가 사정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럼 속타는 일도 없을게고 사고도 생기지 않고 자재걱정도 안하게 될게 아닌가.

50 나이 절반을 탄광기계생산에 바쳐오면서 머리를 얼마나 썼던가. 또 속은 얼마나 태우고...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벌써 귀밑머리가 허영게 되지 않았을지 몰라...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에 살가. 새날은 무슨 맛에 맞구 밤은 무슨 멧에 보낸단말인가. ...)

차는 여전히 이른아침의 차거운 대기를 가르며 기세 좋게 달리고있었다. 차가 풍산령 턱밑에 이르렀을 때는 산머리는 벌써 새날에 자기를 맡긴채 아직 어둠이 채 자리를 걷지 못한 산밑을 굽어보고있었다. 구불구불 40 리길, 위험한 령길이었다.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부기사장동지, 눈을 좀 붙였다 가지 않겠습니까?》

말은 이랬지만 장갑을 벗고 제동장치를 든든히 하는품이 한참 청할 자세였다.

관준은 거기를 지나 어디쯤 가서 마음놓고 휴식하려 했으나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부기사장동지도 좀 눈을 붙이십시오. 난 먹지 않고는 견딜수 있어도 잠하구는 꿈쩍못합니다. 잠하구는 손을 들었으니깐요. 어떤 사람들은 흰밥에 고기국이 어쩔소, 차떡에 꿀이 어쩔소 하지만 사실

이야 잠만한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돈주교사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영선이가 하는 말이다.

《그럼 좀 쉬오. 난 별로 잠이 오지 않소. 난 먹지 않고는 못견디어도 잠하구는 이길수 있을것 같소.》

《그렇습니까?》

좌석에서 일어난 영선이는 등받이뒤에서 큼직한 꾸레미를 꺼내여 관준이앞에 내놓았다.

《그럼 뭘 좀 잡수십시오.》

명선이는 꽃보자기에 싼 커다란 음식꾸레미를 풀었다.

《핑장하구만. 집에서 성의가 대단하오.》

품을 들여 만든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었다. 겨울에 보기드문 썩갓이며 빨갭게 익은 고추장까지 싼것을 보면 보통성의가 아니었다.

《자, 한개 먹소. 그래도 먹어두는게 밀지지 않을게요.》

영선은 관준이가 집어주는 빵 한개를 먹더니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운전사들이 그러하듯 차바퀴를 탕탕 굴러보는것이였다.

관준은 음식을 좀 먹고나서 비닐통의 물까지 마셨다. 정신이 건뚱해지는것 같았다.

관준이 다시 음식보자기를 싸는데 네모나게 접은 편지가 나졌다. 관준은 영선이 부를가 하다 식후라 좋은 기분에 룡을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 편지를 펴보았다.

《동무한테 온 공장의 기대와 믿음이 쏠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탄처럼 뜨겁게... 호심.》

편지로 보아 한공장처녀가 분명했다.

(호심? ... 호심이가 누굴가?)

어쩐지 든던 이름같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리송한게 그 모습이 종잡히지 않았다.

(호심이라...)

이름이 좋았다. 아마 호수처럼 맑고 마음이 깊고 유순하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일것이 었다.

관준은 수천명의 종업원중에서 누가 호심일까하고 직장순서로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씨클중창조?... 속보판에서?... 어느 보고서에서? ...)

그러나 호심이란 처녀는 떠오르지 않았다.

차안에 풍기는 향긋한 썩갓냄새가 느닷없이 그의 가슴에 사랑의 단액을 뿜어주며 자기의 먼 청춘시절에 있었던 사랑의 전주곡이라고 할가. 첫사랑을 속삭이던 어느 기슭으로 관준이 생각을 날라갔다...

관준은 차문을 열고 쪽지편지를 내흔들며 소리쳤다.

《호심이가 누구요?》

《예? ...》

당황해하는 말소리가 울리더니 영선이가 운전칸으로 뛰어올라와 편지를 받아쥐었다.

영선의 눈동자는 육체의 온갖 기능이 집중된듯 번쩍 빛났다. 하지만련민의 정이랄가, 한껏 부푼 생의 희열과 행복의 향수같은것이 통투트레한 얼굴의 두터운 살갗을 뚫고 내비치지 않아 도무지 그의 심중을 들여다볼수 없었다.

그는 두줄밖에 안되는 편지를 글자를 갓 익히는 인민학교에들처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다시 본 모양새로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것이였다.

관준은 호심이에 대한 호기심이 동해나 영선이의 옆구리를 톡 쳤다.

《호심이가 누구요?》

영선은 우로 좀 쳐질사한 두터운 입술에 일순 야릇한 웃음을 싣더니 《그저 그런 동무가 있습니다.》

하고 아물쩍했다.

《그렇소?! 좋은 동무같구만. 혼자 어물쩍하지 마오.》

관준은 이렇게 말하고 시계를 보았다.

《지금 6 시요. 8 시 30 분까지만 자기요.》

어쩌면 식곤이라더니 그동안 밀렸던 잠과 피로가 일시에 덮쳐들면서 관준의 몸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나도 자겠소. 어서 좀 쉬오.》

《그런데 부기사장동지, 깰 자신이 있습니까. 난 잠하구 친한 사이니까 잠이 나를 일찍 놓아주지는 않을겁니다.》

《그건 넘려 마오.》

잠은 관준이를 점령해버렸다. 관준은 언제 이아기를 주고받았으랴싶게 순간에 잠들고말았다. 그렇지만 영선이한테 한 약속도 있고 갈길도 급하여 집에서 늘쌍 그러했듯 머리속에 2 시간이란 태업을 주었다. ...

자동차가 우웅우웅 힘을 쓰며 풍산령중턱을 오르 고있었다. 눈을 뜬 관준은 어안이 병병하여 시계부터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된 일이요?》

시계바늘은 일곱시에서 방금 자리를 뜨고있었다.

《정작 품들어 자자니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이라는게 버르면 달아나는 모양이지요?》

관준은 정신을 차렸다. 잠하고는 손을 들었다는 사람이 웬일인가싶었다.

관준은 영선이쪽으로 바투 다가앉아 험험 기침을 하기도 하고 발을 텅텅 구르기도 했다.

차가 풍산령을 넘어서자 또다시 영선의 눈가에 잠이 육박해들기 시작했다. 영선이 눈은 쪼프라졌 다가는 커지고 커졌다가는 이내 가느다랗게 닫기군 했다. 그러나 차는 멎지 않고 도로중심을 유지했다. ...

길우에서 한밤을 보내고 새날도 다갈 어슬넉에 차가 룡천입구에 도착했다.

관준은 체신소옆에 차를 세운다음 정형차의 정형을 알아보려고 내렸다. 관준이가 체신소로 들어갈 때 차밑에서 스파나소리가 났다.

관준이가 돌아오니 영선이는 여전히 차밑에 있었다. 근심스러운것이 퇴근시간이 켜 지난 뒤여서 상하차로력을 얻는 일이었다.

《가보지요.》

그러나 영선이는 응대가 없었다. 차밑이 조용한 게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관준은 차밑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스파나를 나르에 건채 잠든것이 아닌가.

관준이 몸으로 그윽한것이 한가득 차들었다.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눈곱이 달아올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동기를 옮겨실고는 영선이를 재워야 했다. 예상외로 차가 일찍 도착하여 시간적여유가 좀 생기기도 하였다.

관준은 차밑으로 들어가 영선이를 흔들었다.

《정말 잠하구 친한 사이구만. 그러다 얼음에 녹아붙으면 어쩔려구 그러오. 호심동무 생각도 해줘야지. 공장에서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소.》

영선은 떠들썩 놀라며 차밑에서 벌렁벌렁 기어나왔다.

차는 룡천읍 한쪽 변두리에 있는 농기계작업소를 찾아서 구울기 시작했다. 정작 목적지에 오고보니 여러톤이 나가는 전동기를 그것도 석대씩이나 옮겨 실을 일이 난처하였다.

차를 농기계작업소앞에 세우고 관준이가 내리는 데 접수출입문이 벌컥 열리더니 《탄광기계잡니까?》 하며 경비실에서 네댓명의 사람들이 둘레둘레 나왔다.

관준은 놀랐다. 그리고 기뻐다. 수백리밖에서 반겨주는 목소리를 들으니 지칠대로 지쳤던 피로가 순간에 가셔지는듯했다.

《…기다리던중입니다. 우린 한잠 늘어지게 자고 난 다음에야 올줄 알았는데 일찍 들어섰수다.》

이런 말을 들으니 관준은 코허리가 쨍해났다.

《어떻게 우리가 오는줄을 알고 이런 수고를…》

관준은 인사삼아 이렇게 말했다.

《그곳 지배인동무한테서 차가 떠났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탄광기계차가 오는줄을 알았는데 뒤미처 한녀성동무한테서 시외전화가 오질 않았겠습니까. 오늘저녁에 탄광기계차가 꼭 도착할테니 좀 늦어지더라도 전동기 옮겨실는 작업을 도와달라고말입니다. 그 전동기에 탄 몇천 몇만톤이 실려있다는 간절한 부탁을 듣고보니 탄의 신세를 지고사는 사람들이라 어디 집에 들어갈수가 있더라구요. 우리 대형차가 있으면 싣고떠나기도 하련만 이동작업에 나가 들어오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전동기에 기중기와야를 걸어놓고 기다리던중이웨다.》

관준은 두눈에서 무엇이 왈칵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이들의 목소리에서 서로 남남이 아닌 육친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

관준은 전화를 걸어온 그 녀성을 꼭 알아야 했다.

《전화를 걸어온 그 녀성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 무엇이라 했더라?》

《호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준은 부지중 이렇게 소리쳤다. 말해놓고보니 호심이 이름이 어떻게 생각났고 어떻게 입에서 튀어나갔는지 자기도 모를 일이었다.

《맞습니다. 강호심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특한 녀성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관준은 억센 집게 같은 큰것이 자기 심장을 뿌드드하게 조이는것만 같은게 숨이 껍 막혔다. 기쁨이 이렇게 심장을 엮어매어 꾹꾹못하게 할줄은 몰랐다. 영선이기도 같은 심정인지 덩덤한 얼굴로 어둠이 지붕처럼 뒤덮인 저 멀리 북쪽하늘을 바라보고있었는데 그 눈길에는 어둠을 투시하는듯한 광채가 번쩍이고있었다.

기중기로 전동기를 다 옮겨실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두사람의 팔을 붙들고 막아섰다. 접수실을 뜨끈뜨끈하게 달구어놓았으니 눈을 좀 붙이고 룡천음식구경도 좀 하고 가라는것이였다.

관준은 영선이를 생각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

이런 관준이의 심정을 눈치챈 영선이가 이렇게 나왔다.

《감시다. 가다가 정 졸리면 눈을 붙입니다. 운전사들의 잠자리야 운전칸이상 있습니까.》

관준은 기뻐다. 방금 말한 영선이가 정녕 91 호운전사가 맞는가싶어 그를 쳐다보기까지 하였다.

영선이가 고마왔다. 공장을 생각하는 그앞에 무슨 인사를 차려야 할지 몰랐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귀가 너무 커졌던것이 죄스러운게 그앞에 서있기가 면구스러웠다.

관준은 영선이를 다문 몇시간만이라도 채울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도로 빼앗기였다.

《전방감시만 잘해주십시오.》

…차는 공장을 향해 북으로 북으로 달리고있었다. (호심이라!)

관준은 또다시 호심이 생각을 했다.

《식당?... 상점?... 회관에서?...》

그러나 이번에도 호심이 얼굴이 기억되지 않았다. 하기가 수천명을 다 기억하고있을수는 없는일이지만 호심이만은 알았어야 했을것이였다.

울 때와는 달리 20 여톤의 중량물을 실은 차는 무겁게 움직였다.

차는 어둠과 무슨 시합이라도 하듯 둔중한 소리를 지르며 하우고개 평길을 오르고있었다. 누구나 이 고개를 오르면 숨이 《하우하우》 해진다고 그전부터 하우고개라고 전해오는 령이다.

차가 하우고개 중턱을 벗어나 아찔한 절벽을 에돌며 고개마루로 오를 때였다. 차가 갑자기 휘친하더니 절벽쪽으로 밀리면서 바위가 공회전을 했다. 영선의 얼굴에 콩알같은 땀방울이 삐직삐직 내뿜었다. 운전대를 감아친 그의 팔에 온몸의 힘이 실리고 있었는데 앞을 살피는 그의 눈에서는 무엇인가 불찌같은것이 튀어나왔다.

순간 무엇인가 썩늘한것이 관준의 등골을 스쳐갔다. 그러나 관준은 자신을 다잡았다. 전쟁시기 전연에서 싸운 3년간의 체험이 어려울 때면 늘 도와주었다.

《영선이, 침착하오.》

관준은 영선의 어깨를 꼭 잡았다.

차는 앞으로 나갈듯 나갈듯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움직이고있었다.

《적재함앞에 가마니에 실은것이 석탄쟁니다. 거기 삽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선의 이마에서 쇠물같이 무거운것이 똑똑 떨어졌다.

관준은 차문을 열고 적재함우로 올라가 석탄재를 뒤바퀴앞에 뿌리기 시작했다. 한삽 또 한삽...

차는 다시 속도를 회복하더니 길복판으로 들어섰다. 91 호는 명마루로 치달아오르고있었다.

관준은 창격전을 치른 전사마냥 삼을 전체 서서 영선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영선이는 어려운 고비를 참으로 용케 이겨냈다. 침착성, 책임성, 인내성,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고임목과 삼, 팽이, 영선이가 이런 사람이었던말인가? ...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달라질수가 있는가?! 어떻게, 누가, 무엇이 영선이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던말인가?!

차가 령을 넘어서자 관준은 다시 운전칸에 내려왔다. 했으나 도무지 가슴이 그득하여 무슨 말을 꺼낼수가 없었다.

《수고했소. 잘했소!》

관준은 운전대를 잡은 영선의 손을 꼭 쥐었다. 영선은 꼭 다문 입술을 한번 움짚힐뿐 말이 없었다. 차가 장평로동자구에 들어설 때였다.

교통안전초소에서 상위견장을 단 교통안전원이 나와 차를 세웠다. 관준은 은근히 속을 바재이었다. 차정비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미타한 생각이 든다. 영선이가 내미는 자동차의 기술안전자료를 확인하고난 교통안전원은 《점검을 해야겠소. 너무 무리하게 몰아댔구만.》 하였다.

공구함에서 각종 공구를 한줄 꺼내든 명선이가 앞바퀴부터 점검을 시작했다.

《먼길을 가자면 신발이 든든해야 하오.》

교통안전원은 복수스파나를 들더니 뒤바퀴 고정볼트를 조여주는것이였다. 관준은 그의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교통안전원은 차밑에도 들어가 조향장치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운전실에 올라가 발동을 걸고 제동장치점열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만족한듯 차에서 내렸다.

《떠나가보오. 호심이한테서 나한테 장문의 전보를 보내여왔소. 새 채탄기시운전이 바쁘다고 차를 다몰아댔수 있으니 꼭 Z-37-091을 잡아 점검을 시켜서 보내달라고말이요. 또 이것이 교통안전원인 내임무이기도 합니다.》

《저... 우리 공장 호심동무를 어떻게?...》

관준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제가 그 애의 사촌오빠입니다. 자! 그럼... 새채탄기 시운전을 미리 축하합니다.》

교통안전원은 어서 떠나라는듯 차단대를 들고 91 호를 떠나보내며 깅듯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호심이!)

관준은 또한번 말 못할 뜨거움으로 가슴이 몽클했다. 운전대를 우악스럽게 틀어쥔 영선이의 얼굴근육이 실룩거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침을 넘기는 소리가 꿀꺽꿀꺽 울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조금도 속마음이 내비치지 않아서 그의 생각을 알수 없었다. 차창우에서 장식레스가 춤을 추었다. 호심이란 처녀가 혹시 이 장식레스를 해단 처녀가 아닐가 싶었다.

... 차는 저녁무렵에 공장에 도착했다.

지배인이며 당비서며 공장 로동자들이 볼트, 나트를 손에 쥐고 전동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전동기조립은 불과 몇시간이 걸리지 않아 끝났다.

관준은 꿈만 같은게 총조립이 끝난 종합채탄기가 하늘에서 떨어진것처럼 신기스럽게 생각되였다.

시운전이 시작되였다. 한개의 막장을 도맡고있아 탄벽을 통채로 털어내게 될 용모부터 어마어마하게 생긴 쌍원통절삭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돌아가며 새 채탄기의 출현을 세상에 선포하듯 장엄한 동음을 울리고있었다.

방송차에서 쏟아져나오는 걱정 of 련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불어대는 환영곡소리, 기술자들이며 조립공들에게 안겨지는 꽃다발, 꽃다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환영의 각종 음향속에 관준은 문득 호심이를 생각하였다. 종합채탄기의 우람찬 동음도 저 즐거운 환영곡도 공장을 가득 채운 저 기쁨도 호심이가 가져온것이라는 강한 감정이 관준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저 꽃다발의 대오속에 호심이, 영선이를 세우지 않는다면 오늘의 시운전이 무색할것이였다.

관준은 호심이를 찾기 시작했다.

《호심동무가 누구요?》

관준이가 채탄기직장장에게 이렇게 물으며 꽃다발을 안고 서있는 처녀들쪽을 바라보았다.

《부기사장동무, 정말 별일입니다. 91 호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새 사람들의 발전은 참 놀랍단 말입니다! ...》

채탄기직장장은 관준의 말엔 개의치 않고 얼굴이 환해서 머리를 흔들어들었다.

그러나 관준이 역시 언제 채탄기직장장의 말을 새겨볼 경향이 없었다.

《아, 호심이가 어디 있는가말이요?》

관준이가 이렇게 급하게 다그쳐대자 채탄기직장장은 얼굴에 의아한 빛을 확 뿌리며 직장처녀들이 서있는 뒤쪽에 대고 소리쳤다.

《호심이 어디 있소?》

그러나 직장처녀들도 채탄기에만 정신이 팔려 직장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담아보려 하지 않았다.

《아, 게 호심이 없소?》

직장장이 전주대같은 키를 더 늘쿠어가지고 호령을 쳐서야 처녀들은 자기주위를 둘러보더니 없다고 말로써가 아니라 손으로 휘저었다.

(그럼 호심이가 어디 갔단말인가?)

관준은 호심이없이 채탄기앞에 늘어선 꽃다발대렬이 흩어질가봐 조바심이 났다.

관준은 직장장을 끌고 사람들속을 누비기 시작했다.

《아 - 91 호 운전사가 없는데 호심이가 있을게 뭘니까. 알고보니 서동무차에 레스장식을 달아준것 두 바로 우리 직장 호심이란말입니다.... 허허》

채탄기직장장은 그 처녀를 찾으면 혼쌀을 내주셨던 사람같지 않게 무슨 자랑거리처럼 말했다.

이때 꽃다발을 든 처녀들 한패가 달려와 채탄기 직장장의 팔을 붙잡고 어딜 숨어다니는가고 그의 잔등이며 앞가슴을 퐁퐁 두들겨댔다.

관준이는 곧장 운수직장 차고로 향했다. 자기가 왜 인차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몰랐다.

전등불빛이 누렇게 비쳐나오는 차고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흘러나왔다.

관준은 선뜻 거기로 다가갈수 없었다. 무엇인가 승고한것이 바자처럼 둘러선것 같은 감이 들었던것이다. 차앞에 놓인 바게쓰에서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올랐다.

한 처녀가 그 바게쓰물에 걸레를 행구어 내더니 꼭 짜서 차번호를 닦고있었다.

(어디서 보았던가. 저 처녀를?)

관준은 조용히 움직이는 그의 단아한 용모에서 그리고 무엇인가 희망에 빛나는 그의 순결한 눈길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꼭 어디서 본 처녀였다. 어디서, 어디선가? 관준은 자기 생각에 채찍질을 했다.

《아!》

관준은 하마트면 큰소리를 칠번했다.

저 처녀가 바로 엇그제저녁 차가 떠날 때에 정문을 훨씬 지나면서까지 따라오며 차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그 처녀였다.

그러니 저 처녀가 전동기를 무사히 싣고오도록 수백리밖에 전화를 걸어주고 전보를 처준 강호심이였다.

관준은 이제야 영선이가 어떻게 천여리를 넘는 눈길을 대어달릴수 있었으며 겹쳐드는 졸음을 이겨내고 전동기를 싣고와 종합채탄기의 시운전을 보장하였는가를, 그 위훈의 내면세계를 석연히 깨닫기 시작했다.

기술적타산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일을 저 연약한 처녀가, 혁명임무를 자각한 저들의 동지적사랑이 해놓은것이다.

아! 시대의 벽찬 숨결을 안고 한길을 걷는 저들의 사랑은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것인가.

또한 그것은 사람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위에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것인가.

호심의 다심한 눈길을 따라 운전칸으로 시선을 옮긴 관준이는 저도 모르게 키를 낮추며 어둠속에 주저앉았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맡긴채 네활개를 쪽 편 영선이가 들어가도 모르게 잠에 푹아떨어져 있었다. 그 가슴우에 그날저녁 자동차를 바래올 때 입었던 털목깃을 대지 않은 처녀의 미색 솜동복이 덮여있었다.

호심이는 아기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어머니처럼 조용히 차주위를 돌고있었는데 행복에 무르익은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운전칸을 더듬고있었다. 관준은 자기가 그전날의 청춘시절로 되돌아간듯한 감이 들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랑속에 응축되어있는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새삼스레 느끼기 시작했다.

따사로운 해빛을 함뿍 받아안고 충성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내린 우리 젊은이들의 사랑...

저 찬란한 별빛아래서 저들만이 아닌 얼마나 많은 그리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고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훌륭한 사회의 세포들이 생겨나 조국을 부강케 하는가!

참 좋은 밤이었다.

새해는 공장도 이 두 청춘에게도 참 좋은 해로 될것이다.

관준은 자기 가슴도 씨앗을 받은 봄의 대지처럼 부풀어오르고있음을 느끼었다.

관준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려고 했으나 자리를 틀수는 없었다.

누가 사랑에 넘친 저 아름다운 처녀의 마음을 깰가봐...

누가 행복에 넘쳐 깊이 잠든 저 청년의 꿈을 깨울가봐...

동갑의 모습

김철

어디에 남다른데가 있나
그의 리력에
어디에 류다른데가 있나
그의 모습에

그전날 다름없이
힘한 일, 궂은일에 어깨를 디민다
멀리서 보아도 먼저 인사를 하고
누가 이야기하건 끝까지 듣는다

젊은이들 예나 다름없이 자네라 부르고
녀인들도 스스럼없이 우리 비서라 한다
그래선가 터놓고 하는 말들이
그는 제 근본을 잊지 않으리란다

그런데 이즈음 들리는 말이
그의 눈에 전에없이 피발이 섰더라고,
수척한 모습
어딘가 편찮은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내 오늘은
만사를 제치놓고 그를 찾아갔더니
아닐세라 그는 밤이 깊도록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지 않는가

《여보게 동갑이,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괴롭히나.
자네 일 그만하면 잘돼가지 않았나.
아무렴 당사업이
땅 파고 마치질하듯 단순할텐가.》

나의 격려와 위로의 말에
천천히 고개 드는 나의 동갑이
그런데 그의 눈엔 지친 빛이 아니라
그윽한 생기가 넘치지 않는가

《여기 와 앉으라구.
나는 대학공부를 시작했다네.》
《아니 그건 룡담인가
아니면 진담인가.》
《보라구. 여기 한 당원의 창안이 있네.
이 사람은 고등수학으로 사색하는데
나는 어렵집작

주먹구구로 지지해왔었지.

또 이젠 한 젊은이의 대담한 착상
인류가 도달한 문명의 높이에서
새 세계로 비약하려는 하나의 디딤돌
그런데 누가 이걸 받아들여줄텐가.

놀랍도록 지성높은 새 세대가
우리 당의 문으로 들어오고있네.
새롭게 배우며 일할 때가 아닌가.
응, 동갑이?!》

전에없이 흥분된 몸가짐으로
교과서며 설계도며 원고몽치를
한옆에 밀어놓고 일어서는 그
비록 살은 내렸으나
젊어진 동갑이를 나는 보거나

그래, 그랬었던말이지
그래서 괴로워도 했던말이지
좋은 일이야
부러운 일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대는 얼마나 멀리 나갔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가까이
당이 가리키는 목표에 닿았는가!

자기 설 자리를
스스로 멀리 높은곳에 정하고
채찍을 들어
스스로 아픈곳을 내리치는 동무여

나도 그래 채찍밑에 어깨를 숙이노라
전에 없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동무여, 그대를 쳐다보노라

얼마나 좋아!
머리 세는 나이에도 잃지 않는 청춘
영원히 투쟁하며 영원히 전진하는
세련되고 로숙한 당의 품속에
우리 언제나
새롭게만 사는것이!
빛나게만 사는것이!

그 모습들을 다시 본다^{외 1 편}

윤영탁

20 리 날바다우에
은하같은 갑문을 안아올리며
시대의 자랑으로 빛나던 모습들
아, 그 병사들을 다시 보는듯싶구나

혁신의 불보라속에 하루해 지는
여기 카리비료공장건설장
그날의 전투장이 아니고
그날의 병사들도 아니건만
어이하여 저리도 그 모습들이 갈을가

하늘을 치받고 솟은 청석메부리를
한순간에 날려보내고도
집채같은 대형부재들을
단숨에 안아 옮기고도
성차지 않는듯 두주먹 부르짖고
구경도 없이 타입장으로 달려가는 저 병사들

그 모습은 그대로
천길 파도를 헤치며
한몸 교각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고
터지는 가물막이동쪽을 막아
성벽같이 두어깨를 들이밀던
그날의 병사들 모습이 아닌가

백이라 천이라
하늘가득 기둥을 세우면서도
그 어느 하나에도 흠집이 있을세라

타입면을 장관방처럼 다듬어가는
저 나어린 병사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랴

아, 갑문언제우에 서면
병사들이 수놓은 위훈의 이야기
전설처럼 파도우에 실려오더니
여기 카리비료공장건설장에 와도
병사들이 떨치는 기적의 노래속에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구나

결전의 그날엔 어디서나 한모습
조국의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되고
락원의 구역을 넓혀가는 사람들
보위색군복을 함께 입어서
그 모습들 모두가 하나같은가

우리 당이 그어준 화살표앞에선
모두다 하나의 자세로 내달리고
조국의 대들보를 받들어올리는 이 길에서
천이 모여도 만이 모여도
모두가 하나의 군상으로 맥박치는

아, 병사들
정답구나, 그 이름은 언제나
시대를 진감하는 위훈의 대명사
미답구나, 그 모습들은 어디서나
조국을 떨치는 영웅들의 한모습이여라

그 꽃, 그 열매 속에

착공의 첫삼 뜨고 돌아온 저녁
병사들은 정히 심네, 애어린 나무모
가설병실 트랙을 파고
배나무며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자주자주 옮겨가는 병사들 《살림집》에
한그루 두그루 심는 저 나무
언제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을가
그 열매를 병사들 맛이나 볼가

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땐
카리비료 폭포처럼 쏟아질테지
정녕 그날이 오면
병사들은 또다시 떠나갈테지

하루밤을 자고 가도 조국땅을 가꾸는
그 마음이 습관처럼 배인 병사들
높이 솟을 카리비료공장 추녀가
화원속에 빛나라고 바라는 마음

준공의 테프가 날리는 그날
병사들은 이고장을 멀리 떠나리
허나 저 나무에 피어날 꽃송이들이
정다운 그 미소를 고이 담아두리라

락원의 대들보를 더 높이 세우며
이 땅이 비좁도록 수놓은 위훈
무르익은 그 열매가 길이 전하리
아, 병사들의 그 위훈 길이 전하리

시인은 자기의 얼굴이 있어야 한다

류만

1

시인의 얼굴 하면 먼저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하여 망국노의 설음이 짙어가던 어두운 하늘가에 새 세기의 러명을 불러오며 천지를 진감시키는 혁명적 열정으로 타ळ던 혁명시인 김혁동지며 혁명가요를 하나의 사상감정으로 일관시키고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내려치는 시형상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유명무명의 항일혁명투사 - 시인들, 해방의 감격이 온 강산에 메아리치던 격동적인 그날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던 만민의 환호성을 심장의 박동으로 받아안으며 젊은 심장의 열정을 터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일성장군 찬가》의 격정에 넘친 시줄을 낳은 시인 리찬이며 서사시 《백두산》과 《조선은 싸운다》와 같은 시작품을 창작하여 호방하고 격동적이며 웅심깊은 감정과 운률의 거침새 없는 흐름으로 격정의 령마루를 치달아가는 열정의 시인으로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시인 조기천을 비롯하여 해방후 시문학발전의 길을 자기나름의 체취와 자욱을 남기며 걸어온 시인들... 그리고 해방전으로 더 거슬러오르면 20년대에 민요풍의 시로 자태를 나타낸 김소월이며 어둠속에서 몸부림치며 폭풍우를 부른 리상화, 피압박계급의 계급적열정으로 타ळ는 《나의 행진곡》을 높이 부른 류완희며 착취사회의 모순의 전개를 꿰뚫어보며 《프로레타리아의 광명》을 부르짖은 김창술 등... 독자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시인들은 다 얼굴이 있는 시인들이었다.

그 얼굴이 독자들에게 안겨오는 표상은 각이하다.

어떤 시인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시대와 맞대놓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토로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시인은 조심스러운 《준비》를 거쳐 마지막에 시대정신의 금선을 강하게 튕기는 보다 사색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시인은 눈석이때의 산골물이 강으로 흘러내리듯이 단 한순간의 《여유》도 없이 격한 음조로 감정의 흐름을 즐기치게 일관시키는 정열적이며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시인은 강의 흐름과도 같은 그런유유한 흐름으로 감정을 펼쳐나가는 정숙하나 무게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가운데는 높은 목소리로 웨치기 위해 무척 애쓰는 시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질가 저어하며 대신 사색의 샘을 끊임없이 퍼내는 시인도 있으며 또 수집음을 머금은 처너처럼 감정의 마디마디를 나타내는 시이며 시줄, 시련들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시인들이 있는가 하면 고이고고인 열정의 분화구를 마구 터쳐 때로는 시형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듯이 느껴지는 시인들도 있다. 그야말로 시인들의 얼굴에 대한 표상은 각양각색이다. 그렇지만 다같이 시대정신에로의 지향을 안고 저마끔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진 이 다양한 시인의 얼굴, 거기에 자기의 특색있는 모습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하고있는 시인들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생생히 살아있는것이며 쌓이고 덧쌓이는 시의 수확가운데서도 그들의 시는 유난한 자태를 드러내는것이다.

원래 모든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얼굴-창작적개성과 뿔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창작가의 얼굴-창작적개성은 그가 쓴 작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되는것이며 작품에는 그 창작가의 얼굴이 그대로 비끼게 된다.

시작품들을 읽으면 그 시를 쓴 시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 시인의 얼굴을 생각할때면 그가 쓴 시작품들이 상기되는것도 그때문이다. 그만큼 시인의 얼굴-창작적개성은 시를 오래동안 써온 시인이거나 갓 시단에 등장한 시인이거나 시를 많이 쓴 시인이거나 적게 쓴 시인이거나 상관없이 그 존재가치를 규정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는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단 얼마간의 시를 쓰고도 벌써 독자들에게 특색있는 얼굴로 기억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시인은 적지 않은 시를 쓰고 지어는 시집까지 내어놓았지만 독자들이 좀처럼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로 인차 사라져버리게 되는것이다,

현대시문학의 력사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인들이 활약했고 헤아릴수 없이 많은 시작품들이 창작되었지만 시문학의 발전로정우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시인들이, 독자들의 기억속에 생생한 얼굴로 살아있는 시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시를 쓴다고 해서 모든 시인들이 다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는 없다.

시는 있는데 종시 특색있게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지 못한 시인, 시는 있는데 자기 교유의 얼굴이 못되고 남과 비슷하게 생긴 얼굴의 시인들이 없지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작품을 통해서 시인들이 자기의 얼굴을 독자들에게 표상시켜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뚜렷한 얼굴이 없는 시인은 시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인들이 쓴 작품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며 기억에서 인차 사라져버리고만다.

시인은 누구나 자기의 얼굴이 있어야 하며 그가 쓴 작품에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반드시 그의 얼굴이 비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시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얼굴, 시인의 고유한 얼굴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겠는가.

2

새것에 대한 탐구, 새로운 예술적형상에 대한 지향은 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얼굴을 가지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다시말하여 시에 시인의 얼굴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 시인이 탐구해낸 새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주체사상의 제시, 생활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의 방법과 언어표현에 이르기까지 통털어 내용과 형식의 전반에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 식대로 탐구해낸 새로운 세계가 있을 때 거기에 시인의 얼굴이 있게 되는 것이다. 독자들의 기억속에 사라지지 않고 간직되어 있는 시인들의 얼굴은 다 창작에서의 이러한 새것의 탐구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물론 새것에 대한 시인들의 탐구는 각양각색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창작된 시작품에는 시인이 발견한 새것, 시인의 몫이 있어야 시인의 얼굴이 있게 된다.

그런데 새것의 발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렇게나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새것의 탐구결과에 이루어지는 시인의 얼굴이 그저 시를 쓰기만 하면 저절로 쉽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인들이 자기의 얼굴이 있게 하자면 새것을 탐구하여 자기 교유의 시세계를 개척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우리 시인들속에서 새것에 대한 탐구로 자기의 얼굴-창작적개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일련의 긍정적인 결실을 가져오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지난해에 발표된 두 시초를 통하여 본 두 시인의 얼굴을 넘두에 두고 있다. 그 하나는 동기춘의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조선문학》 1986년 7호)이며 다른 하나는 문채건의 시초 《광주의 원한》(1936년 5호)이다.

지난해에 나온 많은 시편들과 시초가운데서도 유독 이 두 시초를 두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시인의 얼굴-창작적개성에 대한 시인들이 남다른 지향과 탐구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동기춘의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를 보기로 하자.

시초에 들어있는 《영생의 글발》, 《불타는 기발》, 《아낌의 정화》, 《인간의 가치》, 《인생과 조국》 등 다섯편의 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안겨오는 시인의 인상은 매우 사색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고 철학적이기까지 한 사색하는 시인의 모습이다.

혁명렬사릉을 찾은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 앞에서, 붉은 대리석기발안에서 그리고 려사들의 추모상 앞에서 한껏 사색을 펼친다. 그런데 그 사색은 구름다리를 뚫아 높은곳에 이르듯이 그린 《순차》적인 사색이 아니라 비약과 함축, 환상이 동반된, 무한히 폭이 크고 웅심깊은 그런 사색이며 그 대상도 주로 조국과 혁명, 인생 문제와 같은 사회적문제로 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시에서의 사색의 경지는 때로 《영풍하계》 느껴지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그 무엇인가 시대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크게》 말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거기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두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오오, 어찌 저 글발
땅에서 빛난다 하겠는가

영원히 불타는 저 금빛해살의 글발을
세기의 하늘에서 인류가 목매여 읽으리니
(시 《영생의 글발》에서)

백년도 못사는게
사람의 명이고
죽으면 묻는것이
범이라 해도

그렇게는 그렇게는 못해
 투사여, 피바다에서 그대 안아 올린 땅이
 그 어머니조국이 못 물어
 최후순간을 영생에 멈춰세운
 오, 혁명렬사릉 추모상이여
 (시 《아낌의 정화》에서)

자유가 없인
 차라리 죽음이 나왔으리
 조국은 다만 땅이 아니라
 그 자유

했어도 주작봉마루에 서니
 찾은 값이 너무 비쌌구나
 이 아까운 사람들과 바꾼 땅을 딛고
 분함에 억한 가슴을 두드리는 마음아
 (시 《인생과 조국》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금 친필비알에서 경건한 심정에
 사로잡혀있던 시인의 사색은 벌써 그 불멸의 글발
 을 세기의 하늘가에 펼치는가 하면 렬사들의 희생
 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통한 생각에 잠겨있던 시
 인은 어느새 영생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사색의 마
 루에 오르기도 한다.

다른 시인들의 시작품에서는 흔히 찾아볼수 없는
 그런 심각하고 철학적이며 호방한 사색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는가.

심오하고 철학적인 사색의 세계를 펼치면서도 시
 인은 결코 잡다한 사실의 라렬이나 일반적인 광의
 의 언어표현의 도입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들과 시줄, 시련과
 시련 사이는 극히 압축되고 비약되어있으며 시적표
 현과 언어 또한 그에 맞게 매우 선택적이며 정제되
 여있다.

새로운 시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시인의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진지하게 기울어져 비교적 성공한
 시가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생이 끝났다고
 죽은것인가

명이 붙어있다고
 산것인가

10 대에 죽었어도
 별이 되고
 100 살을 넘기여도
 흙이 되는

인간이기에
 인간에게만 있는
 그 리치
 준절히 깨우쳐주는 혁명렬사릉

한세상 사는 사람아, 너나없이
 렬사들앞에서 후회없을 인생을 자각하자
 인간의 가치는
 조국에 바친 지기 심장의 값이더라

이것이 시 《인간의 가치》의 전부이다.

마치도 그 어떤 인간의 가치, 삶의 진가에 대한
 훌륭한 경구를 읽는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러
 면서도 그것이 허황하게 느껴지지 않는것은 혁명렬
 사릉에서의 시인의 체험세계가 주체의 인생관에 안
 받침되어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있기때문이
 다.

여기서 사색적인 시인의 인상이 짙게 풍기며 그
 것은 그 무엇인가 생활의 진리, 인생철학을 주체의
 관점에서 심오히 밝히려는 시인의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는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시인들이 진
 부한 시어와 시형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것
 을 생각할 때 《인간의 가치》와 같은 무게있는 철
 학적사색의 시세계로 우리 시단의 사상정서적깊이
 를 보장하고 함축과 비약의 특색있는 형상으로 예
 술적다양성을 꽃피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는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를 읽으면서 새
 것을 탐구하고 자기의 시세계를 확립하려는 시인의
 의도적인 진지한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와 공
 정을 표시하면서도 창작적개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인이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것을
 지적해야 할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시초의 모든 시들이 조국
 과 혁명, 인생과 자유에 대한 철학적사색으로 특징
 적이며 그 형상에서 언어의 절제와 함축, 비약으로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초의 모든 시들
 에서 《인간의 가치》에서와 같은 그런 강한 사상
 정서적충격과 감흥을 충분히 받아안지 못하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
 를 발표하기 전해(1985 년) 4 월에 《조선문학》
 지상에 발표한 세편의 시를 동시에 언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세편의 시는 시인이 혁명
 의 성산 백두산 답사과정에 느낀 체험에 기초하여
 창작한 시로서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에서와 같

이 심각한 사색의 경지를 펼치는 시인으로서의 그의 체취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백두산에 눈보라 칠 때》를 비롯하여 세편의 시에서 시인은 혁명과 인생문제 등을 두고 자연현상과의 대조속에서 심각한 사색의 세계를 펼치려고 지향하였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것이 추상적인 감정세계에로 떨어짐으로써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족점은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에서 현저히 극복되었다. 그러나 역시 시초와 세편의 시를 놓고 볼 때 시인이 자기의 개성적특성을 살려나가는데서 극복해야 할 일련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는것이다.

그 하나는 정서적체험이 깊지 못하고 진실성이 일부 결여되어있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연결되어있는 추상적인 경향이다.

시 《영생의 글밭》, 《불타는 기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작품들은 매우 의의있는 소재를 시화하고 또 시인의 주장도 정당하고 감정의 논리성도 보장되고있는데도 시인의 심각한 사색에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충동을 받아안지 못하게 되는것은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이 약하기때문이다. 시인은 응당 심장으로 느끼고 심장으로 터득한 생활의 진리를 뜨거운 심장의 분화구를 거쳐 뿜어올려야겠으나 적지 않은 경우 심장의 감동과 흥분이 없이 상념의 세계에서 《사색》 일면에만 치우치다나니 시가 정서적공감을 주지 못하며 지어는 시인의 주장이 공허하게까지 느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함은 특히 시 《백두산에 눈보라칠 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조약돌까지 휘뿌려치는 눈보라가 칠 때 백두산의 바위를 끌어안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해졌다는 주정을 토로하고있는 시인의 의도는 심분 리해되나 그에 앞서 시인은 그러한 생활감정, 그러한 환상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안겨지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것이였다.

시에서의 환상도 그것이 우화나 동화가 아닐진대 철저하게 생활적진실성과 타당성에 발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정서적체험의 홀시, 생활에 대한 지나친 과장과 생활을 떠난 환상세계에서의 사색이 《백두산에 눈보라칠 때》를 비롯한 그의 일부 시작품들로 하여금 진실성을 잃게 하며 지어 추상적인 느낌까지 가지게 하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에는 레외없이 이 시들의 장점으로 되고있는 강한 함축과 비약의 수법이 생활감정의 진실에 토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시형식에서의 추상성을 낳을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게 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부족점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인으로서의 얼굴 - 창조적개성을 위한 이 시인의 최근의 탐구적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시인이 10여년전에 발표한 비교적 인상깊게 씌여진 련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조선문학》 1975년 9호)를 상기하게 된다. 이 련시에서 역시 우리는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에서 보여준 시인의 얼굴을 느낄수 있는바 《땅은 흙이 아니다》,

《전쟁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혔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등 시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국과 인생과 관련된 심오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철학적해답을 주려는 시인의 사상정서적 지향이 강하게 느끼지는것이라든가 시에 펼쳐진 사색이 《평범》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심화되어가는 과정, 언어표현에서의 폭이 크고 뜻이 깊은 새것의 탐구 등이 그러하다. 이 시들은 창조적개성으로서의 이 시인의 체취를 느끼게 하면서도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에 비하여 볼 때 아기자기한 감정의 섬세한 굴절과 생신한 생활적세부들이 감동적으로 펼쳐져 있는것이 그뒤에 쓴 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의 어머니》(《조선문학》 1981년 8호) 등에서도 그대로 느낄수 있는것이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련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와 그 계열의 시들은 감정의 꾸밈이 없고 진실하고 소박하며 생활적정서가 풍만하면서 구수하게 감수되었다. (물론 어느면에서는 생활세부의 잡다한 도입으로 운률에 대한 고려가 도외시된 감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를 읽으면서 우리는 련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에서와 같은 시인의 숨결, 맥박, 체취와 사색을 느끼면서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생활적정서가 약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또 그것이 이 시초의 부족점을 산생시킨 근원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놓고 볼때 이 시인의 경우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잡고 사색의 폭과 깊이를 웅심깊게 펼치며 함축과 비약으로 간결한 시형상을 창조하려는 지향과 탐구를 계속 살리면서 그것을 련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감정의 진실과 결합시켜 나아가는데 보다 창조적관심을 돌리는것이 시인의 얼굴-개성을 보다 원숙하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문제건의 시초 《광주의 원한》은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에서와는 다른 측면에서 시인의 얼굴이 보여지는 작품이다.

이 시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시인이 《조선문학》 1984년 5호에 발표하였던 세편의 시 《광주의 열》, 《원한》, 《한송이

두송이 없혀지는 꽃》을 함께 이야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초는 바로 이 세 시편의 련속이며 그 모두가 하나의 개성적면모를 느끼게 하는것으로서 이 시인의 이전 시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새롭다.

두해사이애, 그것도 광주인민봉기의 력사적사실에 사색을 모아 8편의 시를 창작해내고 그 시를 통하여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얼굴을 독자들로 하여금 표상할수 있게 하였다는것은 창조적개성의 확립을 위한 시인의 진지한 탐구와 노력을 엿볼수있게 한다.

시초 《광주의 원한》에서 보여준 시인의 모습은 우선 다정다감하다는 그것이다. 시인은 거리의 바리케트며 열려진 창문, 하나의 일사귀와 한송이 꽃을 보고도 진정 못하며 그것을 잊을수 없는 투쟁의 나날과 련관시켜 깊은 사색에 잠긴다.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원쑤의 아성을 짓부시고야말 굶힐줄 모르는 광주의 기개가 솟구쳐오르고 독재타도의 절규가 메아리치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싸움에로 부르는 고귀한 녀의 숨결이 느껴진다.

이렇게 창작된것이 《바리케트》, 《붉은 일사귀》, 《창문》, 《한송이 두송이 없혀지는 꽃》 등 시편들이다.

사실 광주인민봉기의 그 격동적인 사변에 비추어 볼 때 창문이며 락엽, 꽃송이 같은것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시인은 광주인민봉기를 노래한 8편의 시들 창작하면서 대체로 이런 《작은》대상을 소재로 선택하였지 결코 광주인민봉기 그 자체의 사변적인 내용을 택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시인이 생활을 대하는데서, 소재를 선택하고 시상을 펼치는데서 자기나름의 일반화의 특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광주인민봉기를 노래한 적지 않은 시작품들이 그 사변적인 내용을 안고 시상을 펼치고 정론적인 주정을 토로하는 식으로 창작되었다는것을 생각할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 시대에는 영웅적인 사변들을 직접 노래하는 시작품들도 있으면 하지만 시초 《광주의 원한》에서와 같은 세부적인 작은 생활사실들을 붙잡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불태워 그 영웅적사변의 정신적높이로 지향시키는 시편들도 있어야하는것이다. 이런 면에서 시초 《광주의 원한》의 시인은 미제와 전두환피괴도당의 반인민적죄행을 단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노래하는데서 다정다감한 정서로 시적일반화를 실현하는 특색있는 시세계를 펼쳐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함께 시초 《광주의 원한》에서 특히 눈에 띄는것은 시인의 독특한 시의 전개방식이다.

시초를 포함하여 8편의 시의 경우 그 감정흐름에서 특징적인것은 처음부터 시의 초점이 명백히 제시되고 그것이 다양하게 반복강조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일정한 사상적지향이 주정으로 토로되고있는것이다.

아, 자유
목마르게 찾던 자유
폭압의 총검에 짓눌렸던
숨막힌 가슴들에 맥박친 자유

...

아, 땅우에 찾아온 자유
(시 《자유의 공간》)

5 월
광주의 5 월
5 월은 어둡다
...

어둡고 김캄한 광주의 5 월이여
(시 《광주의 5 월》에서)

임의의 실례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시인은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자유, 5 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어떤 자유, 어떤 5 월이며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파고들면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주정을 힘있게 토로하고있다.

때문에 시초의 시들을 읽어보면 시의 폭은 크지 않는데 시적대상, 시의 초점과 련관된 감정의 집중과 그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전개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따라서 시가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그 감정정서는 매우 깊고 풍부하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시인이 시줄을 짧게 하고 앞시줄과 뒤시줄과의 정서적상승을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반복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고있는데서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공정대놈들
미친듯 쏘아대는
총탄의 소낙비에
하나 둘 쓰러지는 대학생들
그들 머리우에 가슴우에
질벽한 붉은 피우에
우수수 한잎, 두잎
내려앉는 가로수, 파아란 일사귀

아, 봄의 락엽이여
꽤아닌 5 월의 락엽이여
너는 흐르는 피에 젖어

붉은 잎사귀 되었구나

통분코나

때이르게 가야 하는

가야만 하는 아까운 청춘들

몸부림치는 광주의 5 월이어

홍악무도한 파썸의 광풍속에 훑날리는

5 월의 붉은 잎사귀는

불꽃이 되어

격문이 되어 온 세상에 날린다

이것이 시 《붉은 잎사귀》의 전부이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떨어지는 잎사귀는 2련, 3련, 5련에서 세번 반복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 반복과 반복사이에는 정서적감정의 축적이 안받침되어있어 마침내는 마지막련에서 그것이 투쟁의 격문으로 승화되고있는것이다.

시형상에서의 이러한 반복과 강조는 8편의 시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동시에 이것이 이 시인이 자기 시의 형상적특성을 살리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 견지에서 탐구해낸 형상수법으로 되고있다.

시줄을 짧게 구성하는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일부 시들의 시줄이 무턱대고 길어지고 게다가 거기에 뜻이 큰 일반적인 시어들이 과잉되어있어 매우 진부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를 생각할 때 그 짧은 시행이 주는 속도감과 경쾌감, 발랄한 정서적호흡은 얼마나 독자들의 미감에 잘 어울리는것인가.

이와 함께 시조를 포함한 8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수 있는것은 시인이 때로는 정서적으로 양양된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에조차 절대로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는것이다. 시인은 다정다감한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감정정서의 자연스러운 토로로써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때로는 누를수없는 울분과 분노, 솟구치는 눈물과 원쑤에 대한 증오, 투쟁에로의 호소를 토로하는 경우에조차 시 《붉은 잎사귀》의 결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객관적인》듯이 보인다.

이것은 그의 시로 하여금 시적사상의 인위적인 강조나 시인의 의도의 지나친 로줄을 막고 시의 서정성을 강화하게 하는데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초 《광주의 원한》의 시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형상창조를 위한 탐구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말할수는 없다.

반복강조에 의한 시형상의 함축과 감정의 조화로 온 흐름을 보장하려는 시인의 시도가 충분히 리해되면서도 그것이 때로는 시의 폭을 좁히고 감정변화에서의 질적비약을 약화시키는것으로 하여 시의 정서적양양을 제대로 실현할수 없게 하고있는것은 시인이 그러한 수법을 좀더 세련시켜 나갈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시들이 읽을 때는 섬세한 감정 세계에 침취하게하지만 그에 비하여 읽은후 강한 정서적충격과 여운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한것은 시인이 《객관적》인 립장에 서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좀더 결구에 《개입》하여 거기에 힘을 넣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인들속에서 새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가 심화되고 자기의 얼굴-창작적개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일층 강화되어 새로운 창조적 결실이 이루어지고있는 가운데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와 《광주의 원한》을 중심으로 두 시인에게서 지향되고있는 개성적인 면모들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시인의 개성은 몇편의 작품으로 완성되는것도 아니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또 그 과정에는 극복되어야 할 부족점도 있으며 더 세련시켜야 할 문제들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로정은 밝든 시인에게에는 반드시 자기의 얼굴-창작적개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시인은 작품창작을 통하여 자기의 개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손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야말로 꾸준하고 진지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나 《광주의 원한》을 좋게 생각하는것도 그것이 완성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최근의 시단에서 자기의 얼굴이 있는 시를 쓰려는 시인들의 노력이 확연히 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시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도식과 류형, 모방의 세계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것에 대한 탐구적지향을 안고 비록 서툴고 미숙하더라도 창작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실사 적게 쓰더라도 얼굴이 있고 개성이 있는 시를 쓰는 시인만이 시인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지며 특색있는 자기의 창작으로써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을 꽃피우고 사람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꿈이 아닌 봄

량덕모

머리위의 봄빛이 따스하여
그날의 기쁨 벌써 이 가슴에 싹트는가
산들산들 봄바람이 정에 겨워
그날로 향한 발걸음 이리 가벼운가

새 7 개년의 첫해 봄
갈아 번진 이랑따라
씨앗 뿌려가는 저 들끝에
우리 수령님 밝혀주신 래일이
눈이 시게 안겨오누나

수수천년
봄마다 씨앗뿌려 가꾸어온
농민이란 그 말이 없어질 땅
공업의 한지붕아래서
노래처럼 흥겹게 농사지을 래일이여!

아지랑이 타고 어려오는
그날이 벅차고 환희로워
쭈뼌뚱 밟아가는 이랑이랑
축복받은 세대라고
자꾸만 나에게 속삭이는구나

생각 못했어라
나의 할아버지 해방의 봄빛 안고

감격의 씨앗을 펼구며,
나의 아버지 누렁황소 앞세우고
협동의 씨앗을 묻으며

내 또한 트랙또르 몰고
희망에 넘쳐 달려온 길에
이렇듯 빨리 눈부신 그날이
가까이 마중 올줄은

상패한 봄 대기를 흔드는 기계소리
희망으로 부푼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날로 내달는
이 땅의 숨결은 얼마나 드높은것인가

아. 세기의 전변을 안고
약동하는 농장벌의 새봄이여!
내 뿌려가는 알알의 씨앗
하늘땅에 눈부신 금나락빛이 되어
그날의 노을로 불타오르려니

꿈이 아닌 봄
깎갈은 새 행복의 씨앗을 뿌려가노라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그날의 기쁜 이랑우에, 이랑우에

그가 걸은 길

김흥권

어니 가나
쉬이 볼수 있는 길이었다
숨은 영웅 -
그가 걸은 길은

산악이 막아선 길도
총칼이 막아선 길도 아니었다
그토록 한마음 진정을 고이며
그가 걸은 길은

밭에서 도서실로

어떻게 알았으랴

실험실에서 밭으로
그리고 또 속소로 오고간
멀지도 넓지도 않은 그 길

누가 알았으랴
스스로 마음속에 높이 세운 그 목표
미지의 세계
넘기 어려운 아득한 령마루
아버이수령님의 기쁨이 될
그것으로 하여 가슴벅차던 길

아직은 세상이 보지 못한 씨앗

땅도 하늘도 세월도
만들지 못했던 그것
그것을 수령님께 드릴 신념으로
멈출수 없었던 길

실패의 언덕뿐이라
그 길에 바친
기나긴 나날
홀로 보낸 청춘시절도
뜨겁게 헤아려주신 위대한 그 사랑

한알의 씨앗에서
과학자의 참된 일생을 보시며
숨은 영웅이라 불러주신
아버이수령님

오, 정녕

그가 걸은 길은
어디에나 언제나 있는 길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었다

다만 가슴속에
수령님 바라시는
심장을 지녔을 때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타는 열정을 안았을 때
그때만이 걸을수 있는

그런 길이어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온 나라 수많은 발걸음들이
이어진 길이어!